



6

1994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4. 6호

(루게 560)



◆◆◆◆◆◆◆◆◆◆ 차 례 ◆◆◆◆◆◆◆◆◆◆

작가들은 혁명적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문학작품을 창작하자	4
그 이름-강철의 령장	7
우리 군대는 승리의 군대	8
기차는 정시로 간다	9
숭고한 정신	20
3 대위인이 내린 성산	21
해빛을 우러러	24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련속편의 주제를 바로 설정하도록 이끄시여 ..	25
투철한 혁명적수령관, 비범한 문학적천품의 빛나는 구현	27
명언	32
허물없는 벗	33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령도를 빛나게 구현하는것은 우리 식 문학예술창작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근본방도	35
기다리시는 시간	38
위대한 력사의 나날을 더듬으며	39
직기와 속삭이는 말	42
나의 세포 당원들에게	42

날염공처녀의 마음.....	43
명제해설	44
시 한편을 써놓고.....	45
후더운 눈보라	48
백두산으로 간다.....	53
삶과 신념	54
그대 생의 마지막순간에	55
영생하는 351 고지.....	56
50 년대의 그 언덕에서.....	57
포로 심문 속기록.....	58
대답	59
평양은 무엇을 하고있는가.....	60
나의 기쁨, 나의 보람	60
그날의 대답을 생각하며	61
전선을 넘어온 마지막 사람.....	62
별많은 보천보의 밤에 (외 1 편).....	69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철강재생산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겠다	70
새 세대 압연공들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정신과 기백으로 키워 우리 당을 강철로 받들어나가겠다	71
어머니의 부탁	72
일터	73
병사의 배심	78
《자력갱생》의 글밭앞에서	79

작가들은 혁명적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문학작품을 창작하자

오늘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신념과 량심문제는 개별적인 작가의 운명문제를 초월하여 주체문학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최근시기 사회주의가 좌절된 일부 나라들의 실태는 작가들이 자기 수령, 자기 당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창작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난관앞에 동요하며 나중에는 당과 수령을 배반하고 사회주의를 버리는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사회주의문학을 망쳐먹게 된다는것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혁명적 신념과 량심을 지닌 작가만이 사회주의위업에 이바지하는 작품을 쓸수 있다.

사회주의문학은 그 직접적담당자이고 주인인 작가들이 깨끗한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창작할 때 자기의 혁명적원칙은 확고히 고수하고 개화만발할수 있으며 사람들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은 혁명적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글을 써야 합니다.

…자기가 쓰고도 후에 그것이 자기가 쓴 글인지 모르는 작가는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글을 쓰는 작가라고 할수 없습니다.》

작가들이 당과 수령을 받드는 확고한 신념과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창작하여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작가가 문학작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당과 수령의 위업에 복무하는 혁명가이기때문이다.

문학은 우리 당의 사상적무기이며 작가는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이다. 당의 사상전선을 지켜선 우리 작가들은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의 사상과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야 하며 작가의 필봉은 언제나 당을 옹호하는 혁명의 보검으로 빛나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터운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우리 작가들의 사회적지위는 매우 높아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작가들의 창작활동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그들을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재사로 여기시고 사회적으로 높이 내세워주고 우대하도록 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작가의 활동은 당과 수령의 위업수행과 밀접히 련결되어있다. 우리 나라에서 작가는 당 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당문제로선의 철철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이다. 우리 작가들은 선행한 그 어느 력사적시대, 그 어느 사회에서도 누릴수 없었던 최상의 사회적지위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 자부심을 안고 창작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이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인임과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면 깨끗한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작품을 써야한다.

작가는 시대의 의지와 신념과 량심의 대변자이며 지성인의 대표자이다. 그 어느 력사적시기에나 작가들은 정의와 진리에 대한 열렬한 옹호정신으로 충만되어있었으며 불의와 악덕을 타매하고 인간의 참다운 자주성과 행복을 위하여 글을 써왔다.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창작을 한 작가는 유구한 문학사에 영원히 기록되고있으며 그들의 작품은 시대와 시대를 넘으며 견인력과 생명력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가지고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창작한 혁명시인 김혁, 해방된 조국땅에서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맞이한 조선의 무한한 긍지와 행복과 영광을 안고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창작한 혁명시인 리찬, 항일혁명투쟁의 피어린 나날을 헤쳐 조국광복을 이룩하신 만고의 령장 위대한 장군님을 격동적인 화폭에 담아 서사시 **《백두산》**을 창작한 혁명시인 조기천 등 시대의 명작과 더불어 영생하는 작가들은 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 수령을 받드는 확고한 신념과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창작하였다. 우리 작가들의 신

념화되고 량심화된 충실성의 전통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숭배심과 매혹으로 승화되어 주체위업의 광휘로운 향도성을 심장으로 노래하는 우리 작가들의 창작에서 빛나게 꽃피어나고있다.

오늘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만 계시면 이 세상에 두려울것이 없으며 그 어떤 대적도 다 쳐부시고 이길수 있으며 민족의 장래와 후손만대의 번영과 행복이 담보될수 있고 사회주의위업의 중국적승리도 이룩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심장에서 우리나라오는 량심의 호소로 작품을 쓰고있다. 지금 우리 인민들속에 사랑을 받으며 읽히우고있는 혁명소설들과 수많은 시가작품을 비롯하여 시대의 명작으로 빛나는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은 다 당과 수령에 대한 작가의 신념과 량심에서 흘러나온것들이다. 이러한 작품만이 주체위업완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당사상사업의 강력한 무기로 될수 있으며 또 그런 작가만이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가로 될수 있다.

오늘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당과 수령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창작할데 대한 요구가 더욱 절박하게 나서고있는것은 또한 우리 문학의 현실태로부터 제기되는것이다.

현세기말에 이르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류레없이 악랄한 반사회주의적책동으로 인하여 사회주의위업이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문학앞에는 우리 작가들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으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데서 전위적기수가 되어야 할 시대적 및 력사적 임무가 나서고있다. 이 중대한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문학의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높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여 누구나 다 즐겨읽으며 생활과 투쟁의 길동무로 될수 있는 읽을만한 작품을 내놓아야 한다.

문학작품의 감화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작품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문제이다.

진실성은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다.

문학작품은 인간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인류문화사에 길이 전해질수 있다. 아무리 묘사가 세련되고 구성이 짜인 작품이

라 하여도 그것이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면 쓸모가 없다.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가 못그리는가 하는 문제는 작가의 량심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다. 진실한 사람만이 진실한 말을 할수 있듯이 진실한 작가만이 진실성이 담보된 작품을 쓸수 있다. 다시말하여 가식과 변심을 모르는 순결한 량심의 대변자만이 진실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오늘 우리 작가들이 지녀야 할 신념과 량심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그이만을 믿고 따르며 그이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오직 그이의 작가로 한생을 살겠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여야 하며 가장 순결하고 고결한 도덕의리적인 진정을 가지고 당과 수령의 뜻을 받들어 나가겠다는 리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심장에서부터 우리나라오는 진정한 의리와 순정을 가지고 작품을 써야 한다. 의무감에 못이겨 창작을 하는 작가는 진실한 작품을 쓸수 없으며 그런 작가는 당의 작가라고 말할수 없다.

아직 일부 작품들이 진실성이 없고 사상을 개념적으로 로출시켜 생경해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독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고있는것은 작가가 우리 당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창작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작가의 창작적량심은 자기 작품을 시대와 인민앞에서 끝까지 책임지려는 립장과 태도에서 나타나야 한다. 작가는 자기가 창작하는 작품이 인민에게 미칠 영향을 깊이 생각할줄 알아야 한다. 작가가 진실하지 못한 작품을 써내면 인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작가는 문학작품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문제가 단순히 그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는 문제인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량심문제와 관련되어있으며 나아가서 대중을 교양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진실로 당과 수령의 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작가자신이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녀야 한다.

작품은 작가의 사상의식의 반영이다.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닌 작가만이 혁명적수령관이 철저히 구현된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심장을 한없이 격동시키고

있는 리인모동지의 시가들이 것처럼 비할바없는 감화력을 가지는것은 바로 그가 지닌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에 의하여 담보되는것이다. 그 시가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장군님의 품은 온 겨레와 인민, 모든 전사들을 안아키워주는 참된 삶의 요람이라는 확신, 그이께서 이끄시는 길에 혁명의 밝은 미래가 있고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이 있다는 신심이 맥박쳐흐르고있다. 온몸과 마음속에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짙 차넘치고있었기에 그는 이 세상 그 어느 혁명가도 아직 지녀본적이 없는 신념과 의지의 화신이 되어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는 그런 현시와 가사를 창작할수 있었던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그 누가 위해주거나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살기어린 남쪽의 독감방에서 장장수십년을 홀로 있으면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된 자각과 지조, 인간량심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빛내인 리인모동지처럼 인류가 맞이한 절세의 위인을 하늘처럼 우러르며 그이를 따라 나아가는 길에서 부닥치는 온갖 천신만고를 다 이겨낼 비상한 각오와 투지,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아무리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오고 단두대에 올라서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작품은 내가 우리의 장군님과 로동당시대를 노래하여 쓴 작품이라고 온 세상을 향해 굳이높이 말할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단두대에서도 혁명의 량심을 끝까지 지켜낸 항일혁명투사 마동회동지처럼, 두눈을 일제놈들에게 빼앗기고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혁명의 최후승리가 보인다고 높이 웨친 최희숙동지처럼 작품 한편, 시 한편을 써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을 받드는 혁명적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창작하여야 한다.

작가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로동당시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열렬히 옹호하고 위대한 현실을 심장으로 공감하여야 한다.

순결한 량심을 가지고 현실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작가만이 우리 수령, 우리 당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우리 사회주의를 지키는 참다운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위대하고 거창한 사변들로 충만되어있는가. 전당, 전민, 전군이 혼연일체되어 이 땅우에는 실로 신념과 의지의 대화가 세차게 굽이치고있다. 일심단결하여 무적의 기세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혁명대오는 이 땅우에 얼마나 크게 늘어나고있는가.

얼마전 조선인민경비대의 용감한 두 병사가 적구에 억류된 처지에서 온갖 협박과 끈질긴 회유를 박차고 놈들과 도고하게 맞서 싸워이겨 세상에 또다시 큰 파문을 일으킨 사실만을 상기해보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적 신념과 의지가 아니였다더라면 20대에 갓 들어선 그 애젊은 병사들이 어떻게 원수들을 전률케 하고 승리자가 되어 사회주의품에 돌아올수 있었겠는가.

참으로 령도와 인구수로 보아 크지 않고 남달리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 처하여있으면서도 우리 나라가 이처럼 강대하고 존엄있게 위력을 떨치는 이 경이로운 현실, 온 세계를 경탄시키는 위대한 현실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다. 이 현실, 이 생활을 똑바로 체험하고 진정으로 공감할 때 우리 작가들은 당과 수령을 문학으로 옹호하고 사회주의를 문학으로 고수하는 혁명가가 될것이며 신념과 량심의 대변자로 될수 있을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탁상문학, 취재문학을 하는 현상을 없애고 생활을 진실하게 체험하여야 한다.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작품을 쓰면 우리의 위대한 현실의 숨결과 맥박이 구현될수 없으며 형상이 실지 생활과 맞을수 없다.

현실에 잘 나가지 않고 기껏하여 유람식으로 필요한 자료나 취재하는것으로 현실체험을 대치하고 있는 작가는 도식적이고 류형적이며 구태의연한 작품을 고안해낸다. 우리 독자들에게 있으나마나한 작품을 써내는것은 작가로서 수치이며 죄악이다. 현실을 외면하고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는 작가가 아니며 그러한 작가가 쓴 작품은 아무런 의의도 없다.

모든 작가들은 현시기 우리 당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고 긴장하고 전투적으로 생활하고 혁명적으로 창작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하여 창작에 구현함으로써 영원히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어야 할것이다.

그 이름-강철의 령장

김만영

밝아오는 새날의 노을빛에
풀잎의 이슬이 반짝이는 초소의 아침
간밤에도 조국의 안녕을 지켰다고
우러러 경건히 보고를 드리며
내 마음속으로 조용히 부르는 그 이름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천리방선 봉우리 봉우리들이
머리 쳐들며 받아와주는듯
가슴에서 가슴으로
초소에서 초소으로
하늘땅 가득 메아리되어 울리나니

아 우리 병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
불러 다함이 없고
불러 용맹이 솟음치는 그 이름은
홀로 지새우는 잠복의 밤에도 함께 있어
마음 언제나 든든하여라

천하를 떨치는 그 음성으로
우리 혁명무력에 영광을 주신분
우리 인민군대를 주체의 당군
정의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통솔하시어
언제나 이기시는 백전백승의 사령관

그 이름은
백두설령을 넘어 장장 60여년
승리와 영광이 아로새겨진
신성한 군기와 함께 나아가고
병사들의 엄숙한 군인선서에서 울린다

그 이름은
압살의 검은 구름이 사납게 몰려와도
이 나라 푸른 하늘 한조각도 흐릴수 없음을
선언하며
오각별 우리의 매들이
강철의 날개를 펼치고 리륙하는 활주로에서 울리고
파도를 헤가르며 질주하는
함선의 갑판우에서 울리나니

인사를 받으시라
그 한손에

복잡다단한 세계를 거머쥐시고
꽃피는 봄
인민의 행복을 지켜가시는
력사의 수호자 절세의 장군

그이 아니시면 그 누가
우리 병사 한사람한사람을
일당백의 용사로 키우고
우리 혁명무력의 사단과 군단들을
일심단결된 무적의 함대로 꾸리어
사회주의수호의 성전에 내세울수 있으랴

인민을 사랑하시는 그만치
인민을 해치려는 원썬들에게는
번개같이 단호하시고
폭풍같이 무자비하신
천하제일명장 그이앞에
제국주의무리가 전물하여라

그렇다
경애하는 그이의 이름은
백두의 호걸
혁명의 퇴성
희세의 영웅
승리의 상징

우리의 운명과 조국의 미래
사회주의의 생사존망이 달려있는 이름
이 땅을 질식시키려 원썬들이 미친듯 날뛰어도
천둥우뢰처럼 그 이름이 울리는곳에선
래일도 아침은 예대로 밝고
꽃피는 봄은 찾아와
내 조국엔 승리의 노래 더 높이 울리리니

인사를 받으시라
경례를 받으시라
또하루 조국의 안녕을 지켜낸 이 아침
사회주의의 영원한 안전을 담보하는
조선혁명무력의 장엄한 사열을 받으시라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이시여!
강철의 령장 **김정일**원수이시여!

(1994. 4. 6)

우리 군대는 승리의 군대

박호범

어제도 승리
오늘도 승리
승리라는 이 말속에
우리 혁명무력이 걸어온
영광의 천만리가 있다

그대들이 위훈으로 수놓은
그 길은 조국청사에 찬란하고
그대들이 넘고 헤친 천만산발은
불멸의 기념비로 저리도 높이 솟아있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행군
오늘도 이어가는 그 행군
항일대전도 다 승리하고
조국해방전쟁도 다 승리하고
총포성없는 오늘의 전쟁도 다 이겨낸
이런 군대가 세상에 또 있다더나

원썩들이 침략으로 얼룩진 포신을 쳐들고
하늘로 바다로 땅으로 기여들 때마다
천하제일장군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안고
산악같이 일떠서
언제나 승리의 위훈떨친 우리 군대

사나운 원썩미제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세계의 면전에서
발광하는놈들의 기를 꺾어버리고
강철의 위력을 떨치는 우리 군대

그대들이 있기에 오, 그대들이 있기에
이 땅엔 봄마다 꽃이 피고
아침마다 거리엔 밝은 창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인간의 향기를 날리며
보람찬 일터로 간다

그대들이 있기에
언제나 높푸른 조국의 하늘엔
람홍색 공화국기가 거세차게 날리고
밝아오는 새 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진군은 이렇듯 우렁차다

5천년 우리 민족사우에
가장 자랑스러운 군대
우리 당이 강하니 군대가 강하고
군대가 강하니 조국도 강하다

사상으로 강하고
무장으로 강하고
군민일치로 역세인
일심단결로 불패인
그대들은 인민수호의 방패
사회주의를 지키는 불멸의 성벽

펄펄펄 군기를 날려라
우렁찬 행진곡을 울려라
승리는 영원히 그대들의것
영광도 영원히 그대들의것

온 나라가 위훈의 군기에 경례를 보낸다
온 나라가 승리의 군악에 발을 맞춘다
오, **김정일**장군의 군대여
그대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그대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1994. 4. 6)

기차는 정시로 간다

정기종

1

한손에 철도제모를 벗어든 차일문은 검둥개와 같이 철길을 따라 걷고있었다. 사냥개처럼 앞다리가 쪽 뻗고 털이 부엌부엌한 검둥개는 철길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갔다 하며 줄곧 무엇인가 쿵쿵 냄새를 맡으며 갔고 뒤에서는 차일문이 늑은이답게 약간 머리를 갸웃그린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쭙쭙새한 쭙냄새를 머금은 산바람이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날리었다. 철길양옆에 키높이 자란 꽃들이 흐느적이며 흰 꽃, 빨간 꽃 그리고 보라색 꽃송이들을 열심히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한번도 거기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자신이 정성들여 심고 가꾼것이건만 지금은 그 향기조차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골똘히 한가지만을 생각하고있었다. 인제는 자기가 늑고 쓸모없이 되어버렸다는 가슴을 예이는듯한 생각이었다.

오늘아침 철길대 대장이 그를 불러 인젠 철길원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가 쉬라고 한것이다.

《인제사 쉼 때도 지났지요. 아직까지 아바이를 그대로 일시킨다고 상부에서 되게 추궁하더구만요. 에에- 벌써 그렇게 했어야 하는건데... 참! 비행사로 복무하는 맏아들이 몇번 모셔가겠다고 왔댔다면 서요?!...》

철길대 대장은 차일문이 입을 열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는 서둘러대며 전화통을 끄당겨 로동지도원을 찾았다. 해당한 수속을 하게 하려는것이였다.

그 일을 상기하자 다시금 피줄이 툭툭 튀는듯했다. 그는 손을 들어 허연 관자노리쪽을 힘주어 문질렀다. 그러니 다 끝났단말이지, 40년이나 이 철길에서 일해왔는데 인젠 쓸모가 없단말이지... 비행사로 복무하는 맏아들한테 가라고?... 거기 군용비행장가까이 옮겨가서 로친레랑 같이 매일 하늘만 쳐다보며 살라고?!...

가슴은 텅 빈듯 허전해지고 자꾸만 입술이 말라들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있는 철도제모를 마구 주무럭거렸다.

어떻게 되어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이 가지 않는것도 아니다. 가까운 운봉역장의 말에 의하면 며칠전 관리국 부국장이 기차로 이곳을 지난 일이 있다고 한다. 그날 부국장은 여기 운봉-룡대역구간을 지나다가 철길가까운 끌어귀에서 시커먼 연기가 타래쳐오르는것을 발견하였다. 차안의

다른 손님들도 떠들썩했다. 산불이 났는가해서 창유리에 얼굴을 바짝 가져다대고 내다보았다.

관리국에 가서 즉시 부국장은 거기 오봉산기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보았다. 운봉역장이 전화를 받았다. 운봉역장은 그에게 산불이 아니라 이곳 철길대의 철길원 차일문이 자체로 만든 침목을 기름에 찌내기 위해 불을 피운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관리국 부국장은 한 철길원이 자체로 침목을 만든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듯했다.

침목을 만들려면 술한 통나무와 기름이 필요한데 그런건 어디서 나는가고 하더니 차일문이란 어떤 사람인가고 물었다. 운봉역장이 아는껏 말해주자 그는 나라에 보탬을 주려는 그 마음은 가상하나 하필이면 관리국적으로 제일 나이많은 철길원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가, 왜 아직 집에 들여보내지 않는가 하면서 애꿎은 운봉역장을 한바탕 조겨댔다는것이 다.

중년나이에 말이 좀 다사한 편인 운봉역장은 차일문에게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부국장동지도 괜찮지요. 나이든분을 아직 들여보내지 않는다고 소릴 치더라도 다 고마운 일이지요.》

그러자 차일문은 쓰겁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도 고맙지. 거기에 맞장구를 쳤으니...》

일은 바로 그렇게 시작된것이다. 자체로 침목을 만들어 나라의 부담을 덜려고 했었는데 그만 일손을 놓는 빌미가 될줄이야... 사실 그 하나하나의 침목감을 얻기 위해 걸음인들 얼마나 많이 걸었던가. 산림보호원과 토론하고 화목림지를 살살이 뒤졌다. 먼 채벌장에 가서 벌목공들과 같이 나무를 베고 끌어내리며 예비를 찾기도 했다. 관리국 부국장이 산불이 났나 해서 크게 놀랐다는 그 오봉산 기슭에는 벌써 술한 침목감들을 쌓아 말리고있다.

한쪽엔 기름가마까지 걸어놓았다. 한때 군대에서 쓰던 커다란 야전취사용가마이다. 언제인가 귀가 떨어진것을 농장축산반에서 물려쫓는데 약간 금이 갔다고 해서 거기서 또 파철로 수매시켜버렸던것이다. 차일문은 그것을 술한 파철과 바꿔왔다. 그리고는 오봉산기슭에서 부두막을 쌓고 군데군데 땀질을 한 그 쇠가마를 걸었다. 골개물이 소리쳐내리는 너럭바위밀엔 오두막까지 하나 지어놓았다.

철길소대에 갓 배치되어온 경호라는 녀석은 그것

을 그저 오두막이라고 할 대신 영어로 《블루하우스》(푸른 집)라고 불렀다. 말하자면 자기의 영어 수준과 익살을 뽐내본것이다.

차일문은 갑자기 그 경호가 보고싶어졌다. 처음 왔을 때엔 종일 우거지상을 하고있더니... 여기서 무슨 보람과 영예를 찾겠는가 하면서 《어쨌든 난 다른 기차를 타어야 했어요!》 하고 멧을 피워 말했었다. 말하자면 자기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는것이다.

정직하고 똑똑하나 무척 애도 먹이군하던 그가 이제 소식을 들으면 뭐라고 할지?...

별안간 차일문은 몸을 흠칫했다. 강파로운 비탈 저쪽에서 기적소리가 울린것이다. 운봉역엔 오후 3시 15분 그다음 통대역은 29분에 통과하는 기차이다.

차일문은 저 앞쪽 철길가운데서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검둥개를 소리쳐불렀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오던 모자를 머리에 썼다.

기차가 달려오고있다. 두줄기 레루가 움썰거리고 무엇인가 푹-푹-하는 소리가 앞질러온다. 이어 레루에 끌리는 마찰음이며 바람을 몰아오는 세찬 소음과 거센 진동이 질풍처럼 휩쓸어왔다.

이 철길로 제대배낭을 메고오던 때가 엇그제같은 데 벌써 인생은 참 멀리도 왔구나!...

그때 그는 갓 스물을 넘긴 젊은이였었다. 흰칠한 키에 어깨가 짝 바라진것이 그 어떤 일감이나 책임도 수월히 걸머질상싶었다. 물날은 군복앞가슴에서는 여러개의 훈장과 메달이 절그럭거렸다. 그것은 그가 세운 공적과 위훈을 무게있게 강조해주는것이였다.

그러나 그의 문건을 잔잔히 훑어보고있던 늙수그레한 로동과장은 돋보기너머로 그를 지시지시 훑쳐보던끝에 철길감시원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권고했었다. 어느 한 교차점에서 기차가 가고올 때마다 차단봉을 들었다내렸다 하면 되는 일이라고 언지시 귀뽀하기까지 했다.

차일문은 모욕감을 느꼈다. 커다란 주먹을 불끈 그러쥐고 엉거주춤 일어서면서 격한 심정을 기관총처럼 막 내쏘려고 했었다. 그 순간 분노한 그의 표정에 질겁한 로동과장이 손에 들고있던 종이장을 홀 밀어던지며 소리쳤다.

《여게 뭐라고 썼는지 알기나 하오? 그래도 저를 위해주느라 한건데...》

그것은 전상자병원도장이 찍힌 감정서였다. 많은 의사들이 급히 제멋대로 막 수표를 써갈진 종이장이다. 차일문은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어 읽어보았다. 그리고는 세차게 입술을 깨물었다. 비로소 그는 현대의학이 자기의 로동능력을 얼마나 값싸게 헐값으로 매겨놓았는지를 알게되였다. 그

를 불구자나 다름없이 취급한것이다. 대번에 차일문의 분노는 실망과 번뇌로 바뀌였다. 그는 아무 말없이 그자리에 도로 주저앉아버렸다.

그후 차일문은 철길원으로 배치되였다. 어느 한 구간을 맡겨주면서 철길을 관리하고 락석감시나하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그 일도 험치 않았다. 그는 자기가 맡은 구간을 돌아보는 경우에조차 자주 걸음을 멈추고 식은땀을 흘리며 한쪽 허벅지를 오래도록 주물러야만 했다.

그래도 그는 아무말없이 매일 어김없이 이 길을 걸었다. 전후복구건설로 온 나라가 들끓던 그때 신문과 방송에서는 자주 옛 전우들의 이름이 소개되곤했었다. 천리마운동의 불길이 타번지던 그때부터는 더욱더 그러했다. 강선과 기양, 락원과 덕천... 많은 전우들이 온 나라가 다 아는 로력혁신자, 영웅으로 되였고 어떤 사람들은 큰 공장, 기업소를 책임진 일군으로 자랐다. 그러나 여전히 차일문은 허름한 병사용배낭을 메고 식은땀을 닦으며 이 철길을 걷고있었다. 매일 변함없이 머리를 수긋하고 별로 서둘지도 않고 천천히 걷고 또 걸었다. 그에겐 바쁜 일이 없었다. 서둘러 마중가야 할 기쁨도 별로 없었다. 의무와 량심이 떠미는 그 길을 힘겹게 꾸준히 걷고있을뿐이였다.

그러다가 별안간 모든것이 달라졌다. 20년전 어느 이른 봄날이였다. 저녁무렵, 아니 땅거미가 지기 시작한 어슬막이였었다.

그날도 차일문은 밤늦어서야 이 철길을 따라 돌아오고있었다. 언제나와 같이 허름한 병사용배낭을 등에 지고 한손엔 상호등을 들었었다.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며 거의 습관적으로 철길로반을 살피고있었다.

운봉역구내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는 무심결에 한곳에서 몇개의 레루못이 솟아오른것을 발견하였다. 오래전에 고였던 깔판이 삭아없어진것이였다.

그는 상호등을 내려놓고 어깨에 메고있던 배낭도 벗었다. 비록 허용한계를 벗어난것은 아니나 그래도 지나칠수 없었던것이다.

배낭에서 손때묻은 망치와 깔판으로 쓰려고 준비해둔 다이야조각들을 꺼내었다. 그쪽에 상호등을 돌리고 레루못을 뽐았다. 그밑에 깔판을 끼우자 자루가 짧은 대망치로 레루못을 때려박기 시작했다.

땡-땡! - 레루장을 울리는 망치질소리가 싸늘한 밤의 고요를 깨뜨리며 역구내에 울려퍼졌다. 그러자 저쪽 역사의 외등빛이 겨우 미칠가말가한 흠에서있던 사람이 다급히 부르짖었다.

《게 누구요?》- 목이 잠긴듯 가까스로 짜낸 억눌린 소리였다. 《그걸 그만두지 못하겠소?》

차일문은 어처구니가 없어 저게 웬 정신빠진 녀석일가 하고 생각했다.

《원 별사람 다 보겠군.》

또 때렸다. 땡-땡-땡!- 못대가리가 짓이겨질지경으로 한번 또 힘껏 때리려 했다. 그런데 어느새 달려왔는지 그 낯모를 사람이 그의 팔목을 잡았다.

《이보시오. 내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소?!》

《...》

차일문은 어리둥절했다. 철길원인 그가 제 할 일을 하고있는데 이 사람은 마치 폭탄뢰관이라도 때리는가 해서 텐겁을 하고있다. 그는 엉거주춤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마주선 사람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다음순간 그는 움찔했다. 그와 마주선 사람은 철도제복차림의 젊은 간부였었다.

《동무!》 그 사람이 말했다. 《어데서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구 이 소동이요?!...》

《저...레루못대가리가 솟아올랐기에...》

《철길원이요?》

《예.》

《참 한심들 하군! ... 그러니 동문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있겠소?!》

차일문은 여전히 영문을 알수 없어 입안소리만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어지간히 성이 갈았은 목소리로 《동문 땅바닥만 보구 다니오? 저 특별렬차도 못보았소?》 하더니 어둠에 잠긴 2번선쪽을 가리켰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도의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다가 쯤전에야 여기 오셨다는것, 일군들이 숙소를 마련해드리려 했지만 그이께서는 종시 그 정을 마다하시고 불편한 열차에서 그대로 쉬고계신다는것 등을 말해주었다. 권현이라는 틀진 이름을 가진 그 관리국처장도 그래서 여기 와있었던것이다.

차일문은 갑자기 후려맞은듯했다. 물고기모양으로 입을 썉 벌리고 2번선쪽을 두릿두릿 살펴보았다. 그제사야 멀지 않은곳에 서있는 특별렬차의 형태를 알아보았다. 렬차중간쯤 되는곳에서 파르스름한 불빛이 창가림을 통해 약하게 내비치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 외진 역에까지 오시다니!... 그런데 난 그런것도 모르고... 도대체 내 무슨 일을 저질렀담!... 그는 허둥거리며 무너지듯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벌려놓은것들을 손으로 어루쓸며 주섬주섬 걷어모으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지적인 등뒤의 어둠속에서 울려온 저력있는 음성에는 그는 두손이 굳어져버렸다.

《수고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가슴을 찢른 예감과 타는듯한 기대로 하여 그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분이시다. 그분께서 예까지 나오신게다!...)

차일문과 마주서있던 관리국처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사정을 말씀드렸다. 차일문은 군대식으로 몸

을 쭉 펴고 돌아섰다. 그 순간 그는 심장이 후두둑 뛰는것을 느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로 지척에 서계신것이였다. 벅찬 경련이 전류처럼 그의 온몸을 뒤흔들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별안간 목구멍이 짹 메이는듯했다. 두손을 모두 어잡고 무슨 말로 어떻게 인사를 올렸던지... 그이께서 웃으시며 손을 내미시였다.

《철길원동무입니다? 그런데 왜 하던 일을 마저하지 않습니까?》

《인젠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다...》 그이께서 다시 조용히 웃으시였다. 《나도 다 들었습니다. 처장동무가 야단을 치던 것말입니다. 아마 내가 휴식하는데 방해될가봐 그러는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 온성쪽에 갔을 때도 그곳 일군들이 내가 쉬는 역구내를 오가는 차들이 일체 기적을 울리지 못하게 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해준 일이 있습니다. 뭇때문에 그러했습니까. 괜한 생각입니다. 나는 원래 정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쥐죽은듯 조용해야 사색이 잘된다는 말도 믿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시오. 새소리 하나 없는 숲이나 기계소리 없는 공장, 파도소리 없는 바다가에 서있다면 얼마나 적적하고 숨막히게 느껴지겠습니까...》

그이께서는 땅바닥에 놓았던 상호등으로 방금 차일문이 때려박은 레루못들을 살펴보시였다.

《철길원동무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니까?》

《예, 차일문입니다.》

《철길원을 하는지 몇해나 됩니까?》

《한 20년 돼웁니다.》

《20년이라... 그러니 전쟁이 끝난해부터이구만. 그런데 어떻게 철길원을 하게 됐습니까?》

《예, 제대되어 배치받은곳이...》

《전쟁때 부상당한 일때문은 아닙니까?》

《?!》

차일문은 놀랐다. 적기의 12.7밀리기총탄에 중상을 당하고 전상자병원에서 오랜 치료끝에 감정제대되던 일이 떠올랐다. 감정서에 마구 휘갈겨 쓴 의사들의 수표... 그의 로동능력에 대하여 함부로 단정해버린 그 랭담한 글줄들을 다시 보는듯했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떻게 그일까지 다 아실가?...

차일문이 머뭇거리며 미처 대답을 울리지 못하자 다시 그이께서 말씀하시였다.

《벌써 첫눈에 한쪽 다리를 심하게 끄는걸 보았습니다. 총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심하게 다친 모양인데...》

《아니, 일없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젠 다

나왔습니다.》

《음-》

그이께서는 잠시 차일문을 눈여겨보시다가 다정히 그의 한쪽 팔을 잡으시었다.

《마침 잘 만났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래된 철길의 로반상대며 철길보수와 관련한 문제를 의논하려 했었는데... 처장동무랑 같이 잡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먼저 상호등을 드시었다. 그리고 차일문의 팔을 잡고 다정히 이끄시었다. 차일문이 몸둘바를 몰라하자 한결 더 힘주어 잡으시었다.

그이께서 비쳐주시는 상호등의 크고 둥근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며 앞서갔다.

차일문은 마치 구름속을 떠가는듯했다. 자기의 발이 땅에 닿는지, 떠가는지 미처 의식하지 못한채 꿈결에서처럼 열차에까지 올랐다.

열차칸은 조용했다. 탁상등의 은은한 불빛이 그이께서 보시던 책과 서류들이며 연두색문양이 돋은 소파주위를 포근히 감싸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차일문을 소파에로 이끄시었다. 그리고나서 허물없이 그와 무릎을 마주하시고 수송통과능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의논하시었다. 권현처장보다도 한 철길원에 불과한 차일문에게 더 많이 묻곤하시었다. 나중엔 그의 가정형편이며 전쟁때 어데서 어떤 전투들에 참가했는가 하는것까지 알아보시었다.

전쟁때 공병분대장으로서 락동강에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그러니 전쟁때엔 전선길을 열며 싸웠고 오늘은 또 나라의 동맥을 지켜가고있단 말이지요. 좋은 일입니다. 어제든 오늘도 공병전사의 자세로 살며 일하고있으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차일문은 무엇인가 자기의 가슴을 불같이 지저라는것을 느꼈다.

그이께서 그토록 과분한 치하를 주시니 눈곱이 저려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하여 그는 말씀드렸다. 처음 배치받던 때 일이며 자기 하는 일에 정을 불이려고 여러해 애써오던 등을 죄다 솔직히 말씀드렸다.

그러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조용히 웃으시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창 피가 끓던 시절이 아닙니까. 게다가 전선에서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헤쳐왔겠다, 육망인들 얼마나 컸겠습니까. 일이 성차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겨지지도 않았을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시다. 정작 일에 달라붙고보니 철길원동무의 생각도 달라졌으리라고말입니다. 아마 그때부턴 화선병사의 눈으로 모든것을 보았을것입니다. 이 철길을 지켜간다는것이 결코 험치 않으며

가장 성실한 마음과 땀을 바쳐야 한다는것을 알았을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덧 차일문은 목이 잠겨버렸다. 그는 흥분으로 검붉어진 볼을 후둘후둘 떨기만 했다. 무슨 말씀인들 올려야 했으니 북받치는 걱정애 입을 열수가 없었다.

그이께서 또 말씀을 이으시었다.

《사실 철길원이란 별로 남의 눈에 띄지도 않고 소리치며 보란듯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말없이, 사시장철 변함없이 실농군이 눈발을 다루듯 꾸준히 일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우리의 열차들이 정시무사고로 기적소리 높이 달릴 때마다 거기에 바쳐진 숨은 애국자들의 말없는 수고를 생각하곤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마침내 차일문은 울음섞인 목소리로 겨우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차일문의 어깨에 배낭도 메워주시면서 거듭 당부하시었다.

《언제든 나라의 동맥을 지켜서있다는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시도 멎음없이 피가 뛰는 대동맥입니다. 이 중요한 초소에서 계속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로부터 차일문은 이 철길의 참된 주인이 되고 초병이 되었다. 어제든 해왔고 오늘도 계속하는 일이지만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매일 수십리길을 어김없이 오가며 돌을 굴리고 물도랑을 파냈다. 비바람 세차던 어느날엔 철길옆의 아름드리 황철나무가 기울어지는것을 발견하고 한달음에 달려가 어깨를 들이밀었다. 산곶이에서 북행열차가 달려오고있었던것이다.

창살같은 비둘기가운데 번개불이 번쩍이군했다. 아름드리 거목은 그의 어깨죽지를 사정없이 짓누르고 뼈마디에서는 우적우적하는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다. 기차가 귀전을 스치며 지날 때까지 버텨내고는 그만 그 나무에 깔려 쓰러지고말았다. 사람들이 실신한 그를 발견하고 병원에 실어간것은 다음날 아침때였다.

그후 그는 철길주변의 늙은 나무들을 모두 새나무로 바꾸어 심었다.

그는 자기의 한생을 이 철길과 떼어놓고 생각한적이 없었다. 침묵을 자체로 만들것을 결심하고 경호를 구슬려 어느 한 채벌장으로 갔을 때의 일이다. 벌목공들을 도와 나무를 끌어내리다가 몇해전에 심은 분비나무의 우듬지가 상한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물기있는 흙을 가져다 상한 가지에 대고 천으로 꾹꾹 짜냈다.

그때 그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있던 경호가 입을 열을 비쭉거렸다.

《아예 차일문이라고 나무임자 꽤쪽까지 달아놓지요?》

《그건 왜?》

《그래야 한 50년후에 가서 이 나무를 찾아 또 침목을 만들게 아닙니까!》

그가 하는 수작인즉 명백했다. 신세도 못질 일을 무엇때문에 그리도 정성이나는 의미였다.

차일문은 하던 일을 끝내고 허리를 쭉 폈다. 그리고는 처음 경호에게 노기를 띤 음성으로 이렇게 오금을 박았다.

《자넨 진짜 〈다른 기차〉를 탓어야 할 사람인가 아니면 괜히 엇드레질을 해보는젠가? 50년이 아니라 백년후에라도 나라에 도움만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야지. 엉?!》

이렇게 걸어온 한생이다. 이 철길을 따라 가고오고... 이 철길을 따라 땀땀 받아들이 군대로 나가더니 이어 둘째, 셋째 역시 군복을 입고 떠나갔고 얼마전엔 막내딸이 렬차차장이 되었다. 다들 떠나가고 홀로 남더니 인제는 그마저 이 철길을 떠나야만 한다!...

그는 자기를 향해 마주 달려오던 기차가 언제 그를 지나 멀리 가버렸는지도 알지 못했다. 어느덧 페루를 타고 전해오던 차바퀴의 울림도 아득히 멀어져갔다.

다시 조용해졌다...

2

앞서가던 검둥개가 달려오더니 무엇때문인지 그의 바지가랭이를 물어당기면서 궁궁거렸다. 차일문이 머리를 들지 검둥개는 경충경충 앞으로 뛰어갔다.

비로소 차일문은 그까닭을 알았다. 멀지 않은 산자드락에 두줄기 철길이 휘우듬히 돌아간 거기 철다리목에 후줄군해 서있는 경호를 발견한것이다. 어느새 거기로 뛰어간 검둥개가 꼬리를 흔들며 땀 돌아치건만 그는 성가신듯 발로 밀어던질뿐이었다.

차일문은 마음이 불안해졌다. 무슨 일인가?...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생겼는가. 뿔뿔머리 사나운 저 녀석이 또 누구와 다툰건 아닐까. 아니면 혹시?!...

경호가 지금쯤 여기에 나와있는 까닭을 아는것은 차일문뿐이다. 이제 얼마후 북으로 들어가는 기차에 그가 반한 처녀차장이 타고있는것이다.

경호가 처음 철길소대에 배치되어 일하던 어느날이었다. 그때 저 철다리목에서 로반작업을 하는데 그 처녀차장이 탄 기차가 지나갔었다. 옷통을 벗어 불이고 다들 한바탕 땀을 흘리고있던 때였다. 경호는 무심히 철길옆에 비켜서서 수건으로 목을 훔치고있었다. 그런데 맨나중의 차장차승강대에 나와선 처녀와 눈길이 마주쳤다. 보통키에 살결이 희고 목이 상큼한 처녀였다. 그 처녀가 손을 약간 쳐들며

상긋 웃어주었다. 분명 그를 향해, 바로 경호를 향해 웃음을 보낸듯했다.

경호는 놀랐다. 어리둥절해서 사방을 둘러보기까지 했다. 그는 얼마후에야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기우뚱거렸다. 정말 누구한테 웃어준걸까? 손을 쳐든 건 또 뭐고?... 그는 몰었다.

《이자 그 처녀가 왜 우리한테 웃어보였을가요?》

그러자 차일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같은 철도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더러 수고한다고 하는거겠지.》

《그렇가요?... 현대 저... 아바이한테 손까지 쳐들어주던데요?!...》

《뭐 나한테 그랬겠나!》 차일문은 소리내어 웃었다. 《미남자인 경호한테라문 또 몰라두...》

경호는 여전히 뜨아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는 매일 그 기차시간을 기다렸다. 그 시간이 오면 우정이라도 일감을 만들어 철길에 나와 서있곤했다. 인제는 경호쪽에서 먼저 손을 쳐들었고 목이 상큼한 처녀차장은 고개를 까딱이며 소리없이 웃어주곤했다.

경호는 달라졌다. 매일같이 철도제복을 깨끗이 손질해 입었고 걸어치웠던 영어공부도 다시 시작했다.

그런데 한번은 무언의 이 상봉을 어긴 일이 있다. 얼마전의 일이었다. 경호는 차일문을 도와 기름에 찌낸 침목을 나르고있었다. 그러다보니 온통 시꺼먼 기름매닥질을 하게 되었다.

그날 차일문은 뒤늦게야 경호가 기다리는 기차시간이 다 되었다는것을 깨달았다. 너무 늦었다. 기름 얼룩은 쉬이 지워지지도 않는다. 경호는 철길로 나가자 않았다.

《그래도 나가볼걸 그랬어...》 하고 차일문이 말했다. 《그게 뭐 어드래서... 일하는 사람이 그렇지. 그런 모양을 하고 손을 흔들어주면 얼마나 재미나서 웃어대겠나!》 《뭐 비웃지는 않구요?》

《비웃다니. 일 잘하는 총각을 왜 비웃어. 오히려 넥타이를 매고 때없이 구두코를 반짝거리는것보다는 그런걸 더 좋아해!》

《흥! 아바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구말구. 알아두 잘 알지!》

그날 차일문은 더이상 말하지 않았다. 일을 끝내고 돌아갈 때에조차 그들은 묵묵히 철길 량옆을 따라 걷기만했다. 늙은이는 사색하고 젊은이는 꿈을 꾸며...

그런데 오늘 어깨가 축 처진 경호의 저끝은 심상치 않다.

차일문은 급히 걸어갔다. 그가 코앞에까지 다가서도록 경호는 얼굴이 해쓱해서 입귀를 바르르 떨고있었다. 입언저리에 다문다문 널린 주근깨들까지

막 살아움직이는듯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나?》

《아바이! 인젠 일을 그만둔다면서요?》

차일문은 흠칫했다. 잠시 말을 못하고 그냥 눈시울만 실룩거렸다.

《그러니 사실이였군요. 그런걸 난!...》 경호는 세차게 입술을 깨물었다. 《아바이! 그렇게 쉬어버릴걸 일판은 왜 벌려놔됐어요. 폐유를 얻어온다, 송탄유를 만든다 하면서 그렇게 애쓰더니... 산판에서 침목감을 끌어내릴 때... 아바인 말했지요. 우리 철길원들은 비록 소리치며 보란듯이 일하진 않아도 나라의 동맥을 지키는 초병들이라구...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구요. 그러던 아바이가 오늘은 왜 갑자기... 아바이가 힘에 부치면 우리들이 있지 않나요, 예?!...》

차일문은 무엇인가 뜨거운것이 가슴속으로 흘러드는것을 느꼈다. 고마웠다. 젊은너석이... 하름송아지마냥 그저 뽀뽀기나 하고 골받기질이나 하는줄 알았더니... 그는 잠자코 기다렸다. 어떤 험한 소리든 다 고맙게 들을것만 같았다.

《섭섭해요. 아바이!... 그렇게 힘들게 구해놓은 침목감들까지 다 넘겨주고... 어쩔 그럴수 있어요?...》

가늘게 찌프러지던 차일문의 두눈에서 대뜸 반디불같은것이 편뜩이었다.

《넘겨주다니?》

《그럼 그걸 모르구있어요?... 그 침목감들말이에요. 다 실어갔어요. 운봉역장이 우에 제기해서 허락을 받았단데...》

《우에?... 누구한테?!...》

《관리국 부국장한테라나요.》

《?!...》

차일문은 별안간 명치끝이 쿵 쑤시고 목에 경련이 이는듯했다. 침목감을 실어가다니, 과연 어쩌면 그럴수 있는가? 나이들어 늙어서 철길대에선 내보낸다손치구 저 혼자 하는 일이야 왜 막는단말인가?...

그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그런즉 인젠 그 일마저 못하게 되는가?... 그러지 않아도 좋은 목재를 쌓아놓고있다고 탐내던 운봉역장이다. 자기네 화물창고증축에 좀 돌려쓰자고 몇번 찾아왔었다. 온갖 귀맛좋은 소리를 다 늘어놓더니... 보나마나 그 운봉역장이 사정도 잘 모르는 관리국 부국장에게 앞질러 말해둔 모양이다.

넌장, 일이 이렇게 되다니... 그는 무엇이든 생각해내려 했으나 생각하는것조차 힘들었다. 이마우에 구슬땀만 바질바질 내뿜을뿐이었다. 그러다가 별안간 두주먹을 부르짖고 달려가기 시작했다.

검둥개가 신바람나서 그를 앞질러갔다. 경호 역

시 뒤따르며 무어라고 소리쳤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구배진 길만 돌면 골어귀의 너럭바위기슭에 더미더미 쌓아올린 침목감들을 볼수 있다. 그리도 힘들게 구해온것들을 아무러면 다 실어갔을가?...조금만 돌려쓰자고 하더랬는데...

침목감들은 없었다. 한대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실어갔다. 골개물소리만 번함없을뿐... 품들여 지은 오두막도 별로 쓸쓸해보였다. 경호의 《불루하우스》... 골어귀의 그 시적인 작은 집이 누렇게 변해버린것도 여적 모르고있었다...

차일문은 야전가마를 걸어놓은 부뚜막아궁이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후들후들 떨리는 손에 담배를 쥐고 아궁이안에서 식어가는 재무지를 헤집었다. 바람이 불면서 재속의 불티들이 하나둘 짹-짹-타오르고는 자취없이 스러져버리곤했다. 그는 가파스로 담배불을 붙여물고 빼금빼금 힘주어 빨기 시작했다.

경호가 다가왔다.

《아바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좀더 뽀뽀할 부려야 하는건데... 그렇지만 아바이 보라요! 이게 다 우리 하는 일을 허술히 보는게 아니구 뭔가요, 예?》 세찬 흥분에 그의 목소리는 갈려버렸다. 《그래도 아바인 밤낮 나만 욕했지요. 들뜬 너석이라느니, 비닐풍선같다느니 하면서!...》 경호는 두손을 맞잡고 손가락마디를 우드득 꺾더니 핵 몸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다. 차일문이 소리쳤다.

《어델 가?》

《관리국에요! ...가서 부국장동질 만나겠어요. 한바탕 해봐야지...뭐 못할줄 알구!...》

《가만, 가만있어!》

차일문은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어두워졌던 그의 두눈에 희미한 광채가 얼른거렸다. 그는 버릇처럼 허연 관자노리쪽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그래. 그 말이 옳다, 찾아가 들이대야지. 침목 만드는 일이야 왜 그만둔단 말인가, 그 사람들도 사정을 알면 리해하겠지!...

기적소리가 울렸다. 짐을 만재한 화물렬차가 북으로 달리고있다. 매일같이 경호가 기다리던 기차. 현대 오늘 저너석은 두번째로 마중나가지 못했다.

(그애가 섭섭해하겠군...)

그는 절반도 채 타지 않은 담배를 신발뒤축에 비벼끄고 시계를 보았다. 가까운 운봉역에 미치는 유일한 남행렬차는 이제 30분후에 있다.

서둘러야 했다. 그 차를 놓치면 장밤 애꿎은 담배와 씨름하며 속절없이 속을 태워야 한다.

《경호, 관리국엔 내가 가지. 그게 더 나을거야. 그대신 자넨 소대장에게 내가 여사여사해서 국에 갔다고 말해주게.》

그의 곳곳한 표정을 살피며 경호는 머리만 끄덕이었다.

차일문은 곧장 철길로 달리기 시작했다.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다리를 힘겹게 놀리며 걸음마다 헐썩헐썩 토막숨을 내뿜었다. 결국 모진 신고끝에 늦지 않고 역에 이르렀다. 이윽고 열차에 올랐을때 그의 몸은 온통 말에 젖어있었다. 오래전부터 잘 아는 려객전무가 그를 보고 입을 딱 벌렸다. 그는 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데로 그렇게 급히 가는가고 물었다.

《관리국에》

차일문의 대답이었다.

《그-래-요?… 그런걸 난 무슨 사고라도 난줄알구…》

려객전무는 차일문이 후들거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는것을 보자 제격 라이타를 켜주었다.

《참 장림철길공사장에 나가있던 관리국간부들도 아침차로 급히 불리워가던데… 아바이도 그래서 가는건 아니예요? 국에서 무슨 중요한 회의가 있는가부지요?》

차일문은 별다른 의미없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가 무엇을 물었는지조차 잘 알지 못했다. 한손으로는 밤에 젖은 수건으로 목덜미를 훔치고 다른손으로는 담배를 입에 가져다 빼금빼금 빨면서 줄곧 한가지 생각만했다. 이제 가면 무슨 말부터 할가, 어떻게 말해야 그들을 리해시킬수 있을가 하는 그것이였다. 그는 지금 자기가 가는 그곳에서 얼마나 벅찬 사변이 그를 기다리고있는지 알지 못했고 또 알수도 없었다.

3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모시고 진행된 도안의 교통운수부문 일군들의 협의회가 끝난것은 저녁무렵이었다. 아침부터 도안의 당 및 여러 경제부문사업을 지도하신 그이시였다. 일정에 없던 두차례의 회의까지 필한 뛰어서 일군들은 한시바삐 그이를 숙소로 안내하려고 서둘렀다. 이제 두시간후에는 또 기차로 멀고먼 평양에까지 가야 한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라틴미주의 한 나라 당대표단을 출발에 앞서 만나주시기로 일정에 짜져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여전히 많은 일군들에게 둘러싸여계셨다. 복도를 걸어가시며 문건을 보아주시고 즉석에서 해당한 결론도 주시였다. 가끔 복도벽에 걸려있는 중량화차설계도며 구간자동전화선택호출장치도 그리고 무슨 전경도요 전망도요 하는 그림판들 앞에서 걸음을 멈추실때도 있었다. 일욕심이 많은 이곳 일군들은 어떻게 해서나 그이께 더 많이 보여드리고 더 많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이렇듯 걸음걸음 눈에 띄게 판을 걸고 창안품을 진렬해놓고있는것이였다.

그이께서 현관문을 나서시였을 때는 벌써 먼 산봉우리너머로 해가 기울고있었다. 불타는 석양이 유리창에서 불길처럼 번져가며 어룡거렸다. 그 시뻔건 반사광을 배경으로 계단을 내리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한순간 걸음을 멈추시였다. 철도제복을 입은 한사람이 청사정문으로 들어서려다가 주춤거리는것을 띠어보신때문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뒤따르는 일군들에게 그가 누군가고 물으시였다. 한쪽 다리를 무겁게 끄는 그의 류다른 걸음씨는 물론 주름많은 그 얼굴모습이 눈에 익다는 느낌을 받으신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들 서로 마주보기만 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정문쪽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채 기억의 갈피를 재빨리 번지시였다. 다음순간 가볍게 미소를 그리시였다.

《그를 불러주시오.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덧 20년세월이 흘러갔건만 그이께서는 이곳 북방의 한 산간역에서 잠시 만났던 한 철길원의 이름까지 끝내 상기해내시였다.

(그래 차일문이라고 했었지. 전쟁때 상한 다리를 무겁게 끄는 사람… 아직도 철길원으로 일하고있는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부르심을 받은 차일문은 모자를 벗어든채 황황히 달려오더니 계단아래에서 못박힌듯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감격의 눈물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마디 굵은 손가락들은 속절없이 철도제모만 주무럭거렸다.

《반갑습니다.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눈굽이 쿵 쏘는듯했다. 그처럼 많은 세월이 흘러간 오늘까지 자기를 잊지 않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격동되었던것이다. 그는 그이께서 따듯이 손잡아주실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검붉어진 두볼을 후들후들 떨기만 했다.

《자, 저기 가서 좀 앉읍시다.》 그이께서는 그를 정원못가의 장의자쪽으로 이끄시였다. 《인젠 환갑도 지났겠는데 아직도 철길원을 합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하고 그는 또한번 목구멍에 그득 차오르는것을 삼켰다. 《다들 자꾸 쉬라고 하는걸 우기고 일해왔는데 인젠 더이상 버틸것 같지 못…》

그 끝맺지 못한 말의 여운에는 무엇인가 아프도록 가슴을 치는 울림이 있었다. 그이께서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였다. 하여 차일문이 일을 그만두게 된 사정을 아시게 되었다.

《그런즉 여기 관리국에 소속하러 왔습니까?》

그이께서 이렇게 물으시자 차일문은 손가락마디

를 툭툭 꺾으며 말을 떠듬거렸다.

《실은 저… 다른 일때문에 왔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 비록 철도제복은 벗은
다 해도 아직 오류이 성성한게 왜 그냥 놀고만있겠
습니까. 그래서… 침묵만드는 일만이라도 계속할수
있게…》

《침묵을 만든단 말입니까?》

《예.》

《침묵을 만든다!… 그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되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차일문은 잠시 두눈을
실룩거리더니 힘들게 시작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재작년 이맘때…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도
를 다녀가신 직후였습니다. 그날 철길을 순회하던
저는 제가 맡은 운봉선철길에서 수명이 다 된 침묵
몇정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만 가슴이 무너
져내리는것 같았습니다. 글썄 어버이수령님께서 오
가시는 철길에 그런 불비한 침묵을 그대로 깔고있
었으니… 제가 무슨 당원이며 철길원이겠습니까.
그날 얼마나 가슴이 조여들던지… 하지만 정작 몇
정의 침묵을 보내달라고 우에 제기하자고보니… 그
것도 선뜻 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산을 끼고사는
제가 몇정의 침묵때문에 우에 손을 내밀다니… 정
말 못할 일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체로 만들어
볼 생각이 들었는데… 정작 시작하고보니… 정 힘
든 일도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일판을 크게 벌렸는
데 그만… 일을 그만두라는 지시가 내리고 모아둔
침묵감도 다 실어가구…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침
묵 만드는 일만은 내놓고싶지 않아서 찾아오는 길
이였습니다.》

《침묵감까지 실어갔다?!…》

그이께서 좀 놀라신 어조로 이렇게 되이시자 차
일문은 몹시 당황해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사람들은 아마 저를
위해주느라고 그랬을것입니다. 관리국적으로 제일
나이많은 철길원에게 그런 험한 일까지 시킬수 없
어서… 그걸 못하게 하느라고 그랬을것입니다. 하
지만 그 마음은 고마우나 제가 일손을 놓으면 글
썄… 저에게 뭣이 남겠습니까!…》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먼길을 걸어온 그의
얼굴의 재빛 먼지며 커다란 주먹우의 채 지우지못
한 꺼먼 송탄유자국을 이윽도록 지켜보시었다.

늙은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것은 늙지 않는것이
다. 그러나 이 철길원에게서 가장 중요한것은 침묵
이다. 철길을 받드는 침묵- 거기에 그의 보람이 있
고 행복과 희망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의 거치른 손우에
자신의 손을 얹으시였다. 나이들어 늙긴 했어도 여

전히 크고 탄탄한 이 손!… 무엇이든 틀어쥐면 놓
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부 사람들은 한사코
이 손에서 일을 놓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한생 거머쥐고 온 보람과 긍지를, 기쁨과 희
망마저 놓게 하려고 한다. 왜? 어떤 리유로?… 진실
로 늙은 철길원을 위해주려는 의도에서인가?…

《그런즉 일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청을 드리려왔
단말입니까?》 그이께서 또 물으시였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선 일할수 있는 나이와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나이도 법으로 규정해놓고있습니
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 고마운 제도를 마련해
준 그 은덕에 보답하고자 어떻게 하든 제가 육신을
놀리는 한 다문 얼마만이라도 보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침묵 만드는 일이라도 계속할수 없을가 해
서… 왔습니다.》

《음-》 그이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알겠습니다. 내 이제 해당일꾼들에게 말해보겠
습니다. 꼭 도와드릴겁니다.》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아니 그 말은 내가 하려던것이였습니다. 나는
오늘 철길원동무에게서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한
생 변함없이 당을 받들어온 그 마음에 가슴이 뜨거
워집니다.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같은게 다 뭐라
고!…》

차일문은 솟구쳐오르는 걱정을 누를길 없어 마구
어깨를 떨더니 마침내 그이앞에 넋적 엎드리려고
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께서 그를 일으키시였다. 그러시고는 다시금
그의 거칠진 두손을 뜨겁게, 오래도록 힘껏 잡아주
시였다.

…

땅거미가 졌다. 먼 산봉우리를 불태우던 석양도
어느덧 갈앉아버리고 하늘에서는 술한 별들이 파랑
게 눈뜨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여전히 정원의 못가
를 거닐고계시였다. 규칙적인 발걸음소리, 잠시 멎
다가는 또 무겁게 이어지는 발걸음소리… 이윽고
그이께서는 장의자걸로 오시여 일꾼들을 둘러보
시였다.

그들가운데엔 중년나이에 벌써 대머리지기 시작
한 관리국 부국장 권현도 있었다. 그자신이 차일문
을 철길대에서 내보내게 하고 산불을 구실로 침묵
만드는 일까지 못하게 했었지만 정작 그가 나타났
을 때엔 누군지조차 알지 못했다. 어제날의 젊은 관
리국 처장… 오늘은 사람들에게 대한 기억조차 희미
해졌다.

마침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저 철길원동무는 전쟁때 공병이였습니다. 늘 지뢰를 해제하고 길을 닦고 다리를 놓으며 락동강까지 갔다왔습니다. 전후엔 전쟁때 상한 다리때문에 감정제대되자 이 철길로 와서 40여년동안이나 철길원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철길우의 침묵과 같이 한생을 다 바쳐 땅을 받들어 충성다해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니다. 그저 힘이 진할 때까지 철길우에서 일할 그 한생각뿐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군들은 그와 한번 마주앉아보지도 않고 나이를 구실로 떼버리려고 했습니다. 그의 한생의 공로같은것은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어는 그가 애써 모아놓은 침묵감까지 실어가면서 인젠 나이도 많은데 집에 들어가 편히 쉬거나 하시오! 하는 말로 저 로병의 진정을 모독하고 깨끗한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이의 음성엔 참을길 없는 분노의 울림이 있었다.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이 세상 재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저 훌륭한 당원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니!... 누가 그렇게 할 권리를 주었습니까!... 생각해보시오. 지금도 그가 바라는것이 무엇입니까. 한생의 공로에 대한 보수를 바랍니까, 표창을 바랍니까!?!》

어데선가 우릉 우르릉!- 하는 먼 우뢰소리가 구울러왔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백양나무우들지에서 마른 잎사귀들이 우수수-떨어져내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시 무겁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효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 판리국 부국장 권현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두눈에서 뚫고있던 눈물이 별빛에 부서져내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이제 침묵감들을 찾아 신고가서 그한테 잘못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힘껏 돕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머리를 끄떡이시였다. 이윽고 음성을 낮추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렇게 해주시오. 그러되 언제 어느때나 잊지마시오. 우리 일군들은 우리들 가까이에서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묵묵히 일하며 한생 변함없이 우리 땅을 받드는 저 로병들을 존경하고 아낄줄알아야 한다는것을!... 그게 중요합니다. 락동강까지 갔다온 저 로병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초석이라는것을 언제든 잊지 마시오!》

《꼭 명심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차시간이 거의 되였다. 끝내 그이께서는 숙소에

들러보지 못하고 역에 나가시지 않으면 안되였다.

분망하신 그이의 하루였다. 그러나 이 하루중에서 그이의 인상속에 가장 깊이 새겨진것은 이곳 철길대의 수수한 로병이였다. 그이께서 줄곧 그에 대하여, 그를 비롯한 수많은 로병들에 대하여 생각하고계시였다. 역에 이르실 때까지, 렬차가 기적소리를 울리고 드디어 차바퀴들이 굴러가기 시작할 때까지도 그들 로병들에게 보다 큰 무엇을 안겨주고 싶은 그 하나의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온 나라 인민들로 하여금 그들을 친근한 아버지, 어머니 혹은 이웃집아저씨, 정문수위, 갱장아바이, 로탄부, 로교수이기전에 먼저 조국을 지켜 피흘려 싸운 로병이라는것을 알게 하고싶으시였다. 그들모두에게 천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온 나라 인민의 존경과 사랑을 아름이 벌게 안겨주고싶으시였다...

4

해와 달들이 흘러갔다.

격동적인 사변들로 충만된 나날이였다. 실패와 좌절, 분노와 절망, 위협과 공갈... 세계도처에서 총포성이 울부짖고 피가 흘렀다. 사람들은 희망의 봄을 기다렸다. 지금 준전시상태에 들어간 사회주의 조선에서 그 승리의 봄, 희망의 봄이 도래하기를 기원했다. 하여 온 세계가 숨을 죽이고 싸우는 조선을 지켜보고있었다.

봄!... 창밖에서 새들의 지저귐소리가 들려왔다. 어느덧 새날, 새 아침이 또 시작되는 모양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가로 다가가시여 창가림을 걷으시였다. 그러자 온통 불그레한 햇빛의 홍수가 흘러들었다. 겨우 새벽에야 얼마간 눈을 붙여보신 그이께서는 가늘게 눈을 쪼프리시며 그 현란한 빛의 물결속에 서계시였다.

빛나는 아침... 키높이 자란 정원의 나무가지들에서 새들이 분주히 뛰놀고있다. 꽃지를 달씩거리며 서로 승벽내기로 청을 돌구어 재잘거리다가도 별안간 일시에 짹- 홀어져내리기도 한다.

즐거운 분주탕, 무심한 회월... 그러나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은 고도의 동원상태에 있다. 전군이 진지를 차지하고 명령을 기다리고있다. 비행기들은 활주로에, 어뢰정들은 돌격침로에 들어섰다.

로동자들은 불꽃튀는 생산투쟁에 들어갔다. 벌써 150만이 인민군대입대를 탄원했다. 전국의 청년들이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500만의 총폭탄이 될 피끓는 맹세를 다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멀리 대동로쪽에서 은은히 울려오는 취주악에 귀를 기울이시였다. 최근 수도의 많은 학교들에서 취주악대활동을 강화하고있다. 나 어린 학생소년들이 혁명적인 음악으로

사람들의 가슴속 더운피를 끓게 하고 수도의 전투적분위기를 고취하는것이다.

...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그 힘찬 선물이 흘러오고있는 대동로쪽으로 인민군기동순찰대의 자동차대렬이 줄지어가고있다. 앞에는 붉은기와 기관총을 건 지휘자가 달리고 그뒤로 역시 기관총을 걸고 철갑모를 눌러쓴 완전무장한 병사들을 태운 군용차들이 준전시하의 수도의 안전을 지켜 질주해가고있다.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인민은 믿는다 **김정일** 동지

...

취주악이 고조되고있다. 출근길에 올랐던 사람들이 기동순찰대의 병사들에게 손을 흔들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탁자로 돌아오시였다. 늘 시간이 부족되시는 그이시였다. 더더욱 오늘의 세계정세는 사회주의위업의 옹호고수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있다. 또 적들의 도발적인 《팀 스피리트93》 핵전쟁연습은 최고사령관이신 그이께서 잠시도 작전대를 떠실수 없게 하고있다.

그리고 이해는 전승40돐이 되는 해이다. 전승40돐을 맞으며 인민경제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거창한 사업도 그이의 시간과 사색과 정력을 요구하고있다.

그이께서는 의자에 앉으며 탁상등을 끄시였다. 그리고나서 탁자 한끝에 쌓인 서류들을 당기시였다. 서류들은 많았다. 한두매에 이르는 문건으로부터 수십매에 달하는 보고자료에 이르기까지 헤아릴수 없이 많은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이 그 서류들로 축도되어있다.

그이께서는 주의깊이 상세히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서류들을 읽으시였다. 가끔 활달한 필체로 결론과 지시를 써넣으시기도 하였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흘렀다.

부지중 그이께서는 가벼운 미소를 그리시였다. 서류에 씌여진 큰 글자들, 정성들여 박아썼으나 어떤 글자들은 획이 비뚤어진것도 있다.

편지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직접 올린 편지... 그토록 분망하신 그이시였지만 전국도처에서 보내오는 수많은 편지들을 다 읽으시며 회답까지 쓰시군한다.

오늘 받으신 편지는 북방의 한 철길대 로병이 올린것이였다.

《언제나 뵈고싶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는 영광스럽게도 두번씩이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만나뵈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운봉선철길대의 철길원 차일문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준전시상태의 요구에 맞게 전투적으로 살며 일하고있는 이때 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직접 아뢰고싶은 뜨거운 심정을 누를길 없어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소박한 편지에서 그는 먼저,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한 철길원으로서 올해에 들어와 벌써 200정의 침목을 자체로 만들어 낡은것과 교체한데 대하여 쓰고있었다.

침목 200정!... 그이께서는 그 수자밑에 진하게 줄을 그으시였다. 환갑을 넘긴 한 로병이 전문공장에서도 힘들게 생산하는 침목 200정을 자체로 만들어 철길에 깔아놓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는 앞으로 몇해 어간에 제가 맡은 구간의 침목을 자체로 만든 새것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제심장이 뛰고있는 한 어느 한 침목도 흔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

지금은 우리 철길소대 전원이 이 일에 달라붙었습니다. 철길근무가 끝나면 산림보호원들과 의논하고 밤을 새워가며 험한 산판을 누벼잡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허리치는 눈속을 헤쳐가며 통나무를 메어나르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불타는 락동강을 건느던 옛전우들을 생각하군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계속 주의깊이 편지를 읽으시였다.

가슴이 뜨거우시였다. 어제는 총을 잡고 전선에서 피흘려 싸웠고 오늘은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철길을 지켜 충성을 다하고있는 로병,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젊은이들까지 화선의 영웅전사들처럼 살며 싸우도록 이끌어주는 로병, 이런 마음들이 침목처럼 깔려있어 우리 혁명의 기관차는 오늘도 오직 곧바로, 정시로 거침없이 내달리고있는것이다. 세계의 동란에도 끄떡하지 않는다. 실패와 좌절을 겪은 나라들을 뒤엎은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혁명의 로반은 드림이 없다!...

그이께서는 탁자우의 맨끝 연록색전화기를 끄당겨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부부장동무입니까?... 로병대회준비사업 문건을 가지고 곧 와주시오.》

이윽고 얼굴이 길썹하고 키가 큰 일군이 방으로

들어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가 가져온 문건을 한장한장 번져보시었다. 특히 그이께서 주목하신것은 로병대회대표선발과 관련된 문제였다.

문건을 가져온 일군이 조용히 말씀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번에 전국적으로 공로가 많은 대상들을 료해하면서 아무래도 대표수를 6천명이상은 선발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 1만명 선발해야 할것 같습니다.》

《1만명?》

《예, 잘 짜고들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가볍게 머리를 저으시었다. 문건을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고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장악된 로병들이 얼마나 됩니까?》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에 달합니다.》

《그럼, 그 인원을 다 참가시킬수는 없겠습니까?》

《예?... 수십만명을 다 말입니까?》

《왜 놀랍니까?》

《저... 그건...》

다년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일해온 일군이였다. 그이를 모시고 일하면 할수록 나날이 그의 비범한 예지와 담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군하는 그였다. 그러나 매번 그는 그이께서 지니신 그 지략과 신념과 의지를 그리기엔 자기 심장의 맥동이 미처 따르지 못하는것을 사색과 분석에서, 힘과 열정과 빛과 색채가 부족되는것을 절감하군했었다.

오늘도 바로 그러한 느낌이었다. 그는 가슴을 울렁이며 다음말씀을 기다리고있었다.

《자, 이 편지를 보시오. 철길원을 하는 한 로병이 나에게 보내온것ियो.》

그는 편지를 받아들자 눈길보다 조금한 마음을 더 앞세우며 재빨리 읽어내려갔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지금 적들이 핵전쟁연습을 벌려놓고 우리를 놀래워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여 우리는 배심든합니다. 만약 놈들이 기어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제 비록 늙은 몸이긴 하지만 인민군대입대를 탄원한 우리 철길소대 젊은이들몹까지 다해 이 철길을 지키겠습니다. 이 몸 그대로 한정의 침묵이 되어서라도 이 철길을 떠받들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가 편지를 다 읽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보시오! 얼마나 훌륭합니까. 진정 이들이야말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떠받들려 살아야 할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를 쓴 그 철길원뿐아니라 많은 로병들이 지금도 당을 받들어 전화의 그날처럼 살며 일하고있습니다. 최근 신문과 방송으로 소개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로병분조, 로병세포, 로병지원대. 로병예술소조... 정말이지 한생을 다 바쳐 당을 받들어오는 그 마음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중 누구는 대표로 참가시키고 누구는 빼놓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들모두를 다참가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전국의 수십만 로병들이 다 참가하는 로병대회를 열어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일군의 얼굴은 흥분으로 하여 화끈 달아있었다. 그가 활개치듯 방에서 나가자 다른 일군이 들어와 총참모장과 작전국책임일군이 기다리고있다고 보고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계를 보시었다.

살같이 달리는 시간, 아낄수록 더 빨리 달리는 시간...

《알겠소.》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름없는 한 철길원이 올린 편지에 대하여 생각하고계시는것이였다...

×

봄!... 산골사람들은 골개물소리에서 먼저 봄의 목소리를 듣는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개울이 풀리기 시작하면 내가의 물황철나무들에도 밤색 싹이 봉긋봉긋 부풀어오른다.

차일문은 철길을 따라 바삐 걷고있었다. 이마우엔 송골송골 땀이 돌고있었다. 그래도 걸음을 늦추지 않는다. 벽찬 흥분에 눈앞이 자꾸 뿌여지고 눈이 바로 서지 않는다. 가슴이 들먹거린다. 열에 뜬것처럼 속이 타올라 견잡을 길이 없다. 방금 당위원회에 들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감사를 받아안았던것이다.

차일문은 자기의 주름깊은 눈귀로 진한 눈물이 흐르는것도 의식하지 못하고있었다.

아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름없는 한 로병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옥같이 빛내여주신 지도자동지께 삼가 허리굽혀 큰 절을 올리옵니다!...

감사를 받아안고 하염없이 흘리던 그 눈물이다. 달리는 더 표현할길 없는 충성된 마음이 그 눈물로

쫓아오르고있다....

굽인돌이를 돌아서자 경호의 《블루하우스》가 먼저 눈에 띄었다. 운봉선철길대의 전체 철길원들이 거기에 모여있었다. 그가 나타나자 철길소대원들이 와!-하고 달려왔다. 맨먼저 달려온 경호가 그에게 버들개지들이 망울져있는 커다란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아바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젊은이들이 달려들어 목마를 태웠다. 하늘이 돌고 땅이 돌았다. 검둥개까지 좋아날뛰며 그들 주위를 미친듯이 돌아쳤다.

기적소리가 울렸다. 기차가 달려오고있다.

아빠!... 경호가 기다리는 기차... 승강대에 나선 처녀차장이 그들을 향해 무어라 소리치고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 기차는 멀어져가고... 그 순간 학모양으로 접은 쪽지가 하늘에 떴다. 처녀가 던진 쪽지, 바람에 실려 날아오고있다.

경호가 먼저 달려갔다. 그러나 손살같이 달려간 검둥개가 앞질러 그것을 물어왔다. 그러자 경호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폈다. 마구 눈으로 훑듯이 편지를 읽고있다. 그리고는 놀랜 눈길로 차일문이며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아니, 이견...》 그는 눈을 디룩거리며 허쭈은 소리를 했다. 《아바이, 이 쪽지 아바이한테 쓴거지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차일문은 그가 내민 쪽지를 받았다. 서둘지 않고 안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여 귀에 걸고 느슨한 미소를 띄우며 쪽지를 읽었다.

《아버지,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오늘저녁 집에 들리겠어요.

딸 영숙.》

차일문은 소리없이 웃었다. 이처럼 행복한 인생이 또 어데 있으랴!... 너무도 아름다운 행복에 심장은 부풀다 못해 가슴속에 짝 차버린듯했다.

《오늘은 경호도 우리 집으로 가세. 마누라도 딸애도 무척 반가워할걸세. 자, 그럼 우리 철길소대전부를 정식 초청하네!》

철길소대원들이 일시에 환성을 질렀다. 그러자 그에 화답하듯 기적소리가 울려왔다. 어제와 오늘도 변함없이 두줄기 은빛 궤도를 따라 곧바로, 정시로만 달리는 기차의 기적소리였다.

차일문은 불현듯 눈곱이 뜨거워지는것을 느끼며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송고한 정신

파비아오 고디뉴

대지에 내리는 흰눈처럼
땅우에 흐르는 강물처럼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원수님
따사로운 사랑의 한품에
조국과 인민을 안으시고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주체의 사상리론을 체현하시교
문무를 겸비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원수님

그이는 삶의 매 순간순간을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무궁한 번영 위해 바치시네

강의한 의지와 담력을 지니시고
환상속의 목표가 아니라
현실속의 락원을 펼쳐주시네

사랑의 서사시를 창작하시듯
꿈도 현실로 꽃피주시교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시며
자신의 모든 지혜 인민을 위해 바치시네

인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시는데서
인민을 위한 매일매일의 사업을
완전무결하게 끝내시는데서
그이
자신의 최대의 기쁨을 찾으시네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해 창조하시교 건설하시며
인민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시는데서
최대의 만족을 느끼시네

(필자는 뽀르뚜갈시인임)

3 대위인이 내린 성산

백두산은 천하의 명산이요 동방의령봉이다.

해발 9천여척의 백두산마루에 올라서서 천풍에 옷깃을 날리며 천하를 굽어보면 남북 수만리에 흩어진 파도같은 높은 봉, 긴 령이 모조리 앞에 무릎 꿇고앉은듯하다.

예로부터 지령이 인걸을 낳는다 하였으니 산악, 이 이렇듯 웅장하매 여기서 룡봉을 가로채고 호랑이를 묶은 용감한 장수가 무더기로 날것이요 천하를 평정할 성인도 결코 한두분만이 내리지 않을것이란 말은 민족창생의 초시기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이다.

오늘에 와서 이것은 예언이나 전설이 아니라 현실로 되었은즉 바로 이 명산에 3대위인이 내려 만방에 위엄을 떨치고있으니 참으로 백두산은 성산이요 신령스러운 산임에 틀림이 없다.

구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백두산은 옛날부터 반드시 3대위인이 내릴 성지로 이미 마련되어있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들은 백두산을 《3》자라는 수자와 관련시켜 많이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참으로 신통하다.

룡왕담이라 신성시되어있는 천지의 물은 세 장강의 시원으로 되고있으니 그것은 압록강과 두만강, 송화강이다.

백두산마루에서 눈을 아래지경에 주어보면 첫눈에 안겨오는 세계의 호수가 있으니 그것은 삼지연이다. 계곡을 뛰어내리는 백두산폭포들가운데는 3단폭포인 사기문폭포도 있다.

패인 골짜기도 큰것으로 꼽으면 세계요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삼고있는 우리 나라 또한 3천리금수강산인데 그것을 둘러싼 바다도 동해, 서해, 남해이니 참으로 신통하지 않은가.

어떤 사람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백두산에서 탄생하신지 3년만에 나라가 해방된것까지 여기에 더 보충하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3》자를 입에 올리기 좋아하니 부러 그 수자와 관련시켜 생각하는데도 있겠지만 그것이 한둘이 아니니 신비한 생각이 절로 든다.

그러고보면 우리 민족이 《3》자와 깊은 인연이 있는 조종의 산에서 세분의 절세의 위인을 맞이한 것은 3대통운이라 아니할수 없다.

근년에 발굴된 항일무장투쟁시기 구호문헌에는 조선사상에 대통운은 3대위인을 모신것이라고 하면서 3대통운 만만세라고 한것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도 웅당하다.

우리 인민들은 백두산의 이런 기이한 지형지세를 3대위인과 관련시켜서 여러가지 흥미있는 전설들

을 창조하였다.

구술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가지 아류들이 많아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념원과 지향이 흐르고있다. 그가운데서 한가지 전설을 아래에 소개한다.

옛날 천계에 세 신선이 살고있었다.

그들은 덕이 높고 재조가 으뜸이요 풍수와 천문 지리에 능통하여 옥황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다. 그런데 무슨 연고인지 세 신선은 갑자기 땅세상에 내려가 살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근심걱정을 모르고 하는 일없이 춤과 노래를 즐기며 몇천년을 살아온 천계의 생활이 싫증난 모양이었다.

그들은 옥황의 노여움을 살가보아 이런 속마음을 감히 내비치지 못하고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그러나 속마음을 숨기는것은 하늘나라의 도의가 아니여서 어느날 한 신선이 옥황상제앞에 찾아가 자기의 생각을 아뢰었다.

《옥황마마, 상제님의 은총으로 지난 천년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온 신선으로서 감히 가슴속에 다른 생각을 품었사온즉 차마 입을 열어 그대로 말씀드리기 황송하나이다.》

《무슨 일이고? 어서 말할지어다.》

《옥황마마, 저는 천계를 떠나 하계에 내려가 살고싶은 마음을 품었사온즉 순간이나마 옥황님의 슬하를 떠나려고 하였으니 머리를 들수 없나이다.》

그러나 옥황상제는 조금도 섭섭해하는 기색이 없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수그리고있는 신선을 내려다보며 알릴듯말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대의 생각엔 조금도 잘못이 없노라. 어서 일어나 어지를 받으라. 오래동안 선계에서만 살아온 그대에게 하계에 내려가 살고싶은 생각이 든것은 별로 이상할것이 없은즉 그것은 자연의 순리이니라. 선경에서만 살다가 풍진 땅세상에서 살아보는것은 우리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알게하는 계기로 될것이요. 하계에 내려간다 하여 파인의 슬하에서 떠나버리는것이 아니니라. 속깊이 묻어둔 마음을 솔직히 아뢰임은 신선으로서 옳은 품행인즉 파인은 그대의 생각대로 어서 하계에 내려가 제가 살고장을 찾아보길 바라노라.》

신선은 옥황상제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복하여 머리를 더 깊이 숙이었다.

《성은에 보답하겠나이다.》

그리하여 신선은 구름을 타고 땅세상으로 내려갔다.

다음날 두번째 신선이 또 옥황상제앞에 배알하였

다.

《옥황마마, 상제님의 넓으신 도량으로 저를 굿어 살피주옵소서. 천계를 떠나 땅세상에 내려가 선경을 꾸리고싶은 마음 간절하와 부디 허락하여주시기 바라나이다.》

옥황상제는 두번째 신선의 청도 패히 승인하였다.

《하계를 선경으로 꾸리고저 하는 마음은 신선으로서 응당 지녀야 할 어진 마음이니라. 그러나 마음만 있고 행동이 따르지 못하면 그 뜻은 아무리 높어도 꿈에 불과한즉 어서 실행토록 하라.》

두번째 신선도 구름을 타고 하계로 내려갔다.

뒤이어 세번째 신선도 옥황상제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아뢰이고 뜻을 이루어 결국 천계에서 명망높은 세 신선이 모두 하계로 내려가게 되었다.

사랑하는 세 신선을 떠나보낸 옥황상제는 마음이 허전해짐을 어찌할수 없었다. 마치도 천궁이 텅 빈 것 같았다.

그러나 세 신선이 높은 뜻을 안고 떠났으니 그들에 대한 상제의 기대는 몹시 컸다.

옥황은 이제나저제나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궁금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살고자할 곳을 찾은 다음 천궁에 왔다 가겠하던 신선들은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다.

웬일일까?

옥황은 마음을 아니쓰려고 해도 자꾸만 갈마드는 생각을 좀처럼 털어버릴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한해가 썩 지난 이른봄이었다.

기다리고기다리던 한 신선이 천궁으로 돌아왔다.

처음으로 땅세상에 내려갔던 그 신선이였다.

《옥황마마, 저 하계에 제가 살고자할 곳을 찾았소니 명령하신 상제께서 한번 보아주옵소서.》

옥황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신선을 사랑스런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하였다.

《참으로 수고가 많았도다. 그런데 왜 그리 덤비는고? 하계에 내려가 고생이 많았을터인즉 숨을 좀 돌린 다음 차차로 보아주겠으니 우선 폭 쉬도록 하라.》

그 신선은 옥황의 어명대로 천궁의 옥샘에서 물을 씻고 향기로운 류하주(신선들이 마시는 술)를 마신 다음 취흥에 겨워 선녀들의 아름다운 춤을 구경하였다.

다음날 두번째 신선과 세번째 신선이 련이어 천궁으로 돌아왔다.

《옥황마마, 땅세상에 제가 살고자할 곳을 찾았소이다.》

그들도 자기들이 찾은고장을 옥황상제의 밝은 혜안으로 보아줄것을 간청하였다.

옥황은 둘째와 셋째 신선도 피곤을 쉰 다음 다같이 잡은 자리를 보아주기로 하였다.

신선들이 천궁으로 돌아온지 사흘이 지났다.

옥황상제는 천궁에 만조백관들을 다 불러들이고 그들과 함께 세 신선이 찾았다는 고장을 내려다보

려고 하였다.

먼저 첫번째 신선이 나서서 자기가 잡은 땅세상의 어느 한곳을 가리켰다.

《거기 땅세상 맑은 아침의 나라에 사시장철 깨끗한 흰눈을 이고 우뚝 솟아있어 웅장하기로 천하에서 견줄데가 없는 백두산이 있사운데 거기에 자리를 정하였사옵니다.》

옥황이 부채를 두어번 휘젓자 구름이 서둘러 걸히더니 맑은 물속을 들여다보듯 백두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과시 천하에 제일가는 명산이로구나. 풍수와 천문지리에 밝은 신선이 잡은 자리가 과연 명장이로다.》

《옳은 말씀이로소이다.》

만조백관이 합창하듯 옥황의 말을 찬동하였다.

옥황은 두번째 신선에게 물었다.

《그대가 찾은고장도 어서 보여주기 바라노라.》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두번째 신선은 땅세상의 백두산에 눈길을 박은채 놀란 표정을 거두지 못하고있었다.

《어서 말을 할지어다.》

옥황의 재촉을 받고서야 두번째 신선은 정신을 수습한듯 상제앞에 합장배례하고 서서 이렇게 아뢰었다.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제가 잡은고장도 저 백두산이옵니다. 천하 땅세상을 다 다녀봐야 저산보다 더 아름다운 산이 없삽기로 저기에 살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우연히 같은 자리를 정하였은즉 다시 자리를 잡겠나이다.》

옥황은 물론 선관들과 다른 신선들도 모두 깜짝 놀랐다.

어쩌면 하얏은 세상에서 저렇게 둘이 같은 자리를 잡았을가?

모두 머리를 기웃거리는데 이번엔 세번째 신선이 나서서 옥황에게 아뢰었다.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제가 잡은고장 역시 저 백두산이옵니다. 산마루에 있는 큰 못의 물이 하도 맑고 신비하여 저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저 역시 같은고장이니 자리를 다시 잡겠나이다.》

《영?》

모두 다시한번 깜짝 놀랐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선관들과 신선들은 술렁거리었다.

이때 옥황상제의 목소리가 그들의 머리우에서 울렸다.

《두가지 같은 일은 우연이라 할수 있으나 세번째부터는 우연이라 할수 없고 필시 연유가 있는 법이니라. 천계에서도 풍수와 천문지리에 능통하기로 이름높은 그대들이 제각기 잡은 자리가 모두 한고장인즉 그것은 저 백두산이야말로 천하에서 으뜸가는 명장이라는것을 확증해주는것이로다. 웅장하고 아름답고 물이 맑고 신비한 저런 명산에 어찌 한

신선만이 내려가 살겠는가? 세 신선이 모두 저 백두산에 내려가 살것이다.》

그리하여 세 신선은 옥황상제의 어명으로 백두산에 내려가 살게 되었다.

천궁에서는 백두산으로 내려가는 세 신선을 위하여 풍악을 울리고 출판을 벌리며 사흘낮 사흘밤 큰 잔치를 열었다.

백두산에 내린 세 신선은 날이 갈수록 자기들이 사는고장이 더 마음에 들었다.

천지의 맑은 물은 천궁의 옥샘보다 더 달고 시원하였을뿐아니라 한모금만 마시면 쌓였던 피곤은 금시 사라지고 기운이 솟아올랐다.

신선들은 이런 신기한 천지의 물을 자기들만 마실수가 없었다.

백두산 주변에서 사는 속세의 인간들에게도 이 물을 마시게 하고싶었다.

세 신선은 재주를 부려 각각 호수의 물이 산밑으로 흘러내리게 굽을 하나씩 냈다. 그러니 세 굽으로 물이 흘러내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송화강이 생겨나게 되었다.

신선들은 산밑에 각각 거울처럼 맑은 호수도 하나씩 만들어놓아 자기들의 모습을 비쳐보기도 하고 떠나는 하늘나라도 그안에 비치게 하니 그 이름을 삼지연이라하였다.

그들은 계곡마다에 폭포도 만들었고 깊은 골짜기와 산줄기도 뻗어내리게 하였다.

백두산은 나날이 더욱 아름다운 선경으로 꾸러졌다.

그러던 어느날, 세 신선은 구름을 타고 백두산마루우를 날며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야!-》하고 탄성을 내질렀다.

자신들이 사는 백두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감탄을 금할수가 없었던것이다.

《아, 아름답고 웅장하기로 천상천하 어디에 비길것인가!》

신선들은 여기가 하늘나라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백옥경이나 남악경보다도 몇곱은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여기서 사는것이 도리에 닿는것인가?

신선들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 신선이 다른 두 신선에게 말하였다.

《모든것은 다 도에 어긋나지 않고 격에 맞아야 하거늘 하늘나라의 한갓 신하에 불과한 우리가 여기서 산다는것은 너무도 파하고 분수없는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지요?》

두 신선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과연 옳은 말씀이옵니다. 옥황님의 하해같은 은총을 입고사는 우리들이 백옥경보다 더 좋은곳에서

산다는것은 충의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옥황님을 여기에 모시는것이 옳은 행실을 숭상하는 우리들의 참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당한 말씀이요. 우리 같이 천궁으로 올라가 옥황님께 상주합시다.》

세 신선은 그날로 천궁에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아뢰였다.

《옥황마마, 저희들이 사는 백두산은 천계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선경이옵니다. 백옥경보다 더 좋은곳에서 산다는것은 신하로서 도의에 맞지 않는행실이오니 부디 상제님께서 그곳으로 천궁을 옮기고 입궐하시어 군신간의 도리를 지키도록 해주시옵기 바랍니다.》

옥황상제는 세 신선을 내려다보았다.

《기특하다. 그대들의 충의는 실로 하늘땅이 감복할 일이다. 내 그대들의 간곡한 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노라. 여봐라. 어서 행차준비를 서두를지이다.》

천궁은 옥황의 행차준비로 북적 북적였다.

이윽고 오룡차를 타고 옥황이 백두산으로 내려갔다. 백두산마루에 내린 옥황은 아름다운 경치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참으로 훌륭한지고, 백옥경이 여기엔 대비도 안될것이다. 내 발길에 이 땅이 덮을가봐 차마 걸음을 옮기기 저어하게 되누나.》

《옥황마마, 어서 신술을 쓰시여 여기 산마루에 천궁을 옮겨오시옵소서.》

신선들은 기뻐하는 옥황상제를 바라보며 또 청을 드렸다.

그런데 웬일인지 상제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로다. 이 산은 너무도 웅장하고 숭엄하고 아름다우니 파인이 살기에도 분에 넘치는곳이로다.

예로부터 이런 명장을 성지로 점지하는것은 웅대한 처사인즉 내 하늘나라 법도를 어기고싶지 않노라. 이 땅은 앞으로 천하를 평정할 성인이 내리실 성지로 정히 보관해두는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흘러내리는 강도 세줄기요, 호수도 세개요, 깊이 패인 골짜기 또한 세개이니 이 성지엔 한분만이 아니라 세분의 위인이 내리실것인즉 여기서 사는 인간들은 장차 3대통운을 맞이할것이니라.》

옥황상제는 서둘러 오룡차를 타고 신선들과 함께 천궁으로 올라갔다.

그때부터 백두산은 3대위인이 내릴 성지로 정해져있었다고 한다.

성지로 오래동안 보관되어있던 백두산에 드디어 3대위인이 내리셨으니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께서 항일전의 횡불을 높이 추켜드셨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께서 백두의 험준한 산밭에 투쟁의 거룩한 자욱을 옮기시였으며 절세의 위인, 공산주의 찬란한 향도성이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탄생하시었던것이다.

해빛을 우러러

리 석

이 땅우에 흘러가는 일심단결의 대오
그우에 축복하는
위대한 태양의 빛발은
우리 삶을 키우는 영원한 생명선

한사람 또 한사람 우리를 품에 안아
지혜를 주시고 슬기를 주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사랑은
우리 세계의 영원한 해빛

그 빛을 우러러
꽃망울처럼 이 마음 터치면
그렇더라
그 품에서 나의 한생도
궁지로운것 아니던가

내 색날은 제대배낭을 메고
초소를 떠나 보이라앞에 설 때
우리 당세포의 기둥이 되라고
첫 임무를 안겨주던 그 믿음
오늘도 이 가슴에 뜨거워라

깊어가는 밤
수도의 집집을 덥혀줄 불길을 지펴갈 때
소문없이 찾아오신 그이
내 가슴속에 변심없는 인민의 총복되라고
자애로이 가르쳐주시던 그 음성
그대로 힘이 되고
그대로 열정이 되었더라

그 음성, 손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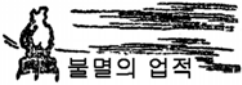
내 성장의 길에 등불이 되어 밝혀주었고
그 믿음은
내 걸음걸음의 신념이 되어 이끌어주었어라

그 사랑속에
30년세월 당의 뜻을 받들어
고난도 시련도 함께 넘으며
당조직과 함께
내 걸어온 영광의 나날이여

그 사랑의 손길따라
첫걸음을 떼고
억세인 발걸음 드림이 없이
그 믿음으로 가고가는
행복한 나의 삶

아, 오늘도 우리 당 기층조직을
억세계 지켜가는
이 행복, 이 영예여
숨결도 걸음도 맥박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함께 하는
하나가 되었노라

우리 당을 이끄시며
강철의 당, 불패의 당으로 꾸려주신 30년
그 나날속에 성장한 나의 삶
친애하는 그이만을 받드는
초석이 되리라
그이의 위엄만을 따르며 불타는
위훈의 불씨가 되리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련속편의 주제를 바로 설정하도록 이끄시어

주체위업의 성스러운 년대기우에 또하나의 력사적 전환의 빛나는 장을 펼칠 새해의 장엄한 진군이 시작된 1994년 1월,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국, 전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해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조국땅우에 만년을 뚫고 새 승리를 안아올 도도한 전진의 기상, 신심과 락관의 기상이 그 어디에서나 나라치고있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완충기의 첫째 정월도 다간 마지막날, 혁명의 수도 평양의 어느 한 회의실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련속편들을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강력적가르치심을 주고계시였다.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목화송이같은 함박눈은 아침에도 대지를 포근히 덮으며 쉬임없이 내리고있었다. 대성산혁명렬사릉의 주작봉마루에도 대동강을 가로질러간 대동교의 란간과 다층주력들의 지붕우에도 흰눈은 소복이 내려앉아 온통 은백색으로 변하였다. 립춘을 눈앞에 둔 좋은 날씨다.

영화배우들의 연기문제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그이께서는 이어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련속편들을 만드는데서 지켜야 할 주제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계속해나가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련속편들을 만드는데서 주제를 바로 설정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정중히 새겨들은 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다부작예술영화 련속편의 주제문제에 대하여 돌이켜보았다.

한동안 아무 말씀없이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조용한 음성으로 원래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창작을 시작할 때에는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주제사상을 전면에 내세우고 다양한 인

물들을 예술적으로 형상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깊이있게 해명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그래서 영화의 첫머리에 자신께서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가지고 다부작영화를 만들라고 써준 글을 자막으로 주었다고 감회깊이 이야기하시였다.

그 순간 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가슴은 끝없는 걱정으로 끓어올랐다.

사실 이 방대한 다부작예술영화가 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게 된데는 전적으로 현실에 있었거나 현재도 있는 산 인간들을 생활적내용으로 하여 그것이 형상으로 꽃피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그이의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었기때문이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인간과 그 생활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그려낸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은 창작되어 사람들에게 생활의 교과서로, 투쟁의 무기로 복무하고있으나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1부~7부)처럼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창작되어 주체적문학예술의 화원을 더더욱 풍만하게 해준적은 일찌기 없었다.

바로 1992년 5월 23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때에도 창작가, 예술인들과 담화하시면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1부~7부)을 결적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고 더없이 만족해하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조선에서만 만들수 있는 세계적인 명작이라고 높이 평가한다고 하시면서 영화는 우리당의 주체적문제사상, 주체의 인간학을 훌륭하게 구현한 대표작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대소한 추위가 금방 지나간듯싶지 않게 푸근한 날씨여서 내리는 눈은 얼마 못가서 녹아버리기 시작하였다. 풍년을 약속해주는 훌륭한 날씨다.

창밖으로 또다시 잠시 눈길을 주시던 그이께서는 창작가들을 둘러보시면서 그런데 최근에 만든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련속편들은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주제사상적요구에 복종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였다.

이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간판으로 내걸었지만 딴 방향으로 나갈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명백하고도 열정에 넘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받아안은 창작가들은 무거워지는 마음으로 하여 머리를 들수 없었다.

지금까지 문학예술에서 주제와 사상에 대하여 지난 시기 많은 작가들과 평론가들, 문예학자들이 이러저러하게 말하여왔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에서 주제는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이며 또 예술의 내용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상이라는 명백한 논리로 일관된 진리를 밝혀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제와 사상에 대한 고전적정식화는 그후 우리 창작가들에게 있어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어왔고 이 귀중한 가르치심은 창작실천에 언제나 구현되어왔다.

돌이켜보면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최현덕, 차흥기편은 이 고전적가르치심을 구현하여 영화를 동백꽃기름을 바른 조금도 흠잡을데 없는 미남으로 잘 만들어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조선을 대표하는 영화, 조선영화의 얼굴이라고 하시면서 이 영화에는 조선의 넓과 조선의 기상, 조선의 향취가 집중적으로 체현되어 있는 세계적인 걸작이라고 하시며 창작가들에게 최상의 영예를 다 돌려주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이후 편속편창작에서는 다부작예술영화로서 주제를 통일시키지 못하였다.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주제사상적요구에 복종되는 통일성의 보장!

이것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편속편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하는데서 관건적문제로 되었다.

좌중을 이윅토록 돌려 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렇게 하다가는 소대가리에 말꼬리를 붙인격이 될수 있다고 하시며 웃으시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더욱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작가에 의하여 작품에 제기된 기본문제가 바로 주제이고 작품의 사상이 내용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는것은 모르는바 아니였지만 다부작예술영화의 최현덕, 차흥기편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만든 다른 편속편들은 주제의 통일성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커다란 자책감으로 하여 창작가들의 마음은 무거워만졌다.

창작가들의 속마음을 다 헤아려보신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크나큰 믿음이 어린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영화문학작가들이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50부까지 만들수 있다고 하는것만큼 계속 만드는것이 나쁘지 않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믿음어린 시선으로 창작가, 예술인들을 둘러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50부까지 끌고나가는 경우에는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주제사상적요구에 맞게 통일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잘 만들어야 하겠다고 더없이 크나큰 신임을 표시해주시었다.

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이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편속편을 세계적인 걸작으로 완성하며 그 성과에 토대하여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하신 그 말씀을 또다시 깊이 되새겨보았다.

그들의 눈앞은 확 터였다.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주제사상적요구에 맞게 통일성을 보장하고 주제를 정치적으로 의의있게 풀어나가며 작품의 내용에서 핵을 이루는 사상을 형상적으로 천명하는것, 바로 이것이 해결하여야 할 기본문제이다.

창작가, 예술인들, 영화부문 일군들은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싶은 심정이였다.

인류의 위인이시며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만 계시면 문학예술창작의 그 어떤 힘든 고비도 다 넘기고 성과적으로 해낼수 있다는 신념이 창작가, 예술인모두의 마음속에 세찬 격류마냥 넘쳐흘렀다.

하여 그들은 마음속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자기들의 필승의 창작적신념에 대하여 소리높이 웨쳤다.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만 계시면 점령 못할 창작적요새란 없다.

반혁명의 광풍으로 지구의 도처에서 혼란과 비판의 어지러운 음조가 짙어가는 오늘 승리자의 대담인양 90년대의 조선의 문단에서 장쾌하게 울려 퍼지는 이 웨침.

어찌하여 이 웨침은 이 세상 그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의 심장과 심장을 뚫으며 신념에 찬것으로 그처럼 세찬 격동의 파문을 일으키는가.

그것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시대의 준엄한 역풍을 쳐물아내고 주체적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진군길을 억세게 떠밀어나가는 필승의 신념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창작활동을 진행하고있기때문이다.

본사기자

투철한 혁명적수령관, 비범한 문학적천품의 빛나는 구현

-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에 대하여 -

장정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인 1954년 6월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을 발표하시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이 창작발표되던 시기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전후복구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며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던 력사적인 시기였다.

명작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과 학생소년들의 충성의 감정이 절절하게 노래되고있으며 그이의 령도따라 전후복구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세차게 굽어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끝없이 깨끗하고 뜨거운 충성심을 길어 간직하여야 합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신 우리 인민과 어린이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끝없는 행복의 감정을 노래하고있으며 아버지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다할 그들의 굳은 맹세와 의지를 노래하고있다.

명작의 서정세계는 풍부하고 다양하며 구체적이며 생활정서적이다. 밝고 소박한 동심적서정속에 노래되고있는 명작의 시적내용은 모두가 그토록 풍부하고 심원한 정서로 충만되어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하며 크나큰 격동의 세계에 휩싸이게 하는것은 일편단심 아버지수령님만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인민들의 절대적인 충성의 감정이며 지극한 효성의 감정이라고 할수 있다.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효일심, 바로 이것이 이 명작의 모든 사상정서적체험세계를 관통하는 기본지향이고 근본핵이며 아름답고 열렬한 시적형상의 생명력의 원천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사상정서세계의 가장 심오한 경지가 있다. 그것은 새 생활 창조의 노래이고 시대정신의 기발이며 인민의 지향과 리상의 구현이며 가장 숭고한 경지에 이른 시대적, 전인민적 감정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

리 **교실**》은 사상예술성에 있어서 최상의 높이에 이른 혁명적시가문학의 고전적본보기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의 사상예술적 높이는 무엇보다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지니신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심오히 구현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명작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혁명적수령관의 빛나는 시적, 예술적 구현이다.

혁명적수령관은 수령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이다.

수령을 혁명과 건설의 최고뇌수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형상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도록 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것은 시문학을 비롯한 우리 문학의 기본의 기본이다.

혁명투쟁에서 로동계급의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 수령을 모시는 자세와 립장 문제에 대한 심오한 시적해명은 시에서 언제나 크고 요란한 표현과 의미심장한 시구들에 의해서만 실현되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소박하고 친근하면서도 동심적서정이 흘러넘치는 아동문학의 경우에도 가장 높은 경지에서 가장 훌륭하게 노래될수 있으며 심오하게 해명될수 있다. 그러한 시의 생명력은 일정한 아동독자층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에서 혁명적수령관의 빛나는 구현은 동심적서정이 풍부하고 밝고 아름다운 시적형상과 밀접히 결부되어있는것이다. 그때문에 명작은 가장 생활적이며 정서적인 동시에 또한 가장 독창적이다.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에서 혁명적수령관의 심오한 세계는 시적화폭의 중심에 높이 모셔진 아버지수령님의 인자하시고 위대하신 불멸의 형상에 의하여 감명깊게 노래되고있다.

그것은 이 명작이 우리 교실에 높이 모셔진 아버지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는 우리 어린이들의 구체적인 생활체험으로부터 시작되는것과 관련되어 있다.

아름다운 교실
언제나 재미나는 교실
앞에는 원수님 초상화

환하게 모셔져있지요

오늘아침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실에 들어서니

언제든지 반가운듯이

우리 보고 공부 잘하라고...

보는바와 같이 명작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높이 모시고 배우며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의 한없는 긍지와 영광, 행복의 감정이 노래되고있다. 그들의 영광은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영광이며 그들의 행복은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러울것 없이 살며 배우는 행복이다. 그러한 감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수령님께서만 계시면 전후복구건설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고야만한다는 확고한 필승의 신념과 의지에 그 바탕을 두고있는것이다.

하기에 우리 어린이들은 전화의 나날 반토굴교실에서 공부할 때도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만을 높이 우러러모시였고 오직 어버이수령님 한분만을 믿고 따랐으며 높이 받들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영웅 전사들이 그이의 영상을 마음속깊이 우러르며 불사신마냥 포연탄우속을 뚫고나갔던가.

전후의 어려운 나날 얼마나 많은 건설장들과 도시와 농촌들에서 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폐허우에서 것처럼 짧은 기간에 기적적으로 새 생활을 창조하여왔던가.

이 나라의 모든 학교들, 해빛 밝은 모든 교실들마다에 높이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 그것은 우리 어린이들의 기쁨과 행복과 희망의 상징이며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며 씩씩하게 자라는 어린이들의 가슴에 숨엄히 간직되는 불멸의 모습, 위대한 수령, 위대한 어버이의 모습이다.

《우리 보고 공부 잘하라고...》 《새 나라 착한 아이들 되라고...》 너그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는 듯한 친근하신 그 영상, 그 영상 우러르면 모든 시름이 순간에 가버리고 가슴속엔 따뜻한 사랑이 봄빛처럼 흘러들며 희망의 해빛은 밝게 비친다. 그이의 품은 어린이들을 미래의 주인으로 키워주고 인민들을 불패의 인민으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사랑의 품, 혁명의 품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그이의 품을 떠난 삶과 운명과 미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민의 모든 영예와 행복, 자랑과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인민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오래고 간고한 실천을 통하여 이 진리를 깊이 새겨왔다.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는 우리 어린이들의 아름답고 다감한 감정세계를 통하여 언제나 어린이들속에 계시며 어린이들과 교락을 함께 나누시는 어버이, 인민들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가시는 인민의 위대한 어

버이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를 감명깊게 되새기게 하고있다.

명작의 구절구절을 새기느라민 인민들을 찾으시여 공장과 농촌, 학교들에 수없이 많은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을 남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숨엄히 떠오른다. 전쟁의 포화속에서는 전호가의 전사들속에 계시였고 전후의 그날, 실버들 푸르른 그 봄날에는 파괴된 공장의 구내길을 걸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아이들의 교실에, 로동자들의 기대옆에, 농민들의 밭머리와 파도 사나운 바다가, 먼 림산마을의 벌목공들속에 그리고 행복한

《민주의 터전》이 건설되는 건설장들에 계시며 그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나라일을 의논하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님을 믿고따르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으며 항일의 그날에도 복구건설의 그날에도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할수 있는 요인이 있는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은 우리 교실의 생활세계, 우리 교실의 서정세계를 통하여 부모와 자식간의 혈연적연계와 같은 어버이수령님과 어린이들, 학생소년들의 뽕배야 뽕수 없는 사랑과 의리의 관계를 감명깊이 형상하고있다.

명작에서 우리가 깊은 감동속에 받아안게 되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적풍모이다. 우리 아이들은 해빛 밝은 교실에 들어설 때나 책상에 마주앉아 공부할 때나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생각,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긍지, 어버이수령님께 충성 다할 결의로 가슴불태운다. 이것은 비단 우리 어린이들 마음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생각이고 우리 인민의 긍지이며 충성의 결의이다.이런 의미에서 명작은 수령과 인민의 혈연적연계, 수령과 인민의 일심단결의 진실한 시적구현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고전적명작에 구현된 혁명적수령관의 심오한 세계가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에 구현된 혁명적수령관의 심오한 세계는 또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충성과 효성의 감정을 가장 감명깊은 시적형상에 담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명작에서 노래되고있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어린이들의 충성과 효성의 감정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뜨거운 사상감정의 최고의 정화이다.

명작에는 비록 《어버이》라는 표현이 쓰여있지 않지만 시전편에 흐르는 지극한 효성의 감정,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온 나라 아이들과 인민들의 깨끗한 량심과 의리의 감정은 그것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있다. 그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육친의 사랑에 대한 의리의 아름다운 결정체로 빛난다.

아침마다 기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서면 반가우

신듯 환히 웃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자애로우신
영상을 우러러뵈게 된다. 진정 그 영상은 온 나라
아이들의 자애로운 아버지, 온 나라 인민의 아버지
의 숭고한 모습에 대한 불멸의 시적화폭이다. 하기에
어린이들은 그 영상 우러러 아버지수령님의 위
대성을 노래하며 아버지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실
충성의 결의에 불타는것이다.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봄바람에 실버들 푸르렀네
우렁찬 건설의 노래와 함께
원수님을 우리는 받드네

노래하자! 원수님을...
우리는 승리하였네
행복한 민주의 터전은 건설되네
노래하자! 우리의 원수님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그것이 지극한 효성과 결
합될 때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현되게 된다. 명작
에서 노래된 어린이들의 충효의 감정세계는 친애하
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혁명적수령관의 빛나는
구현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명작에서 노래된 어
린ীদের 충효일심의 감정, 그들의 사상정신적체험
의 세계는 이처럼 진실하고 열렬하고 뜨거운것이며
또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대 아동들의 가장
전형적인 사상감정으로,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
풍모의 정수로 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찌기 어린 시절부
터 지극한 효성으로 효자된 도리를 다하심으로써
사람들을 깊이 탄복케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지니신 충실성의 생동한 모범들은 다 어
버이수령님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밀접히 결합된
충실성인것으로 하여 언제나 가장 진실하고 가장
순결한 충실성의 극치로 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사상예술적내용의 모든 심
오한 세계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이러
한 충효일심의 빛나는 구현이며 그이께서 탐구하신
동심적서정세계의 생동한 발현이다. 바로 여기에
명작에서 노래된 어린이들의 충실성의 감정과 그의
빛나는 시적형상이 그렇듯 아름답고 진실하고 깨
끗할수 있는 비결이 있는것이다. 또한 그것이 그때
에도 오늘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시대
어린이들의 가장 전형적인 사상감정의 정수로 되는
근거가 있으며 그것이 우리 인민의 시대적, 전인민
적 사상감정의 최고의 경지로 되는 근거가 있다. 다
시말하면 명작에서 노래된 우리어린이들의 충효의
사상감정은 다만 서정적주인공에게만 한정되지 않
고 전체 우리 인민의 충효의 사상감정의 구체적, 동
심적 표현으로 되며 시대의 가장 주도적인 감정의
정수로 된다는데 있다. 우리 교실의 세계에서 시작

된 어린이들의 충효의 사상감정이 장엄한 건설의
교향곡과 더불어 보다 폭넓은 생활적체험의 세계에
로 확대되어 노래되면서 그것이 심원한 사상정서세
계를 펼치고있는것은 이때문이다. 풀잎에 맺힌 하
나의 작은 이슬방울에 전체 우주가 비끼듯이 하나
의 크지 않은 동시형식에 우주를 무색케 하는 우리
인민의 충효일심의 세계가 웅심깊게 비껴있다.

우리의 교실은 알뜰한 교실
언제든지 책상에 앉으면
너그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네
새 나라 착한 아이들 되라고...

우리는 언제나 받드네 원수님을...
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 나라 일꾼이 되자!
항상 준비하자!

우리는 여기서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서정적주
인공의 무한한 신뢰와 흠모의 감정을 깊이 받아안
게 되며 아버지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나갈 우리 인
민과 어린이들의 심장의 호소를 읽는다. 특히 이 고
전적명작에서 **《원수님을 우리는 받드네》, 《노래
하자! 원수님을...》** 등과 같은 호소성이 강하고 특
별히 깊은 정서적의미를 담고 반복강조되면서 사람
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시구절들은 아버지수
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효일심의 사상감정을
가장 집약적으로 깊이있게 강조해주고있다. 여기에
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일제를 물
리치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였고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이겼던것처럼 북구건설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하리라는 우리 인민의
필승불패의 신념에 대한 찬가, 신념에 대한 긍지와
자랑이 힘있게 울리고있다.

여기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이 있는것처럼
오직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 인민의 보다 휘황한 앞날이 있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있다는 우리 혁명의 진리에 대한 철
석같은 확신이 있다.

아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노래하며 수령님을 충
효일심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세
계의 원천을 밝혀주며 아버지수령님을 가장 깨끗하
고 가장 뜨거운 충성의 한마음으로 높이 받들어모
시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감명깊게 노래
하고있는 여기에 또한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으로 관
통된 이 명작의 높은 사상예술적경치가 있다. 그렇
기때문에 명작에서 노래된 우리 인민의 충효일심은
가장 진실하고 순결한 충효일심으로서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사상정신세계의
최고의 전형으로 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의 사상예술적 높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비범한 문학작품이다.

벌써 학창시절부터 문학과 예술에 대한 심오한 이해와 폭넓은 지식, 생활에 대한 높은 미학적서적 안목을 지니고계시였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정열적인 문학예술활동을 벌리시는 과정을 통하여 비범한 예지와 뛰어난 예술적천품을 높이 발휘하여오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높은 문학적탐구의 세계가 심오히 반영되어있다.

우선 명작은 우리에게 시문학의 본성적요구로서의 서정성구현의 빛나는 본보기를 보여주고있다.

서정성은 시문학의 기본특성이며 생명이다. 때문에 서정성이 있다고 하는것은 곧 거기에 시가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의 시적형상은 명작에 구현된 아름다운 서정의 세계에 의하여 힘있게 담보되고있다.

명작에서 노래되고있는것은 어떤 외부적인 생활의 설명, 어떤 이야기도 아니며 정황도 화폭도 아니다. 여기서 노래되고있는것은 인간의 내부적체험세계 그자체이며 생활에 대한 감성적, 정서적체험의 결과에 파악되는 시의 세계, 서정의 세계 그자체이다. 여기에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는 우리 어린이들의 경모의 감정의 토로가 있으며 그들의 기쁨과 행복, 희망 그리고 신념의 노래가 있으며 추운 겨울이 지나간 뒤에 맞이하는 새봄의 랑만과 우렁찬 건설의 노래가 있다.

그것은 우리 어린이들의 동심의 노래이며 새 시대 생활의 찬가이다. 명작이 시종일관 우리 독자들의 사색을 깊은 정서적체험세계에로 이끌어가면서 무한한 흥모와 격동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것은 이러한 서정성의 진실한 구현과 관련되어있다. 이것은 명작에서 탐구되고있는 시문학특성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의 시문학특성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수령에 대한 칭송의 감정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한없이 친근한 감정으로 형상하고있는것이다.

시에서 서정은 친근한 감정, 진실하면서도 소박한 정서로 노래될 때 사람들을 진심으로 깊이 감동시킬수 있다. 특히 수령을 칭송한 시가에서 꾸밈과 가식이 없는 진실로 소박하고 솔직한 감정은 사람들의 깊은 공감을 자아내며 한없는 친근감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효의 감정은 생활을 통하여 신념으로 체득된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감정의 정화이기때문이다. 그러한 시는 과장을 모르며 수식을 모른다.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의 시의 구절구절은 소

박성과 진실성, 친근한 감정으로 하여 우리를 감동시킨다. 여기에는 과장이나 수식 같은것이 들어있을 자리가 없다. 왜냐 하면 명작은 그자체가 그렇듯 솔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감정의 결정체이기때문이다.

다시 한번 그 구절들을 되새겨보자.

아름다운 교실,
언제나 재미나는 교실
앞에는 원수님 초상화
환하게 모셔져있지요

...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봄바람에 실버들 푸르렀네
우렁찬 건설의 노래와 함께
원수님을 우리는 받드네

...

우리의 교실은 알뜰한 교실
언제든지 책상에 앉으면
너그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네
새 나라 착한 아이들 되라고...

얼마나 소박하며 얼마나 친근한가.

명작에서 임의의 시련을 인용하여도 우리는 거기에서 다만 이러한 진실한 감정의 토로만을 읽게 된다.

소박성과 진실성, 친근한 감정은 그자체로도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심오한 내용을 담고있을 때는 더욱 훌륭하다. 사상감정의 소박성과 진실성은 그것을 통하여 풍부한 체험과 사색을 불러일으키며 친근한 감정은 또한 그것을 통하여 숭고한 감정을 안겨줄 때 가장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 이르게 된다.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이 지닌 우수한 시문학특성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박성과 진실성, 친근한 감정, 그것은 이 명작의 가장 우수한 특성의 하나인 동시에 가장 세련되고 높은 형상수준을 보여주는 특성의 하나이기도하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의 시문학특성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명작의 시적내용을 구체적인 생활감정을 통하여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생활감정의 구체성, 이것은 시의 서정성구현의 필수적요구의 하나이다. 구체적인 생활감정으로부터 출발할 때에만 시는 서정성을 높은 경지에서 깊이있게 그리고 진실하게 구현할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생활감정과 유리된 시의 서정이란 있을수 없다. 아무리 그것이 내부적인 체험의 세계라 하더라도 그것은 다 생활에 자기의 근거를 두고있다. 시가

인간의 내부적체험세계의 반영이라 할 때 그것은 생활의 구체적, 감성적 파악을 전제로 한것이다. 서정의 바탕은 생활이다. 생활로부터 시작하고 생활로 충만되며 생활의 노래로 높이 울릴때 시는 고유한 의미에서 서정의 문학으로 되게 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에서 노래되고있는 구체적인 생활감정은 우리 교실의 세계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생활형상으로 우리 교실이라는 시적대상이 놓여있다. 화분과 흑판과 책걸상이 있고 흰구름이 비친 밝은 창문들이 있는 교실, 모든것이 우리 교실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루생활도 한 학기 동안의 학습도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의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는 모든 생활도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흘러간다.

우리 교실의 세계, 그것은 아동들의 세계이고 동심의 세계이며 또한 그 동심으로 하여 더욱 아름다와지는 생활의 세계이다.

여기서 아이들은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자라서 어른이 되고 영웅으로, 과학자로, 예술인으로 되는것이다.

명작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어린이들의 충효일심의 사상감정을 노래함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 교실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우리 교실을 서정의 바탕에 생활로 깔아줌으로써 깊은 정서로 충만되게 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명작의 생활적감정의 구체성이 있다. 따라서 명작에 구현된 서정은 서정일반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 생활의 주인공들인 아동들의 정서적체험이 낳은 서정, 다시말하면 동심적서정이다.

아동시문학의 생명이며 그의 사상미학적감화력의 근본원천으로서의 동심적서정은 명작의 생활감정의 구체성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동심적서정은 아이들의 동심의 눈으로 생활을 보고 아이들의 동심으로 생활을 정서적으로 감수하는 바로 거기서 발현되게 된다.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에 구현된 동심적서정은 아이들의 구체적인 생활감정과 절절한 체험에서 노래된 서정인것으로 하여 가장 생활적이며 가장 진실한 서정으로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명작은 우리 아동시문학의 고전적본보기로도 된다.

훌륭한 아동시문학은 동심적서정의 생동한 구현으로 하여 아동들의 사랑을 받을뿐아니라 광범한 일반독자대중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것은 그 아동시문학의 서정세계가 동심을 떠나 광범한 독자대중의 서정세계일반에까지 확대되기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동심세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에 더욱 충실하기때문이다. 동심적서정에 충실하면 할수록 그 아동시문학은 아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참다운 교과서로도 된다. 왜냐 하면 아동들의 세계는 어른들에게도 진리를 가르쳐주고 때로는 교훈을 주며 때로는 아름다운 추억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기때

문이다. 그들은 거기에서 과거를 추억하고 현재를 사색하며 미래를 내다본다.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이 아동독자들만이 아니라 광범한 일반독자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그들의 생활의 교과서로도 참답게 복무할수 있는것은 그것이 아동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인 이러한 동심적서정을 풍부하게 구현하고있는데 있다. 여기에 이 명작이 우리 시대 아동시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는 근거가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은 그 사상예술적내용에 상응한 형식의 완벽성에서도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이 명작의 서정구조에서 찾아볼수 있다. 시에서 서정구조는 감정조직을 잘하고 감정발전의 대를 바로 세우며 말하려는 사상의 본질을 똑바로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형식적요소의 하나이다. 특히 서정시나 동요, 동시와 같은 짧은 형식의 시문학작품에서 서정구조를 짚이게 하는 것은 작품의 사상예술적높이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은 4행시로서 6련 24행으로 되어있는데 감정발전의 단락에 따라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여진다.

첫부분은 1, 2련인데 여기서는 명작의 주제사상적과제가 제시되고있으며 둘째부분은 3, 4련으로서 여기서는 1, 2련에서 제시된 주제사상적과제가 심화되고 발전되며 셋째부분인 5, 6련에서는 명작에서 제시된 주제사상적과제가 결속, 해결된다.

이와 같은 감정발전의 논리는 기승전결의 순차적 상승에 의하여 명작의 사상정서적내용을 주제사상적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있다.

1,2련에서 노래되었던 우리 교실의 세계는 3, 4련에서는 그 범위를 벗어나 보다 폭넓은 생활의 세계에로 확대되는데 거기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도 있고 승리한 인민의 영웅적기상도 있으며 복구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신념에 대한 노래도 있다. 그러나 5, 6련에서는 다시 1, 2련에서 본것과 유사한 시상으로 되돌아옴으로써 그것은 마치 1, 2련에서 시작하였던 노래의 계속인 듯한 인상을 준다. 왜냐 하면 1, 2련에서 노래되었던 우리 교실의 세계가 5, 6련에서 다시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벌써 1, 2련의 감정발전과 상승, 양양의 계기를 자체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높은 질적비약을 이룩한 그러한 새로운 경지의 사상정서세계이다. 이것은 마치 교향곡의 기본선율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굴곡이 많은 발전의 계기들을 거쳐 마침내 다시 본래의 선율에로 되돌아오기는 하면서도 그것이 이제는 새로운 질적상태를 표시하는 그러한 경우와 유사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명작은 그것이 제목에서 제시되

고있는것처럼 우리 교실을 노래한 시작품으로서의 사기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수 있게 하고있다. 바로 이것은 명작의 서정구조가 시적내용의 표현에 힘있게 복종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고전적명작은 또한 시적언어형상에서도 높은 예술성을 보여주고있다.

명작의 시적언어형상의 특징은 소박하고 진실한 사상감정의 성격에 맞는 한없이 평이하고 간결한 그러면서도 정서적색채가 짙은 언어표현을 쓰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가장 평이하고 간결한 시적언어표현속에 가장 심원한 동심적서정의 세계를 펼쳐고있는것은 이 명작의 시적언어표현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어린이들의 충효의 감정이 그렇듯 소박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친근하고 열렬하게 노래될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도 바로 시적언어형상의 이와 같은 평이성, 간결성, 정서성과 많이 관련되어있다고 말할수 있다.

언어형상의 평이성과 간결성은 이 명작으로 하여금 시에서 흔히 쓰이는 상징, 비유적 표현의 활용을 필수적인것으로 하지 않고있다. 그것은 이 명작의 평이하면서도 간결한 시적언어형상이 상징비유적 표현을 필수적인것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 표현성과 효과성을 훨씬 높은 경지에서 보장할수 있었기때문이다. 이것은 이 명작의 언어형상에서 평이성과 간결성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서 가장 철저히 가장 순결하게 보장되고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바로 이러한 언어형상의 평이하고 간결한 특성으로 하여 명작은 소박하면서도 심오하고 진실하면서도 열렬한 이 명작의 사상감정을 이처럼 훌륭하게 표현할수 있었던것이다.

명작의 언어형상의 정서적특성은 서정적주인공의 기쁨, 행복, 환희, 랑만 등을 표현함에 있어서 시적언어가 가지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서적색깔을 훌륭

히 살려내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언어형상의 정서성으로 말미암아 명작에서 노래된 밝고 아름다운 교실에서의 아이들의 행복한 생활이며 봄의 환희며 폐허우에 건설된 학교, 승리한 인민의 불굴의 기상이며 우렁찬 건설의 노래 등과 같은 시적형상들이 이처럼 우리에게 깊은 정서적체험을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명작의 언어형상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그의 운률적특성이다.

명작의 시적언어형상의 운률적특성은 그것이 명작의 사상정서적내용에 맞는 가장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활동적인 음조로 울리고있는데 있다. 명작의 사상정서적내용의 특성에 맞게 선택된 운률적언어형상은 자연히 그것을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활동적이면서도 소박하고 평이한 운률형식을 갖추는데로 지향되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이로부터 그 운률적특성은 많은 경우 운률조성의 다양한 수단, 수법들의 랑용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형식을 내용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필요한 정도만큼 적용하고있다. 실례로 1련, 4련 등에서 반복법, 어순바꿈법, 수사학적감탄의 리용과 같은것이 그것을 보여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은 그가 지닌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을 혁명적수령관의 높이에서 힘있게 이끌어주고있으며 일련단심 당과 수령에게 끝까지 충성과 효성을 다하도록 무한히 고무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의 심오한 사상예술적내용을 깊이 학습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널리 선전하며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세계를 형성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당이 혁명에서 참모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당의 역할에 따라 혁명의 승패가 좌우된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혁명이 력사의 기관차라면 당은 혁명의 기관차라고 말할수 있다. 그래서 혁명가들은 당을 중시하고 당을 꾸리는 일에 이처럼 큰 심혈을 기울이는것이다.

맑스가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창시한후 실천투쟁의 첫 사업으로 공산주의자동맹을 창건하고 《공산당선언》을 발표한것이 그의 활동에서 가장 큰 공적으로 오늘날까지도 찬양되고있는것은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서 당이 노는 사명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때문인것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노동운동상에서 나타났던 여러가지 류형의 기회주의, 개량주의도 구경은 당에 대한 견해와 립장이 그릇된데서 발생된다고 말할수 있다.

공산주의가 새로운 시대사조로서 노동운동무대에 출현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이 지구상에서 이룩해놓은 모든 세기적변혁들은 그 어느것이냐 다 당이라는 신성한 이름과 련결되지 않는것이 없다.》



허물없는 벗

이런 격언이 있다.

《성품은 권력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가깝게 한다.》

오늘 우리 인민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그로록 우러러모시고 따르게 되는것은 관직에 대한 숭상에서가 아니라 그이의 고매한 인간상, 더없이 소탈하신 성격, 인민적인 성품에 매혹되어있는 그때문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혁명사상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어디를 가시나 언제나 근로하는 인민들과 곧 어울리신다. 공장에 나가시여서는 노동자들과 함께 기대도 다루어보시고 그들과 즐겨 담소도 하시며 애로조건도 풀어주시는가 하면 농촌에 나가시여서는 농민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시고 그들과 허물없이 풀밭에 둘러앉아 식사도 하신다.

삼복더위에 개구리도 뜨거움을 못이겨 불속에서 나오기를 저어하는 어느해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함경남도 장진일대에 현지지도차로 나가계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경치좋고 물맑은 흑림천가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계시었다.

앞장서시여 무성한 풀숲을 몸소 헤치시며 시내가를 걸으시던 그이께서는 한동안 물속을 바라보시다가 손을 들어 그곳을 가리키시며 큰소리로 말씀하시었다.

《저것 보오, 고기떼요. 고기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라 걷던 노동자들은 그이께서 가리키신 흐르는 푸른 물속을 바라보다가 저마다 런던달아 환성을 올렸다.

《히야, 송어떼다!》, 《송어떼가 오른다.》

맑은 물속에는 큰 송어들이 활기있게 꼬리를 치며 떼지어 몰려오고있었다.

어떤 고기는 함께 떼지어오다가 한바퀴 빙 돌다가는 자기 떼를 뒤따라간다.

청신한 기분을 자아내는 여름날이었다. 이 좋은 날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더없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있는 노동자들의 기쁨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었다.

밀려오르는 송어떼를 또다시 한동안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그놈, 손으로 그냥 덮쳐도 잡겠군.》** 하고 조용히 말씀하시며 밝게 웃으시었다.

그 순간 한 젊은 노동자가 누구도 어쩔사이 없이 찰뽕 강물에 뛰어들어 고기를 와락 덮쳤다.

옥실거리던 수많은 고기들이 삽시에 사방으로 쭉 흩어져 달아나버렸다. 그만 헛물을 켜 노동자는 너무도 축스러워 머리만 굽적거리면서 물속에 멍하니 서있었다.

《그렇게 마구 덮쳐서야 송어를 잡나, 머리를 써야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록음우거진 시원한 강가에는 또 한차례의 웃음판이 벌어졌다.

물참봉이 된 그 노동자가 어색해하면서 강기슭으로 나오려는데 물속을 들여다보시던 그이께서는 **《가만, 거기 좀더 있으시오.》** 하시면서 이제 곧 송어떼가 올라올것이니 송어가 발목에 와서 땀때때 잡으라고 하시었다.

아니나다를가 잠시후 송어떼가 옥실거리며 또 올라왔다. 어떤 송어는 가만히 서있는 그 노동자의 장다리를 주둥이로 제법 툭툭 쫓기도 하였다.

《그래 발밑에 다 왔소?》

그이께서 웃으시며 그 노동자에게 다정히 물으시었다.

《예, 내 발을 쫓기도 합니다.》

그 노동자는 너무 좋아서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한줄기의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와 노동자들의 붉어진 얼굴들을 슬며시 식혀주었다. 어디선가 청높이 우는 매미소리도 들려왔다.

물속에서 떼지어다니는 송어떼들을 들여다보시던 그이께서는 **《그러면 이제는 살그니 앉으면서 덮치시오.》** 하고 말씀하시었다.

그 노동자는 그이의 말씀대로 무릎을 구부리고 앉으면서 제일 큰놈을 골라 와락 덮치었다.

《잡았다!》

노동자는 너무 기뻐서 큰소리를 쳤다.

그는 범잡은 포수마냥 비늘이 번쩍거리는 큰 송어를 추켜들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쪽으로 달려왔다.

다. 제 손으로 가장 큰 송어를 잡아 그이께 보여드리게 되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며 로동자쪽으로 마주 걸어가시었다.

이때였다. 로동자가 썼던 밀짚모자가 강물에 떨어져 둥둥 떠내려가고있었다. 그는 고기에만 정신이 팔려 자기 머리에서 밀짚모자가 벗겨진줄도 몰랐던것이다.

그것을 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바지도 걷어올리지 않으신채 곧 물에 들어서시더니 사방으로 물방울을 튕기며 떠내려가는 모자를 따라가시었다.

로동자도 그이를 따라 물속을 급히 달렸다.

한참만에야 밀짚모자를 건지신 그이께서는 허둥지둥 달려오는 로동자를 보시며 말씀하시었다.

《그러다 애써 잡은 고기를 놓치겠소.》

그이의 옷이 다 젖은것을 보고 로동자가 더없이 미안쩍어하자 그이께서는 **《옷이야 좀 젖으면 팔하오, 더운 때 시원해서 더 좋소.》**라고 하시며 밀짚모자의 물을 털신 다음 로동자의 머리에 눌러 씌워주시었다.

물속에서 한손에 큼직한 송어를 든 로동자는 그이께서 손수 씌워주신 밀짚모자를 다른 한손으로 누르며 친애하는 그이와 함께 즐겁게 웃었다.

먼데서 바라보면 마치 구면친구끼리 즐겁게 마주 보며 웃고있는것만 같았다.

흑림천기슭에 남겨놓은 이 한토막의 일화는 그누구와 처음 만나도 곧 허물없는 구면으로 다정한 친구지간으로 되게 하는 위대한 령도자의 한없이 소탈한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화폭이었다.

사람들과 흥허물없이 지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소탈한 성품은 로동자나 농민들과의 관계에서만 찾아보게 되는것이 아니다.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피어린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모시고 싸워온 한 로녀성혁명투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자기 아들이 장가를 들 때 처녀를 소개하여주신 이야기를 두고두고 하고있다.

어느 한 기관에서 당사업을 하고있는 그 녀성투사로 말하면 세상에 류레없이 엄혹하였던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함께 싸우던 남편이 전후에 사망하고 혼자 자식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녀성이었다.

그런 투사의 가정에 늘 마음쓰시며 보살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의 자식들의 혼사는 자신께서 맡아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몸소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머느리감을 고르시였던것이다. 그러시고는 녀투사의 의향을 물으시었다. 그러자 녀투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알아하시는 일인데 의향을 물어보구말구 하실게 있는가고 하면서 진정을 담아 말씀드렸다.

《그러지 않아도 바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집안일까지 걱정하시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별말을 다한다고 하시면서 옛날부터 처녀소개를 잘하면 술 석잔이라는 말이었는데 앞으로 아들, 머느리가 의중계 잘살 때 당비서동무가 나에게 술 석잔만 주면 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얼굴에 한가득 미소를 담으시고 물으시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자 녀투사는 너무도 기뻐 그이께 이렇게 말씀드리었다.

《술이야 세독인들 못올리겠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렇게 하면 대접이 너무 후하지 않는가고 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얼굴에도 주름진 녀투사의 얼굴에도 웃음이 한껏 피었다.

이런 혼담은 이웃사이에서나 있을법한 일이였다. 그런데 이 허물없는 혼담은 위대한 령도자와 한 녀투사와의 사이에서 벌어진것이다.

만사람들에게 다함없는 친근감과 신뢰감을 안겨주며 동지적인 의리심을 복돋아주는 이런 이야기는 간부들속에서도 학자들속에서도 얼마든지 들을수가 있다.

하기에 두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를 방문한바 있는 작가이며 기자인 외국의 이름있는 한 문필가는 일찌기 이렇게 쓴바 있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친애하는 김정일비서는 정치적인 수령이기전에 인자한 어버이이시며 친근한 벗이시다.

아직 젊으신 지도자가 나 어린 학생들로부터 백발이 성성한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버이로, 벗으로 되게 한 그 인력은 무엇인가? 만약 그 누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확신을 가지고 서슴없이 대답할것이다.

그것은 그이께서 천품으로 지니고계시는 가장 평민적인 성품, 바로 그것이라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빛나게 구현하는것은 우리 식 문학예술창작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근본방도

리동원

우리 당과 인민의 영명하신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사업을 령도하신 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러갔다. 그간 우리 혁명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류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사변들과 빛나는 업적들을 수놓으며 멀리도 전진해왔다.

우리 당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령도의 계승문제와 함께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게 되었으며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전투성과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혁명은 우리 당의 최고강령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 기간 우리 문학예술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주체형의 혁명적문학예술로서의 체질과 풍격을 훌륭하게 갖추게 되고 그 정치사상성과 예술성을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였다.

지난 기간 우리 문학예술이 걸어온 자랑스런 길을 돌이켜보면 그 영광스러운 나날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밑에 이룩된 불멸의 업적들로 빛나는 날들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을 본격적으로 벌려나가시던 1960년대 중순 당사상사업의 주공전선을 맡고있는 문학예술부문부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문학예술로 하여금 주체의 혈통을 튼튼히 이어가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구현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그리하여 일부 그릇된 사람들에게 의하여 부식되었던 수정주의, 사대주의,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철저히 뿌리빼고 문학예술창작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속도전의 원칙에 따라 문학예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어 짧은 기간에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당사업부문에 령도의 자욱을 옮기신 첫날부터 문학예술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바치신 불면불휴의 로고와 정력적인 령도의 위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당사업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혁신과 양양이 이룩되었습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면 그의 지도밑에 문학예술부문에서는 1970년대초의 몇해어간에 주체문학예술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졌습니다.》

우리 문학예술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대전성기를 이룩한것은 이 시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에 그 역센 뿌리를 두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영역에서 낡은 것을 뒤집어엎고 주체의 혈통을 이은 새로운 인간학,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문학예술혁명방침을 제시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여러 예술형태에 옮기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우리 시대 영화화면과 가극무대, 연극무대와 소설화폭들에 옮기는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철저히 앞세우도록 하시였으며 이 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사상미학적원칙들을 가르쳐주심으로써 그 력사적위업은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되게 되었다.

또한 문학을 확고히 앞세우고 영화혁명에서 돌과 구를 열어 그 성과에 기초하여 문학과 예술의 전반 영역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영화와 가극, 연극, 소설 형태로 재현되었으며 새로운 《피바다》식혁명가극과 《성황당》식혁명연극이 탄생되어 우리 식 문학예술의 대화원을 빛나게 장식하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을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에서 주체의 인간학에 대한 독창적문제 사상과 리론들을 창시하시고 혁명적창작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문학예술로 하여금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

업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이며 주체문학의 최고전형인 수령형상창조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첫째가는 창작력량을 꾸려주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므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철저히 복무하는 주체문학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항일혁명투쟁시기편 장편소설(1~15권)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하고 해방후면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 《조선의 봄》, 《50년 여름》, 《조선의 힘》, 《승리》가 계속 창작완성되었다.

뿐만아니라 최근시기 수령의 후계자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보여주는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 《예지》, 《푸른 하늘》 등 장편소설창작에서도 양양이 일어남으로써 수령과 후계자의 형상창조가 주체문학건설에서 첫째가는 가장 숭고한 지상의 과업으로 되게 되었다.

수령 형상창조는 소설뿐만아니라 문학의 다양한 형태들에서 그리고 영화와 연극 창조에서 주선으로 확고히 앞세워나감으로써 혁명영화 《조선의 별》(1~10부), 《민족의 태양》(1~5부), 《위대한 품》(전, 후편),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과 수령형상가요들이 형상창조되게 되었다.

또한 두차례에 걸치는 장편소설 100편 창작투를 힘있게 벌림으로써 문학을 확고히 앞세워나가면서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창작적양양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설문학과 시문학, 아동문학의 전반영역에서 그리고 영화와 연극, 음악과 무용 분야에서 다양한 주체의 작품들이 창작되어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더욱 빛내었으며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으로 우리 식 문학예술의 창작성과 경험을 빛나게 총화할수 있게 되었다.

실로 오늘에 이르는 주체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와의 투쟁속에서 문학예술혁명방침을 드림없이 힘있게 밀고나간 위대한 사상과 령도의 자랑스런 결실이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발전시켜 온 빛나는 총화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이룩하신 사상리론 및 령도의 불멸의 업적이야말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철저히 복무하는 우리 문학예술의 주체적인 전면적개화발전에서 억년드눌지 않는 만년초석이며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보이다.

오늘 우리 문학예술앞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 령도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그것을 창작실천에 전면적

으로 구현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리론과 령도업적을 옹호하고 고수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주체의 문예관에 기초하여 창작활동을 벌리며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것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궤방과 사상문화적침투를 전례없이 악랄하게 벌려 사회주의문학을 변질말살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시대의 참다운 문예관, 주체의 문예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창작활동을 벌려야 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주체시대의 참다운 인간학으로 승승장구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주체의 문예관을 확고히 세워야 자주시대 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뿐만아니라 종자와 주제, 인물의 성격창조와 생활묘사를 비롯한 형상창조의 모든 문제를 우리 시대의 가장 올바른 창작방법인 주체사실주의에 기초하여 혁명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사실주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한 창작방법으로서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와 현실, 사회와 력사를 보고 자주성을 기본적으로 하여 전형화와 진실성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며 주체의 인간학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 이르게 하는 창작활동의 근본원칙이며 사람중심의 창작방법이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주체의 문예관을 튼튼히 세우고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에 철저히 의거할 때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온갖 이색적이고 반동적인 사상문화조류의 침습으로부터 주체문학예술의 혁명적원칙을 고수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혁명적내용을 우리 인민의 비위와 정서에 맞는 민족적형식에 담아 주체문학예술을 자주위업수행에 힘있게 복무시켜나갈수 있다. 바로 이것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리론과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리론과 령도업적을 고수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다른 하나의 문제는 문학예술 창작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확고히 구현하며 그 형상수준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는것이다.

문학에서 주체성은 민족자주정신의 반영이다.

문학에서 민족자주정신을 반영한다는것은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자기 나라 인민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구현하며 자기 민족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미감에 맞게 형상을 창조한다는것을 말한다.

주체성은 민족문학의 고유한 얼굴이며 정신이다. 주체성에 의하여 민족문화의 고유한 특성, 민족의 정기와 기상이 뚜렷이 표현되며 그 생명력도 담보되게 된다. 주체성을 체현시킬 때에만 민족문학을

우리 식 문학으로, 민족제일주의정신이 내려치게 할수 있다.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주체성을 민족문학예술창작에 빛나게 구현하는 과정에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편속편들을 창작완성하여 조선의 넘과 기상, 향취가 차넘치는 걸작으로 내놓게 되었다.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 체현되어있는 조선의 넘은 다름아닌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며 우리 인민이 제일이고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다. 영화에 체현되어있는 조선의 기상은 한 세대에 두계국주의를 타승하고 재더미만 남았던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운 영웅적기상이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으로 하여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기본주의가 복귀된 엄혹한 사태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혁명적기상이다. 영화에 풍기는 조선의 향취는 우리 인민의 웅심깊은 정신세계와 조상전래의 미풍양속, 아름다운 자연에서 우러나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향취이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살려 민족제일주의정신이 차고넘치도록 하여야 수령형상작품과 당의 위대성형상, 주체형의 인간전형창조에서도 우리 식 문학예술의 참모습을 보여줄수 있으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주체인간학의 사상에예술성을 최상의 경지에 끌어올릴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를 문학과 영화, 가극과 연극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 일반화하고 당의 문학예술혁명방침을 계속 힘있게 관철해나감으로써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오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형상의 철학성과 진실성, 지성세계를 새로운 높이에 끌어올리는것은 무엇보다도 형상수준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선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형상과제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형상의 힘은 진실성과 철학성, 지성세계의 높이에 있다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새롭게 탐구하고 그것을 아름답고 고상한 형상세계에 담음으로써 형상의 진실성과 철학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은 예술적형상으로 하여금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심오한 생활진리를 안고있으며 지성세계가 높아야 하나를 통하여 열백을 헤아려보고 다시 음미해볼 맛이 있는 생활철학으로, 인간의 사상정신적아름다움을 정서적으로 펼쳐보여주는 성격문학으로 되게 할수 있다. 원래 성격이란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생활에 대한 태도와 활동방식에

서 나타나는 가장 공고한 사상심리적인것의 개성적 표현으로서 그의 지성세계, 의지적인 성격을 높은 형상수준에서 그려냈을 때 생동한 예술적개성으로 살아나며 심오한 인간문제 생활철학으로 밝혀내는 지성도가 높은 성격형상으로 창조되게 된다.

여기로부터 현시기 문학을 참다운 인간학, 생활철학으로 되게 하는데서 형상의 진실성과 철학성을 높이는것과 함께 문학의 지성세계를 결정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문학작품은 작가의 지적창조물이며 지성도의 예술적반영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조건에서 문학의 지성세계를 높여야 하는것은 현대인의 지성도가 높아지는데 따라 문학의 인식교양적역할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 현실적요구로부터 제기된다.

지성이라고 하면 지적인것의 적용, 사물현상의 리치를 깨닫는 능력을 말한다. 지성이 없으면 생활에 대한 리성적인 사고를 할수 없으며 지식의 총화로 얻어지는 심오한 생활진리, 생활발전의 합법칙성을 고상한 미의 세계와 결부시켜 형상으로 구현할수 없으며 문학의 지성세계를 높여나갈수도 없다. 낮은 지성세계, 지성도를 가지고서는 형상이 너무도 메마르고 뻥뻥하여 심오한 생활진리를 사상정서적으로 깊이있게 심어줄수 없을뿐아니라 문학을 심오한 형상적깊이를 가진 생활철학으로 되게 할수 없다.

문학에서 지성세계를 높이는 문제는 형상세계의 리성적 및 지적 수준을 높이는 문제로서 리성적인것을 감성적인것과 결합시켜 작품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감명깊게 형성하는것과 관련된다.

문학에서 지성세계, 지성도가 높다낮다 하는것은 결국 작품에 보통사람이 알고있는것보다 얼마나 깊고 풍부한 지식이 담겨져있는가, 사람들이 경탄하고 올려다볼만한 고상한 미의 세계가 개척되어있는가, 형상기교와 문화수준이 웅당한 높이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직접 가늠하게 하는 형상세계의 사상예술적수준을 표현하는것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작품에서 지성도를 높일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인간문제가 있는 철학적인 종자를 찾아쥐고 그를 아름답고 고상한 미의 세계에 담아 의지적인 성격, 지성적인 성격형상을 창조해냄으로써 우리 시대 사람들의 미학적요구와 지성도의 높이에서 해답을 줄수 있게 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고상한 미의 세계를 세련된 형상기교와 높은 문화수준으로 안받침하여 깊은 여운과 정서적공감을 불러낼수 있도록 그 형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작품의 사상적내용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형상기교와 문화수준 령역에서 격이 낮고 저조하면 형상세계의 지성도를 높여나갈수 없으며 다시 음미해볼 재미도 없는 사건문학의 테두리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격형상으로 무르익지 못한 사상적내용은 그것을 아무리 높이려 해도 한갓 설교에 불과하며 서투른 웅변가의 연설을 방불케 하여 거기서 형상세계의 지성도를 헤아려보기란 더욱 어려운것이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성격창조에 모를 박고 창작적사색을 깊이하며 높은 지성세계에서 형상을 무르익혀가는 올바른 창작적자세를 가지고 생활의 박식가, 뜻이 깊고 수양이 높은 문화인, 높은 정치적식견과 예술적기량을 가진 당의 문예전사로 더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학령도업적을 고수하고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데서 현시기 문학부문앞에 나선 중심과업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체문학론》에서 밝히신 주체적문예 사상과 이론을 철저히 구현하여 주체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며 우리 식 문학창조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것이다.

그러자면 작가들 자신이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당사상전선의 전초병,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가, 문예전사로 튼튼히 준비되어있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어떤 역경과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받들어모시는 가장 깨끗한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안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 참다운 충신, 효자로 살며 일할 때 작가의 필봉은 언제나당을 옹호하는 혁명의 보검으로 빛나며 주체문학건설에서는 일대 혁명적양양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작가들은 당이 밝혀준 5대명언-당 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당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정통하며 주체의 문예관을 철석같이 세워나감으로써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전통적인 창작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주체문학 건설과 창조에서 일대 혁명적양양을 일으켜나아가야 할것이다. 바로여기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룩하신 문학령도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우리문예전사들의 참된 창작기풍, 창작적자세가 있는것이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운명을 영원히 같이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로 살며 일한다는 최상의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식 문학의 걸작들을 수많은 창작해냄으로써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계속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다.

기다리시는 시간

김정철

그이께서 기다리시는 이 시간입니다
그이께서 아끼시는 이 시간입니다
이 하루 령도자의 어길수 없는 일과로
인민이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는 시간

필적도 갖가지, 사연도 저마끔
허나 하나같이 어려오는 사랑스런 모습들
낮익은 얼굴들도 있습니다
처음인 이름들도 있습니다

자애로운 아버지 그 품에
제 기쁨 제 생각 제 결심을
아뢰이지 않고서는 잠들수 없는
자식들의 그 진정이 깃들어있는 편지

만시름 다 잊고 웃기도 하십니다
새힘을 얻기도 하십니다
가슴속 정을 건잡지 못하시며
격량을 일으키는 회답의 붓이어

하나로 고동치는 심장우에
하나로 이어지는 혼연일체
천리면 멀리까
만리면 멀리까

검은구름 밀려오고 폭풍이 잦을 때면
더더욱 사무치는 자식들인 인민
세상은 넓고 지도자는 한분
언제나 모자라는 그것은 시간

그 시간을 천으로 만으로 쪼개여
령도자와 인민
최고사령관과 전사가
허물없이 마주앉는 시간이어

인민의 기쁨을 띠고 여기시며
인민을 위해 바쳐가시는 이런 시간으로
덕으로 천하를 얻은 인민의 지도자
그이의 한생이 이루어집니다

위대한 력사의 나날을 더듬으며

백인준

오늘 우리 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두고 생각할 때면 나는 문학예술혁명의 장엄한 포성이 울리던 그 첫시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부터 내가 받아안았던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곤한다.

무릇 력사의 위대한 사변들은 비록 그 사변의 목격자라 하더라도 그 시기에는 그 력사적의의와 크기에 대해서 미처 다 리해하지 못하는 수가 많다.

1964년, 그것은 우리 당의 력사에 있어서나 또 나 개인의 한생애에 있어서도 위대한 전환의 해였다. 돌이켜보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벌써 그 시기에 우리 문학예술에서 거대한 변혁을 일으킬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그 돌파구를 우선 영화부문에서 열어나가시기 위하여 바로 력사적인 1964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업에 착수하시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해 7월 15일에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일군들을 만나시어 어느 한 영화를 보시고 그들의 사업을 따뜻이 고무해주시었으며 9월 15일에는 당시의 조선인민군 2.8예술영화촬영소를 찾으시어 촬영소의 임무를 새롭게 밝혀주시었으며 같은 해 10월 16일에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실내촬영장에 들리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앞에서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연설을 하신 바로 그 이튿날인 그해 11월 8일에 다시금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 나오시어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촬영소현지에 모실 준비사업을 면밀히 해나가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12월 8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촬영소에 나오시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소사를 지휘하시었으며 창작가, 예술인들이 이 력사적인 회의에 참가하도록 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나도 그때 이 력사적인 회의에 참가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촬영소현지에서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 이것은 참으로 로동계급의 문학예술 력사가 시작된후 그 어느 당, 그 어느 나라의 문예사에서 찾아볼수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이었다.

언제 어디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한 영화촬영소의 현지에서 진행된 그러한 례가 있어본적이 있는가.

이 력사적인 회의가 우리 문학예술발전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마련된것임을 오늘의 우리들은 누구나 다 잘 알고있다. 1964년, 그때에 우리 문학예술의 밝은 전도는 이미 약속되어있었다. 또 이때로부터 나 개인의 운명과 오늘의 행복과 영예도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까지 나는 창작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곡절을 겪고있었다. 이런 속에서 나는 영광의 새날들을 맞이하였다. 영광은 나 자신도 알수없게 레사로운 날 소문도 없이 문득 찾아왔다.

촬영소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가 있는지 며칠 안되는 12월 17일, 이날은 눈이 많이 내렸다. 눈보라가 쳤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추위와 세찬 눈바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촬영소에 나오시어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주시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이께서는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의 창조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화에서 미제의 교활성과 반미선을 더 강하게 주고 애정관계를 영화의 주제에 맞게 혁명적으로 설정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영화의 사상미학적문제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작품을 잘 손질하면 훌륭한 영화가 될수있다고 영화의 첫 필름을 빨리 완성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저녁때식도 잊으시고 무려 3시간나마 합성록음실의 수수한 보통나무의자에 앉으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이날 그 뜻깊은 영광의 자리에 없었던 나는 그 다음날에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우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영화문학을 쓴 작가를 찾으시었다는 감격적인 이야기를 전달받고는 크나큰 걱정 에 휩싸였다. 나의 가슴속에는 새힘과 신심과 열정이 솟구쳐올랐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어내자면 영화문학창작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좋은 영화문학이 있어야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낼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때마다 나는 그이의 령도를 받들고 그이께서 몸소 지도하신 작품의 창조사업에 작가로 참가한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력사의 그날이 있어 나의 영광넘친 오늘이 있고 작가로서의 성장도 있는것이 아닌가.

나는 이따금 영광의 그날들을 돌이켜보며 내가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수십년간 지니고있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책들을 펼쳐보곤한다. 그것은 영화혁명으로부터 가극혁명, 연극혁명에 이르는 전기간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적은 두툼한 10여권의 노트이다. 거기에는 그이의 령도의 30년 력사의 일부가 비껴있다고도 말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의 구절구절을 새기느라 하면 어느덧 그 시절의 그이의 음성이며 표징이며 억양까지도 떠올라 흥분을 금할수 없다.

30년, 그 기간 어찌 난관과 애로인들 없었으랴. 때로는 나를 망설이게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게도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친애하는 그이의 말씀은 나를 일으켜세워주었고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고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하여 나는 나약한 자신을 박차고 매번 일떠서곤하였다. 때로는 나 자신도 알수 없는 어떤 거인적인 힘과 예지가 나를 떠밀어 주었으니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나에게 주신 힘이였으며 예지였다.

그 노트들은 나의 사상과 나의 정신의 량식의 보물고이다. 그것은 오늘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나의 인생행로의 기록이다. 그 기록의 첫째지들은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의 창조의 나날들과 결부되어 있다.

...

내가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의 영화문학을 쓰려고 결심한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취급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쓸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은 순간부터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의 별》이라는 영화문학을 하나 썼다. 이것이 후일 《성장의 길에서》로 제목을 바꾸어 완성한 영화문학의 첫 초고였다. 그러나 《나의 별》은 빛도 보지 못할반하였다. 그것은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집요한 간섭과 방해책동때문이었다. 많은 난관속에서 영화가 겨우 제작단계에 들어가게 된 다음에도 그 완성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시련과 고민의 나날이 흘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의 창조사업을 지도해주신 그 모든 내용들을 어찌 한두페이지의 글에 다 담을수 있겠는가. 그이는 나에게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이실뿐아니라 중년기에 청춘의 열정을 새로 안겨준 위대한 문학의 스승이시며 은인이시다.

그때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의 주인공 박진영의 친우인 동훈이가 4.19항쟁에서 죽게 한 문제를 놓고 당시 당의 중요직위에 앉아있던 반당분자는 그것이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공포감을 줄수있다느니 뭐니하면서 시비하였다. 나는 어찌할바를 몰라 고민하고있었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은 나를 구원

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동훈이를 죽이는 문제에 대하여 주저할 필요는 없을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가 죽는것으로 하면 더 살아날수 있다고 하시었다. 또한 그이께서는 동훈의 죽음이 주인공의 성격발전에서 큰 계기로 되지만 하면 동훈이 죽는것으로 하여도 일없다고 가르치시었다.

지금도 그이의 이 말씀의 구절구절을 새기느라 하면 언제나 힘이 솟고 신심이 생긴다. 그것은 내가 쓴 작품에 대한 지도의 말씀이어서만이 아니다. 죽는것으로 하면 살아날수 있다고 하신 한마디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그이의 말씀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져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반당반혁명분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꺾어놓으시고 작가의 의도를 지지해주시며 하신 이 말씀에서 그때 나는 확고한 주견과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

1965년 2월 초하루였다.

나는 이날도 어느날과 마찬가지로 아침일찍부터 영화촬영소안에 있는 창작실에 불박혀있었다. 그때 나는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 제2부에 대한 구성안을 무르익히고있었다. 그러나 나는 때때로 깊은 생각에서 깨어나 창박을 우두커니 내다보며 번거로운 생각에 휘여잡히곤하였다. 어쨌든 2부영화문학은 마음먹은대로 잘 진척되지 않았다. 처음의 흥분대신 주인공의 현상을 두고 차차 생각이 깊어졌다. 창문가에 기대서서 이 생각 저 생각하였다. 갑자기 전화종이 울리었다.

빨리 총장실로 오라는것이였다.

나는 무슨 일인가 생각하며 총장실로 갔다.

그러나 총장실 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선 나는 너무도 뜻밖이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북받쳐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누를수 없이 주춤거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와계시었던것이다.

방안에서 촬영소의 한 책임일군과 담화하고계시던 그이께서는 문가에 서있는 나를 보시자 환하게 웃으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나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반가이 맞아주시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나는 마음속으로 감격에 목매여 부르짖었다.

생기도는 눈빛, 서글서글한 웃음, 열성에 넘치신 음성, 해빛처럼 환한 모습...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는듯한 심정에 사로잡혀 그 무엇이라고 형언할수 없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으며 걱정과 흥분으로 가슴이 세차게 뒤설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내가 이처럼 가까이 모시는 처음이였다.

물론 그전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가까이 만나 뵈은 일이 있기는 하였다.

전쟁전에도 한번 있었지만 정전직후에 당시 내가 문화선전성 문화예술국장으로 일하면서 지금의 혁

명박물관 밑에 있던 반토굴집에서 살고있을 때 우리 집을 몸소 찾아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만나 뵈은 일도 있었다.

그러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영화혁명을 지도하시기 시작한 이후 만나뵈옵기는 이날이 처음이었다.

연출가도 나의 뒤를 이어 총장실로 들어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들이 자리를 잡고앉자 정중한 자세로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의 말씀은 우리들의 가슴에 숭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방안에 우렁우렁 울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 1부의 성과에 대해서와 고쳐야 할 부분들에 대하여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하시고 교시를 관철하여 영화를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기초하여 영화에서 반미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시었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관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문제, 진명과 영애의 애정문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정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시었다. 그밖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학생독서회 책임자의 형상을 바로잡을 데 대한 문제, 감방장면에서 파업을 지도한 철도로동자 태수의 성격을 바로 설정하고 진명에게 혁명적영향을 줄 데 대한 문제, 영애의 성격묘사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인용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이날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무엇보다 나를 끝없는 격동에 휩싸이게 한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가장 고결하고 절대적인 충실성이었다.

그때까지 영화나 예술을 지도한다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그렇게 정중히 또 정확히 전달해준적이 없었다. 더우기 반당반혁명 분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고서도 그것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았으며 적당히 전달해주거나 제 나름대로 횡설수설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러한 실패를 엄중시하시고 이 문제부터 바로잡아나가시었다.

하여 그이께서는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 제 1부 첫필름에 대한 지도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정중히 또 정확히 전달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시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문학예술을 령도하시던 첫 나날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충실성의 숭고한 모범은 그후 나의 창작생활에서와 정치사상생활에

서 커다란 변화의 계기로 되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모든 문학예술분야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만이 짙어차고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선 충성의 본보기로 장성발전하게 되었다.

이날 나는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비범한 예지와 현명성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하신 이날의 말씀은 한생을 문학예술부문에서 일해온 사람들도 따르지 못할 독창성과 예지로 차넘치었으며 비상한 설득력을 가지고있었다.

그날로부터 나의 가슴속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문학창작의 지도자로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려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이날 내가 강하게 인상받은것은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청춘의 기백이 차넘치면서도 겸허하시고 우리들을 아주 친근하게 해주시는 그 웅심깊은 모습이였다.

이전에 내가 보아왔던 문학예술을 지도한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말 한마디를 하여도 명령식으로 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납득되는 명철한 대안들을 주시면서도 절대로 명령식으로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창작가들을 존중하여 어떤가, 납득이 되는가, 다른 의견은 없는가고 물어도 보시며 진심으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이와 같은 숭고한 품모와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그후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 1, 2부는 훌륭하게 완성될수있었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평가를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닐수 있었다.

1960년대중엽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향도성으로 높이 솟아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의 첫자욱을 떼신 잇을수 없는 그날로부터 30년 세월이 흘렀다. 오늘 우리 혁명은 얼마나 멀리 전진하였는가.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얼마나 찬란히 개화발전하였는가.

위대한 령도는 위대한 현실을 낳는법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품모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영화와 함께 가극, 연극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문학, 음악, 무용, 미술, 교예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변혁이 이룩되었으며 우리의 주체예술은 70년대의 대전성기를 거쳐 오늘날은 온 세계가 경탄하는 《인류최고봉의 예술》로 찬연히 빛나게 되었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의 30년, 그것은 변혁의 30년이며 승리와 영광의 30년이다. 나는 잇을수 없는 그날을 돌이켜 생각할 때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육친적지도를 받으며 영화혁명, 가극혁명, 연극혁명을 하던 그날의 그 깨끗하고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나의 생의 끝까지 충성을 다해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군한다.

직기와 속삭이는 말

김명철

반가워하실게라고
기뻐하실게라고

어제보다 더 많은 직기를 말고
순회길에 나선 나에게
너는 속삭여주는것만 같구나
친애하는 그이
몸소 찾아주셨던 뜻깊은 기대야

얼마나 반가워하시라
기뻐하시라

못잊을 그날
이 기대앞에 다가오시여
직포공 우리 어머니
실잇는 숨씨까지 보아주시며
힘과 지혜를 북돋아주신 그이

나를 보면
무척 반가워하시리
기뻐하시리

어제는 어머니가
천리마를 타고 달렸는데
오늘은 딸이 또 혁신자로 자랐다고

네 모습을 보니
그날의 어머니를 만난것만 같다고...

그 하나의 소중한 꿈 가슴에 안고
짹짹이 책을 보며
열심히 기술을 익혀
오늘은 마침내 어머니처럼
술한 기대 혼자 다 말아나선 이 마음

오시면 반가워하실것만 같아
알기만 하셔도 기뻐하실것 같아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활짝 꽃피워갈 이 첫째
우리 어머니들의 가슴에 불타던
자력갱생 그 녀를 날실로 늘이고
간고분투 그 정신을 씨실로 감았으니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못내 기쁘시여 환히 웃으시게

돌자! 직기야, 더 기운차게
천리마에 90년대속도를 가하여
짜자! 필필이 더 고운 천을 많이
천리마기수들의
그 더운 숨결로 뚫는 심장을 안고

나의 세포 당원들에게

변홍영

건국의 구내에서
불타는 전호가에서
입당청원서를 쓴 로당원들도 있다
나처럼 혁명의 불속을 걸어보지 못한
새 세대 당원들도 있다

당생활년한도 다르고
한생의 경력은 같지 않아도
위대한 당의 한 성원으로
성스러운 위업속에 숨결을 같이하는
나의 세포 당원들

내 그들과 함께 반생을 살아왔다
꿈많은 20대 그 시절

대학을 마치고 배치되어온 나를
진심으로 기뻐 맞아준 사람들
그들이 엄숙히 손을 들어
나의 입당을 보증했노라

그들은 나의 스승이며 동지
그들은 나의 당원의 첫걸음을 떼여주었고
실패와 번민과
성공의 기쁨속에
탐구의 나날을 함께 살며
당원의 먼길을 지켜주었다

때로는 뜨거운 숨결로
때로는 준절한 타이름으로

당원의 순결한 넋을 키워준 사람들
성스러운 한대오에서
하나의 심장이 되고
하나의 어깨가 되어
이 엄혹한 세기에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여 일떠선
나의 세포 동지들

내 그들과 인연맺었음이 행복하구나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비바람도 맞받아나아가는 그 모습에서
내 당원의 참된 한생을 보았노라
동지의 파오를 그토록 아파하는 그 진심에서
내 참된 당원의 량심을 알았노라

오, 채찍을 들어달라
내 어머니 당조직앞에
잠시나마 량심을 더럽히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식으로 가리우려 한다면
입당의 그날처럼
아파도 더없이 고마운 비판의 매를
나의 동지들이여 가차없이 내려다오

내 그대들의 믿음속에 살 때가
제일 뽀뽀하고 행복하노라
동지들의 그 사랑을 잃는다면
내 얼마나 외롭고 가엾은 존재이라
그보다 구슬픈 고뇌가 나에게 또 있으랴

집단의 의지속에 함께 있을 때
즐기찬 강물속의 나는 그 한방울
흩어졌다도 다시 모여 대하를 이루려니
믿어달라
위대한 당의 교양속에 자란 한 당원
내 결코 동지들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오, 씁없이 굽이치는 당생활속에
그대들이 참된 인생을 빛내가듯이
나 또한 당원의 걸음새를 잃지 않으려니
그대들과 한보폭으로 내짚는
나의 걸음 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으리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높이 모시고
내 참된 삶의 자욱을 새겨가리라!

날염공처녀의 마음

한기운

내 정든 날염직장
해빛밝은 창가에서 바라보면
만가지 꽃 다 피어웃는
아름다운 화원인듯

줄줄이 늘어선 날염대
필필이 흐르는 꽃비단
기대사이를 누비는 날보고
사람들은 《꽃녀》래요

글쎄 그런지도 몰라
노래속에 빨간 단추 살짝 누르면
삼지연못가의 진달래
노을속에 피어웃으니

또 한기대
웃음속에 파란 단추 살짝 누르면
금강의 목란꽃
솟는 해와 마주웃으니

흘러 흐르는 비단무지개우에
피어나는 송이송이
만가지 꽃 송이송이
이슬 털며 향기 풍길듯

아, 베푸시는 은정의 비단꽃 피우며
사철 꽃계절에 묻혀살아
한생 꽃속에 살
이름만 《꽃녀》일가요

내게도
부모가 지어준 이름있건만
사람들 그렇게 부르는 이름 더 좋아
모습만 보고 《꽃녀》라 불러도

다 모를거예요
더 많은 꽃비단에
더 고운 꽃 피워갈
이내 마음속에 있는
효성의 《꽃녀》만은

명제해설

《선행세대가 이룩하여놓은 민족문화유산을 디딤돌로 삼고 그의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내용과 형식을 옹계 이어받을 때에만 문학예술을 자기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수 있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는것을 주체적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우리 민족이 이룩하여놓은 민족문화유산을 디딤돌로 삼고 그의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내용과 형식을 옹계 이어받아 문학예술을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도록 하시였다.

어느 시대의 문학예술이든지 빈터에서 발생발전할수 없다. 매개 나라의 민족문학예술은 자기 민족의 선행세대들이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창조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민족문화유산에 토대하여 발생발전하게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의 명제에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을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려면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사회생활의 기본단위는 나라와 민족이며 그들의 생존과 발전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를 수 없이 련결되어있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민족국가단위로 그 어느때보다도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민족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승패, 인민대중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민족문제, 민족에 대한 립장은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태도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허무주의는 사대주의를 낳으며 사대주의를 하면 민족이 망한다. 민족적자존심과 민족제일주의의 중요한 표현의 하나인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귀중히 간직하고 옹계 계승할 때에만 문학예술을 자기 민족의 지향에 맞게 주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그 민족성을 건결히 고수해나갈수 있다.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는 문제는 외세에 의하여 국토와 민족이 둘로 갈라진 우리 나라에서 보다 심각하게 제기된다. 민족문화유산은 나라가 분열되었다고 하여 둘로 갈라지는것이 아니며 누가 제멋대로 가른다고 하여 갈라지는것도 아니다.

여로부터 우리 인민은 하나의 지맥, 하나의 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으며 민족문화유산을 꽃피워왔다. 이런 우리 인민이 한강토에서 공동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한 민족도 하나이며 민족문화도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민족의 성원으로서 가지게되는 공통적인 사상감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

렬주의자들은 나라와 민족이 일시적으로 둘로 갈라진것을 기화로 우리의 슬기롭고 유구한 민족문화유산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고 책동하고있다.

우리는 분렬주의자들의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범죄책동을 짓부시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오늘 민족문화유산문제를 옹계 풀어나가는것이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이를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갈라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자면 복과 남이 다같이 민족자주의 리념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오늘 남조선동포들과 해외동포들 속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동경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민족자주리념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데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이 우리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통일방안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는것은 우리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평가하고 잘 계승해나가고있는것과도 많이 관련되어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들의 악선전에 의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속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은 마치도 민족문화유산을 낡은 사회의 유물이라고 하면서 청산해버리는 편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왔다. 그러던 그들이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공화국북반부의 민족문화예술을 보고서는 감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우리가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켜나갈수록 문학예술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물론 더 많은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통일열망을 안겨 줄수 있다.

이처럼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문학예술에 극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주시대의 기본요구와 우리 당의 민족자주로선과 관련되는 중요한 정치적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옹바로 풀어나가야 한다. 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시 한편을 써놓고

김철

시 한편을 끝냈다. 흰 종이에 옮겨베끼고 다시 읽어본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물어본다. 이것을 나 자신의 신념으로 썼는가, 량심으로 썼는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르치심이 떠오른다.

그이께서는 자기가 쓰기도 후에 그것이 자기가 쓴 글인지 모르는 작가는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글을 쓰는 작가라고 할수 없다고, 그런 작가는 순전히 인민경제계획이나 수행하듯이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가사를 한편 써도 자기의 신념과 량심으로 써야 하며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단두대에 올라서서도 이 작품은 내가 로동당시대를 노래하여 쓴 작품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새기면 새길수록 뜻깊은 가르치심이다. 한편의 시를 써놓고도 자기의 한생을, 창작생활전반을 다시 돌이켜보게 하는 말씀이다.

작품창작이란 본연의 의미에서 작가자신의 신념과 량심에 따라 진행되는 목적의식적인 창조적로동이다. 참된 작가는 오직 자기 신념의 호소에 의해서만 붓을 들며 자기 량심의 지령에 따라서만 그 붓을 움직인다.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상, 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생활, 투철한 신념으로 공고화되지 못한 지향은 작가의 붓끝에 열정과 희열, 흥분을 줄수 없으며 결백한 량심에 그늘을 던지는 글은 그 어떤 가공과 타마를 거듭한대도 작가에게 도덕적인 만족과 긍지, 자량을 선물하지 못한다.

...

너 어디서 왔더냐, 시여
생활이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싹터왔었지
너 어떤 세월을 살았더냐, 노래여
로동당시대! 빛나는 년대들을 줄달음쳐 살았지
...

시집 《어머니》의 첫머리에 쓴 한대목이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시를 쓰게 했든가. 생활이었다. 로동당시대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에게 매혹된

넋이었기에 그 넋의 불붙는 조각들을 나는 아낌없이 위대한 우리 시대에 바치였다.

...

장군님이 걸어오신 길과
장군님이 걸어가시는 길
그 길에 인민의 모든 심장 이어졌거니
아, 그 길에서
위대한 수령 위해 목숨 바침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김일성** 장군님께》 1952)

큰걸음 내어디디였구나, 조국이어 앞으로!
희망의 봉우리가 앞에 솟아있구나 조국이어
앞으로!

내 어린 시절에는 그대의 젖꼭지를 빨며 자랐고
철이 들면서는 그대 품에 덩굴며 꿈을 길러왔거니
나

어머니조국이어, 내 이제는 노래를 바치노라

(《송가》 1957)

잘나도 내자식이요 못나도 내자식이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도 제자식의 목소리를 가려들으며 그의 발자국소리를 알아듣는다. 내 한생에 적지 않은 시를 발표했지만 나는 언제 어디서든 그 시들을 쓰던 때의 흥분을 잊지 않는다. 그것들의 생김새며 체취, 남들은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부족점까지도 다 기억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으로 씌여진 시가 아니었고 남의 의사에 강요되어 생겨난 글이 아니었으며 그 한줄한줄 한마디한마디는 첫사랑의련정마냥 불붙는것들이었기때문이다.

로동당시대! 이 위대한 시대는 그것들의 씨앗을 내 심장에 잉태시켰고 나는 그 《태아》들을 눈물겨운 진통의 환희를 거쳐 위대한 우리 시대에 낳아드린 《산모》였기때문이다.

나는 한때, 아니 퍼그나 긴 세월 건설장과 광산에서 육체로동을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에도 시를 쓰는 행복한 로동을 중단할수는 없었다.

작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시가 건설장 게시판에 나붙곤하였지만 나는 그것이 위대한 시대와 운명을 같이하는 나의 창조물임을 확인할 때 더없이

이 만족스러웠다. 경도의 벽에 나붙은 벽시들에 지
하전초병들의 안전등불이 비쳐질 때면 어둑한 뒤편
에 서있어도 나는 행복하였다.

내가 사랑하는것, 진리라고 믿는것, 그것을 위함
이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을 참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정의로운 우리 당의 사상! 우리 당의 령
도! 그에 심취된 나의 뇌수와 심장은 그 어떤 다른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후세의 벗들이여!
먼 후날 이 강반에
우리를 위해 따로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

우리자신이 그대들에게
위훈의 기념비를 몰려주나니
대하를 막아 산악으로 일떠선
언제의 벽에서 우리 이름을 읽으라
(《기념비》 1963)

...

...

남이 떠밀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정한 드림없는 결심대로
하나- 둘-
내려짚는 사다리 한단한단에
혁명을 책임진 자각을 실으며

간다 우리는
저 하늘아래
수령님 마련해주신
땅우의 락원을 빛내기 위해
땅밑으로 간다
더 깊이 더 깊이
수직갱을 누르며 내려간다
(《저 하늘아래》 1968)

...

행복하여라
이 언덕에 가슴을 맞대이고
더럽혀지지 않은 량심을 헤쳐놓는 사람은...
그 또한 영광이여라
곡절많은 한생을 여기서 매듭짓고
새 투쟁의 전구로
영생하는 진리를 안고가는 전사는...

...

(《만수대》 1978)

위대한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할수 있는 나의
행복, 한생에 두분의 위대한 수령을 모신 인민의
영예, 자기자신을 모래알이나 버럭이 아니라 이 세
상의 주인으로 자각하는 인간의 자부심, 참으로 우
리 시대는 우리 인민을 인간만세의 무궁한 령마루
에 이끌어올린 영광스러운 시대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애로운 어버
이심정으로 내가 쓴 시편들을 보아주신것은 송가
《어머니》를 쓸수 있게 한 샘의 원천이었다. 령도
자와 인민의 혼연일체, 당을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
로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신뢰감을 한생
의 체험으로 받아안았기에 나는 걱정을 터쳐 《어
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라고 노래부를수 있었다.

이 시를 쓴 날 새벽에 나는 행복감에 취하여 울
었다. 사람의 행복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 그것만이
아님을, 눈물이 아픔과 슬픔의 분출만이 아님을 손
잡아 깨우쳐주신 그 사랑, 그 믿음...

나에게 그런 시줄들을 쓰게 하여준 친애하는 지
도자 **김정일**동지의 은덕에 목메여 흘린 그 눈물에는
단 한점의 티도 그늘도 없었다. 정화되고 정화된
신성한 량심의 옹졸로만이 경건한 무아의 경지에
로 나를 이끌어주는듯싶었다.

《이 시를 누가 썼습니까?》

세월이 묻는 말이다.

《내가 썼습니다.》

우리 당 마크의 붓이 대답하는 말이다. 조선의 시
인이 대답하는 말이다.

...

《이 시를 누가 썼는가?》

또 다른 목소리도 들린다. 있을상싶지 않은 지극
히 비상한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단두대... 교
형리... 그리고 나의 시...

《내가 썼다!》

《거짓말, 로동당에서 쓰라고 해서 썼지. 그렇다
고 대답해라. 그러면 살수 있다.》

《아니다. 나는 인간답게 살았다. 그랬기에 또한
당의 전사답게 죽겠다. 이것은 내가 로동당시대를
노래하여 쓴 작품이다!》

...적들은 《유혹》이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둔갑
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은 작품창작이라는
《굴치 아픈 노릇》을 스스로 말아할것이 무엇이나
고, 뿔하러 제 명을 제스스로 줄이겠다는가고 나를 회
유한다. 그러나 나의 가슴 깊은곳에서 그를 꾸짖는
다른 소리가 울린다. 그 소리의 임자는 《신념》이
다. 신념은 유혹에게 말한다.

《어리석은놈! 내 네놈한테서 그런 수작질을 당하
는것자체가 더없는 수치다. 내 모를줄 아느냐? 나

를 끌어가려는 그 꼴짜기에서 어떤 독버섯이 돌아
나고있는지를, 내 한생 지켜온 량심과 지조에 자족
과 안일의 마약을 발라 배은망덕을 암거래하려는놈!
어렵었다.- 나에게 서푼짜리 처세술 아닌 천만금
의 사치와 환락을 준대도, 백번 인생을 되풀이한대
도 한기발아래서만 숨을 쉴테다!》

유혹은 비실비실 물려서면서도 끈덕지게 다시 묻
는다.

《한마디만 더 묻자. 그래 도대체 그건 무슨 기발
이냐? 누가 너를 그 기발밑으로만 부른단말이냐?》

그러면 대답하리라.

...

《듣거라, 똑똑히!》

신념은 도고히

한마디한마디에 힘을 준다.

《그것은 마치와 낫과 함께

크고도 곧은 붓을 하나로 껴안은

우리 당의 성스러운 기치이다!

그 기발 높이 드신 위인앞에서

나는 일찌기

변치 않을 맹세를 다지였노라

그이가 누군가고?

그이는 나의 사상

나의 행복

그이는 나의 스승

나의 은인이시다!

세계가 다 안다- 그이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는

동지, **김정일!**

친애하는 우리의 지도자이시다!》

(《유혹과 신념》 1986)

그렇다. 우리 시대, 로동당시대는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시대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
자의 사상과 령도가 우리 시대의 본질을 규정짓는
다.

...

그대에게 스스로 끌린 심장이기에

그 누구도 못떠여낼 나는 그대 살붙이!

그대 강철의 조직에 순결한 립자!

그대 영생의 진리에 불붙는 녀이기에

그 빛발 안고 누리를 질주하는

나는 그대 불길! 그대의 열풍!

(《나는 조선로동당원이다》 1985)

...

영광스러워라!

반만년 민족사에

크나큰 경륜을 마련한 당이며

그대앞에 어찌

경모의 옷깃을 여미지 않으랴

그대앞에 어찌

거짓이 진실과 함께 설수 있다더냐

(《당에 드리는 노래》 1987)

위대한 당, 위대한 령도자를 모셨기에 우리는 지
구상에 탈을 바꾼 반사회주의망령들이 떠돌았어도
그것들의 꺾임수, 그것들의 오만가지 녀두리를 믿
지 않았고 오로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천리혜안
이 내다보시는 길, 그이의 철의 신념이 드림없이 확
인한 리상의 상상봉에 다달을 그날을 굳게 믿은것
이다.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불멸할 신념으로 량심으로
노래부르려다.

그 어떤 요설이 감겨들고 그 어떤 칼날이 목에
들어온대도 오로지 당을 믿고 따르며 당을 옹호할
것을.

만약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세계가 온
통 불안과 혼돈 속에 휘말리운다 해도 나는 그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러르리라. 그이께서 우리
신념의 화신이시고 의지의 화신, 량심의 화신이시
기때문에. 휘여넘어지려는 세기의 중심축을 다잡아
안으시여 여기 평양, 주체의 해불 타오르는 땅우에
바로세우신 사회주의령장! 혁명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그이는 우리 사회주의승리이시며 우
리 삶, 우리 생명이시기에.

나는 당이 바라고 의도하는것을 언제나 쓰겠다.
그 의도, 그 바라는바가 곧 나의 신념이기때문에...

나는 참된 량심으로 쓰려다.

작가가 량심적으로 쓴다는것은 자기 창작의 전과
정에 시종일관 견지하는 지조이며 청렴성, 결백성
이다. 그것은 그 어떤 저속한 유혹과 회유, 리기심
이나 명예욕, 금욕 등과도 타협할줄 모르는 로동당
시대 작가들의 고상한 창작률리이며 도덕이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에 부딪친다 해도 적들에게 굴복
하지 않겠다는 조선지식인들의 신념의 목소리, 량
심의 목소리-그것이 나의 목소리이다.

...나는 오늘 새로운 시 한편을 끝냈다. 나의 한생
에서 몇번째로 쓴 시인가?

나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이 시를 위대한 당에
드린다.

후더운 눈보라

신리섭

아늑한 정서를 자아내며 고요히 내리던 함박눈은 해질녘에야 멎었다. 발목이 잠기도록 내린 축축한 눈은 아이들의 놀음에 안정맞춤이어서 벌써 살림집 골목들에는 크고작은 똥똥보 눈사람들이 솟아 겨울의 풍치를 한껏 돋구고있었다.

그런데... 거리 골목마다에 어스름이 깃들무렵부터 술술 눈갈기를 일쿠기 시작하던 바람결이 날이 어둡자부터 성깔사나운 시어미 번덕처럼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였다.

남행렬차가 정시에 역구내에 들어섰을 때에는 눈보라가 뽕얇게 일어 눈이 그냥 내리붓는것만 같았다.

얼음을 품은 하늬바람에 마구 흐트러지며 태질을 당하는 가로수들과 그우로 꿈틀거리며 날려가는 눈보라의 아우성... 역구내 한쪽 변두리에 무저있는 파철무지에서 날려가는 함석조박들의 어지러운 소음으로 하여 더한층 으스스한 추위를 느끼게하였다.

렬차에서 내린 손님들은 모자귀덮개를 내리우거나 외투깃을 추켜올리고 차표받는곳으로 나서기 바쁘게 눈보라속으로 사라지곤하였다.

몹매가 후리후리한 화장품공장 기술준비실 실장 안정희는 나들문을 나서 잠시 주춤거리다가 그 본세대로 내치 걸었다. 갈길도 멀지 않았거니와 집을 떠나 먼곳을 다녀오는 모든 녀성들이 그러하듯 마음이 걸음보다 앞섰던것이였다.

한주일간에 걸쳐 도에서 진행된 경공업부문기술 일군강습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실은 하루 더 머물러있으면서 도소재지에 있는 경공업공장들에 대한 견학과 방식상학에도 참가해야겠으나 공장에서 벌려놓은 아릅찬 일감들이 그로 하여금 저녁차로 《도망》쳐오게 하였던것이였다.

그는 정초부터 비누생산을 비롯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 방도를 원료생산을 높이는데서 찾고 설비를 개조하는 일을 벌리였던것이였다. 이번 강습기간에 과학원연구사들의 방조를 받아 생산공정에 변성기를 새로 설치하면 비누원료실수률을 종전보다 배로 높일수 있는 방도를 찾는데 성공하였다. 그렇게만 되면 비누생산뿐아니라 다른 제품들의 생산량도 훨씬 늘어나게 될수 있었다.

그다음부터는 한시바빠 공장으로 돌아가고싶은 조바심이 물결치듯하여 더는 배겨낼수가 없었다.

더구나 그는 두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였고 한가정

의 세대주이고 주부였다. 중학교에 다니는 어린것들한테 가정살림을 맡기고 집을 떠나있는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가정에 대한 잔근심이 가셔질때가 없었다. 하루세끼 식탁에 앉을 때면 그 어린것들이 아침에 늦잠을 자다가 끼식이나 제대로 끓여먹고 학교로 갔는지, 밤에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자다가 물이라도 넘기지 않았는지... 무슨 걱정인들 안했으랴. 더구나 래일아침은 막내아들의 생일날이다. 제 생일날을 달력에다 빨간 원주필로 동그라미를 쳐놓고 기다리는 아이인데 어머니가 없으면 얼마나 서운해할것인가. 그러지 않아도 강습떠나던 날 제 생일날에는 꼭 돌아오라고 신신당부까지 하였었다. 이런 근심, 저런 걱정으로 잠 못드는 밤이면 안정희는 종당에 두해전에 세상을 떠나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어지곤하였다. 사람들이 기쁘거나 피로울 때에 부딪치게 되면 어쩔수 없이 가슴에 새겨진 그리운 련인을 생각하게된다는것이 실상 빈말은 아닌것 같았다. 물론 남편한테 가정살림과 아이들을 맡기고 떠나왔다고 하여 녀성본능인 그런 잔걱정이 없을리 만무하지만 그런 걱정이야말로 남편의 사랑과 믿음 속에 사는 녀성들만이 가질수 있는 행복인것이라고 안정희는 서글프게 생각하곤하였다. 집을 떠나 려관방에서 며칠밤씩 가슴태우는 이러한 모태김으로 하여 아릅답던 그의 이마와 눈가 장자리의 주름살이 늘어나고 값높은 청춘과 눈에 띄지 않게 한결음한결음 작별하는것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 사람들은 흔히 결늪는다고 한다.

역앞거리를 벗어나기전에 벌써 살품을 파고드는 하늬바람에 량볼이 알알해왔고 신발안에 눈가루가 날려들어가 발이 시리었다.

안정희는 역앞에 있는 공장당비서 림윤선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추워서만이 아니라 새로 착상한 변성기설치문제를 그와 의논하고싶어서였다.

공장에서는 당비서 림윤선이네 집을 가리켜 일명 《화장품공장려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역과 집이 멀리 떨어져있는 종업원들은 려행을 갈 때 저녁에 당비서네 집에 나와 자고 밤렬차나 새벽렬차를 타곤했고 밤차에 내리면 깊은 한밤중에도 려관으로가 아니라 당비서의 집문을 두드리곤하였다. 만약 종업원들중 어느 누가 당비서를 깨우는 것이 미안하여 역대합실에서 밤을 새우거나 려관에서 목게 되면 림윤선은 여간만 서운해하지 않았

다.

제작년 가을철이었다.

공장에서 한 청년이 앓는 어머니를 도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새벽차를 타려고 저녁에 나와 역대 합실에서 밤을 새운적이 있었다. 그때 림운선은 당회의에서 이 사실을 놓고 심각히 자기 반성을 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적이 있었다. 자기는 아직 당일군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노라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토록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따라배워 군중의 친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까지 제시하여주셨는데 자기는 그이의 뜻대로 일하지 못하였노라고 비판하였다.

회의를 지도하러 나왔던 군당의 한 일군이 그거야 어디 당비서의 잘못인가고, 그 청년이 환자가 있으니 미안하여 그럴수 있지 않았겠는가고 그를 위안하였다.

하지만 림운선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었다.

《아무리 밤이 깊어서도 어머니집방문을 두드릴 때 미안하게 생각하는 자식은 없고 옆에 있는 누이나 언니네 집을 뒤통고려관으로 찾아갈 동생은 없습니다. 제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친어머니, 친언니의 심정으로 당사업을 하였다면 어찌 종업원들이 저의 집문을 두드리는것을 미안하게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림운선의 가식없는 심심한 자책에 군당일군도 회의장에 앉은 당원들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이후부터 종업원들은 시도때도없이 당비서의 집문을 두드렸고 때로는 찬밥에 통김치 한가지로 끼를 때고서도 별식을 대접받았을 때처럼 마음이 흡족하여 편안히 자고 길을 떠나곤하였다.

안정희가 살림집 3층에 있는 림운선의 집문을 스스럼없이 밀고들어서자 훈훈한 공기를 앞세우고 중학교에 다니는 맏딸이 마중나왔다.

《아이, 영심이 어머니시군요. 강습가셨다가 오시는 길입니까?》

처녀에는 가방을 받아들며 안으로 이끌었다.

《그래 잘 있었니. 어머니 계시냐?》

《방금전에 공장에 나가셨어요.》

《공장에... 무슨 일이 있다던?》

안정희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되물었다.

《밥까지 싸들고 나가셨는데... 밤에 안들어오시려는지 아침밥까지 해놓고 나가셨어요.》

이때 숙제공부를 하드렸는지 연필을 손에 쥔 막내딸이 나타나 깡뚝이 인사를 한다.

《영복이 엄마, 우리 엄마가 영복이 생일이라구 물고기랑 사오구 그리구 만년필이랑...》

《?!!!...》

그 소리에 안정희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굽이 얼얼해왔다. 무릇 혼자 사는 녀인들이 생활에서는 자존심이 강하고 이악하나 이렇듯 못사람의 인정에는 언제나 가슴이 연연해지는 법이다. 당비서가 자기 아들 생일준비를 했다는 진실여부는 어쨌든 그 철부지 말 한마디는 그의 얼었던 몸을 녹이며 마음의 금선을 울려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는 눈물이 짙끔 솟아나는것을 애써 참으며 말머리를 돌렸다.

《아버지는 아직 안들어오셨니?》

《어제 낮차루 출장가셨는데요 뭐.》

《그래. 그럼 난 공장으로 나가봐야겠다.》

안정희는 수건을 꼭꼭 조여쓰며 가방을 받아들었다.

《추운데 들어와서 몸을 녹이고 가세요.》

큰애가 한사코 이끌었다.

그 어머니에 그 딸이라더니... 어쨌면 인정많은것조차 꼭 제어머니를 닮았을가.

《고맙다. 어서 들어가 공부를 하렴.》

안정희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저으기 초조하였다.

당비서가 밤참까지 싸들고 나간걸 보면 공장일이 몹시 긴장한 모양이었다. 직업적타성인지 안정희는 이름할수 없는 기대와 흥분, 불안과 초조감에 잠겨 추위도 모르고 공장에 다달았다. 하지만 공장구내는 조용하였다. 당비서의 사무실창가에도 그리고 현장에도 불은 꺼져있었다.

낯선곳에 처음 온듯 주위를 둘러보며 공장마당에 한동안 서있던 안정희는 현장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그순간 안정희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한주일전에 자기가 설비들과 부속품들을 현장에 날라다 놓고 떠났었는데 그 모든 설비들이 조립되어 형광등불빛에 파르스름한 광택을 뿌리며 완전한 흐름공정으로 안겨왔던것이였다. 안정희는 선뜻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믿지 않을수 없는 눈앞의 현실에서 그저 놀라기만 하였고 설비조립이 이렇듯 빨리 진척된것이 무등 기쁘기도 하였다. 다만 리해되지 않는것은 자기가 없을 때 누가 이렇듯 큰일을 해놓았을가 하는것뿐이였다.

큰 소가 나가면 작은 소가 대신하기 마련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인간생활의 부정할수 없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여직껏 안정희는 공장의 크고작은 기술개조사업을 벌려오면서 자기 손이 가닿지 않으면 안되는것으로 여겨왔었다. 그것은 결코 자기가 기술을 알고 경험이 있다고 자만하여서 가지게 된 신비주의도 아니며 공명심같은것은 더욱 아니였다. 원래 지방산업공장으로서 공장이 생긴 력사가 짧은 데다가 종업원 과반수가 가정부인들인것만큼 기술

기능수준이 높지 못했고 아직까지 기술력량도 원만하게 꾸러지지 못하였기때문이었다. 공장에 자격을 가진 기사라야 안정희 말고 단과대학을 나온 처녀 셋이 이 공장 기술진이라 할것이었다. 공장에 온지 한두해밖에 안되는 그들한테 공장의 기술문제를 의탁한다는것은 시기상조라고 여겨왔었다. 당의 경공업제일주의방침에 따라 공장에서는 지난해부터 그 《햇병아리》 모두를 기술준비실로 옮겨왔다. 식을 갖추어 말하면 《기술자돌격대》라 해야 옳을것이다. 안정희는 현실을 분석적으로보다도 해학적으로 대하는 그 《햇병아리》들을 데리고 인민생활에서 가장 선차적인 비누생산을 늘이기 위한 일부터 시작하였었다. 그 방도를 원료생산을 높이는데서 찾고 공정기술개조사업을 벌려놓은것이 지금 하는 일이었다. 여기에서도 역시 수고해야 할 사람은 안정희 자신이였다. 설계작성으로부터 설비조립에 이르기까지 크고작은 모든 일에 안정희의 땀과 손길이 닿지 않은데가 있었으랴.

《아니, 이게 실장동무가 아니우?》

하고 고장난 풀무소리같은 석실한 목소리가 등뒤에서 울려서야 안정희는 상념에서 벗어나 고개를 돌렸다. 공무반 수리공아바이가 다가오며 반색을 했다.

《방금 차에서 내렸어요. 그동안 많은 일을 해놓았군요.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허-수고야 기사동무들이 했지요. 거 류영이가 사 노력이 컸수다. 늘 현장에 붙어살았지요.》

《류영이동무가요?》

안정희의 검은 두눈에 의혹이 짙게 어리었다. 현장경험도 없고 아직 기계내숙을 잘 터득하지 못한 그가 이 모든것을 해놓았다는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었다.

《영인 집에 들어갔지요?》

《글쎄요... 웬걸 벌써 돌아왔겠소.》

《돌아오다니. 어딜 갔는가요?》

《오늘아침에 자전거를 타구 동중기계공장엘 갔수다. 뭐 변성기를 설치하문 원료실수물이 배로 높아지구 비누질도 좋아진다나요... 처녀가 이 눈길에 고생이 많게 됐수다.》

수리공은 세찬 바람이 유리창을 마구 잡아흔드는 박을 근심스러운 눈길로 덤덤히 바라보았다.

안정희는 뇌리에 강한 타격을 받았을 때처럼 머리가 멍해졌고 앞이 어질어질해졌다.

지난날 필요한 부속품들과 설비제작을 거의나 동중기계공장에서 가공하여왔던것만큼 영이기사도 자주 다녔기때문에 그가 동중기계공장에 갔다는것은 새삼스러운것이 아니였다. 문제는 다른 사람도 아닌 류영이가 변성기를 착상했다는데 있었다.

그것은 결코 안정희 자신이 러관방에서 며칠밤 모대기며 설계도면까지 쳐가지고는 창안품을 대학을 갓 졸업한 류영이가 앞서 도입함으로써 자신의 성과가 비누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데서 오는 리기심도 아니였다. 도대체 이 처녀기사한테 어데서 그런 창조적능력과 배심이 생길수 있었으랴 하는 점이 엄연한 현실앞에서 안정희로 하여금 아연케하는것이였다. 하다면 사람을 잘못 보았던말인가. 아니면 나의 마음속 한귀퉁이에라도 자신의 영예만을 먼저 생각하는 속된것이 남아있기라도 하단말인가. 공명심이라고- 아니, 나는 여직껏 살아오면서 자신의 명예를 두고 남의 눈치를 보거나 마음의 저울질을 하며 살아오지 않았어. 곤난앞에서 주저하거나 중요한적은 있었어도 성과앞에서 마음이 흔들려보지는 않았어. 기술자로서의 내 량심이 그것만은 허용안했어. 안정희는 기술자의 값높은 가치가 깨끗한 량심과 지조라면 가장 타매해야 할 수치는 공명을 앞세우는 사심이라고 생각해왔었다. 하기에 그는 남이 거둔 성과앞에서 언제나 사심이 없었고 공정했으며 다른 사람의 영예가 결코 자기의 영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녀자였다.

그자신이 대학을 졸업한후 집단의 방조의 도움속에서 오늘에로 성장하여온것만큼 새로 꾸러진 젊은 기술집단을 위해 자기 지식과 경험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왔던것이였다. 이번에 기술개조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는 네일 내일 가리지 않았고 그 성과를 누구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나 해보았으랴.

밖에서 왈가당 절가당 바람에 철판이 서로 부딪치며 뒤번저지는 소리가 벼락치듯 울려서야 안정희는 상념에서 벗어났다.

이밤, 사나운 눈보라길을 류영이가 돌아오리라는 데 생각이 미치자 그는 서둘러 작업장을 나섰다.

밖은 눈을 뜨지 못하게 뽕얀 눈보라의 장막속에 잠겨버렸다.

혹시 당비서가 류영이를 마중가지 않았을가.

생각이 여기에 닿자 안정희는 모든것을 잊고 도로를 따라 걸었다. 읍거리를 벗어나자 눈바람은 더 한층 사납게 불어왔다. 멀지 않은곳에 솟아있는 룡골산골짜기에서 치달아내린 바람이 우우-하고 기승을 부리면 해종일 내려쌓인 눈이 공중으로 치솟아올랐다가는 머리와 어깨우에 들쭉쭉지군하였다. 눈보라를 일으키는 세찬 바람은 뽕뽕 동여맨 털수건을 잡아채고 외투자락을 물어뜯으며 길옆에 태를 치듯 앞뒤좌우로 휘둘러놓았다. 눈바람을 맞받아 한발자국 한발자국 옮겨놓기가 힘들었다. 목에서 겨불내가 확확 일고 입안의 혀바닥이 탈탈 말라들었다. 그는 눈을 한웅큼 쥐여 입안에 넣고 목을 추

기군하였다.

안정희는 길우에 발자취가 없나 하여 눈여겨 살폈으나 눈보라에 흔적이 없었다. 이밤의 눈길우에 발자국이 찍혀있으면 그것은 꼭 류영이를 마중갔을 당비서의 발자취로 생각되었다. 날씨가 사나와서 인지 인적없는 도로에는 자동차불빛조차 보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안정희는 꼭 당비서가 앞서갔으리라고 믿고있었다.

그는 지난해말에 있었던 일이 돌이켜졌다.

그날 당비서가 찾는다는 기별을 받고 2층에 있는 당비서의 사무실로 향하던 안정희는 1층계단에서 림운선을 만났다. 림운선은 크지 않은 서류함을 안고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고있었다.

안정희는 얼른 달려가 서류함을 받아안으려했다.

《아니 그만두어요... 그럼 둘이서 맞들자요.》

두너인은 서류함을 랑쪽에서 맞들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실장동무가 아니였으면 땀줄이나 흘릴번했군요.》

림운선은 서류함을 제자리에 올려놓으며 발그레하게 상기된 얼굴을 돌렸다.

《저야 뭘...》

《아니야. 어려울 때일수록 의지하고싶어지구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그게 곧 힘이 되는가봐. 그래서 의지가 천양이라구 한다지 않아.》

그들은 이렇게 단둘이 조용히 마주앉게 되면 허물이 없었다. 나이도 동갑이려니와 마음이 통했다. 림운선은 기술문제가 제기되면 안정희를 찾곤했고 안정희 역시 림운선앞에서는 속마음을 숨기는데가 없었다. 혼자 사는 녀성들이 그러하듯 안정희는 남의 동정을 바라지 않는것만큼 남한테 자기 가슴속을 조만간 열어놓지 않는 성미였다. 녀성으로서의 섬세성과 기술일군으로서의 대담성, 사색과 행동이 안받침된 과묵한 성격에 별로 교체가 없는 조용한 녀자인 안정희는 성격이 언제나 락천적인데다 의협심이 강한 림운선이와 마주앉게 되면 저도 모르게 혼자 사는 외로움까지도 터놓게되는것이였다.

이날은 림운선이가 사업상용무로 그를 찾은것만큼 그가 많은 말을 하였다.

《정희동무를 만나자고 한것은 기술혁신조를 꾸리는 문제때문이야. 어때 류영이를 망라시켜보지않겠어?》

《영이를?...》

안정희는 뒤말을 더 잇지 못했다.

지난 가을에 단파대학을 졸업하고 현장기사로 일하고있는 류영이는 아직은 모든면에서 아는것보다 배울것이 더 많은 처녀이다. 그런 《햇병아리》를 데려다 머리수만 늘쿠어가지고 속을 태우느니 고생

이 있더라도 제 한몫을 감당할수 있는 사람들로 마음은 맞춰 일을 하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온 안정희이고보면 림운선의 물음에 선뜻 대답이 나올리 만무했다.

림운선은 안정희의 마음속에서 일고있는 변화를 들여다보기라도 하듯 크지 않은 까만 두눈에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물론 당장 제발로 걸어가기 힘들거야. 그렇다고 기다릴수야 없지 않아. 곡식도 거름을 주고 김을 매고 가꾸어야 빨리 자라는것처럼 키워야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 비서나 지배인만을 믿구 당의 경공업제일주의방침을 제시하시였겠어? 바로 당에서 돈을 들여 공부를 시킨 기술자들을 더 크게 믿으시지 않았겠는가 말이야. 류영이동무도 례외로 될수가 없어.

정희,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의도를 단순히 경제실무적인 문제로만 리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그것은 보다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그이의 위대한 사랑이야! 위대한 사랑, 이 사랑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알고 우리는 그에 보답하기 위해 있는 지혜와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해.》

림운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서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오늘날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이 무엇이겠어... 난 믿음이라고 생각해.》

정희, 돈과 채찍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믿음과 사랑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는것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진리야.》

뜻이 깊고도 열정이 넘치는 림운선의 말에 안정희는 커다란 감동에 휩싸였다.

그런 당비서가 이런 날씨에 류영이를 마중가지 않을리 만무하지 않는가.

날씨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었다.

엄혹한 자연은 눈보라를 맞받아 견고있는 이 녀인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가늠하기라도 해보려는듯 다시금 눈기둥을 말아올리며 달려들었다. 광풍에 날려오는 얼음가시돋힌 눈가루는 이마와 뺨을 땅벌처럼 사정없이 쏙쏙 찢러놓곤하였다. 그러한 순간에 눈을 뜨고있다면 아마도 얼음조각같은 눈가루는 검고 아름답고 영채도는 그의 눈동자를 꿰뚫을것만 같았다.

그렇게 한참 걷느라니 저기 들메나무고개중턱에서 불빛이 반짝 나타났다 사라지는것이 보이였다. 불빛은 다시금 나타났다가 사라지곤하였다. 누군가가 불을 피우려고 애를 쓰고있는것 같았다.

고립무원한 이밤, 사나운 눈보라속을 헤엄치듯

홀로 걷는 그한테 있어서 불빛은 눈물이 날만큼 반가웠다. 안정희는 불꽃이 일군하는곳에서 순간도 눈길을 떼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잠시나마 눈길을 해판데 팔면 그 불빛은 다시는 찾지 못하고 또 다시 바람과 눈보라와 어둠속에서 온밤 헤매일것만 같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한참후에야 불을 살구었는지 어둠을 헤가르며 불길이 타올랐다. 분명 사람의 모습이 얼씬거리는것 같았으나 몇이나 되는지 분간하기 어려웠고 말소리가 들려오는것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같기도 하였다. 걸음을 다그칠수록 불길은 점점 커지였다. 불무지는 고개산비탈 안침한곳에서 타고르고있었다. 한사람이 불무지걸을 서성거리면서 불을 살구고있었다. 누구일까. 이 령마루에서 류영이를 기다려 당비서가 불을 피우고있는것이 아닐까.

눈길우로 미끄러지듯 걸음을 다그치던 안정희는 불무지에 못미쳐 한자리에 서버렸다.

예측이 틀림없었다. 불을 피우는 사람은 당비서 림윤선이였고 류영이는 앉아서 불을 쪼이고있었다.

림윤선은 불속을 헤집고 잉결불을 모아놓고 그우에 밥그릇을 올려놓았다.

《갸던 일은 어떻게 됐니?》

《다 만들었더군요. 뭐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는 최우선적이라나요. 변성기본체는 래일아침 이리로 나오는 차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부속품들만 가지고 나왔어요. 부속품이라도 먼저 가지고 와서 기름칠이라도 해놓고싶었어요.》

《원 이 험한 날씨에... 힘들었지?》

림윤선이 다심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나무아지를 불우에 던져넣었다. 나무가지를 넣을 때마다 불길은 훨훨 고개를 쳐드는데 그에 따라 어둠은 점점 물러섰다.

《힘들었어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다려주는 사람, 마중나올 사람이 있다는걸 믿게 되니 힘이 생겨요... 전 비서동지가 마중나오실줄 알았으니까요.》

류영이는 뜨거운것을 삼키는듯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였다. 질은 그의 속눈썹에는 이슬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에도 아닌 뽀잇한 물기를 함함히 머금어서 포릿한 새까만 눈이 돋우보이게 했다. 얼굴을 반쯤 감싸고 코허리아래를 덮고있는 수건의 테두리와 수건짚으로 홀려내린 몇오리의 머리카락에는 새뽀얀 성예가 달라붙어있었다. 수건짚으로 반쯤나보이는 랑불은 열었다가 불을 꺾어서 잘 익은 복숭아처럼 발그스름하게 달아올랐다.

안정희는 꼭 친형제와 같이 다심한 그들의 모습에 눈길을 박은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안정희는 경험도 기술도 어린 류영이가 무슨 힘

으로 설비조립을 그렇게 빨리 해놓았는지 그리고 변성기를 설치할 기발한 착상을 했는지, 아니 그런 배심과 창조적지혜가 어떻게 생겼는지 비로소 이해가 갔다.

(당비서가 마중나올줄 믿었다구. 그래서 새힘이 생기더라란 말이지.)

안정희는 생각이 깊어질수록 지난날 류영이를 기술조에 망라시키자고 하던 때 림윤선의 말이 돌이켜졌다. 마음에 의지가 생기면 힘이 된다고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은 두터워진다고 하던 말의 참뜻이 헤아려졌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믿음, 그것은 정녕 우리의 힘의 원천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인간의 재능이 활짝 꽃피나도록 뜨거운 창조적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사랑속에 믿음은 두터워지고 두터워지는 믿음속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성장하고있는것이다. 류영이, 아니 우리모두가 그 사랑, 그 믿음 속에서 살고있기에 우리의 힘은 날이 갈수록 더욱 백배해지는것이고 조국은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오직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시는 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로운 품속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뜨거운 인간사랑의 결정체라는것을 안정희는 심장으로 받아안았다.

그 믿음의 진가를 미처 다는 모르고 살아온 자신을 비춰보며 스스로 가책을 금할수 없는 안정희였다. 어언중 그는 불신으로 해서 알궃해진 가슴을 안고 견학도 하지 않고 초조하게 달려온 자신이 민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이제 림윤선은 눈보라사나운 이 밤, 저희집으로가 아니라 또다시 안정희를 대신하여 아이들의 생일을 축하하여주려 갈것이다. 그는 림윤선의 집에 들렸을 때 큰아이가 래일아침밥까지 해놓았다고하던 말이 새로운 의미를 담고 돌이켜져 눈곱이 뜨거워졌다. 림윤선은 남편한테 가정살림을 맡기고 안정희가 강습가있는 기간 아이들의 적절한 감을 덜어주기 위해 밤을 보내준했을것이다. 숙제검열도 해주고 양말도 빨아주며... 생각할수록 안정희는 저 불무지를 통채로 그리안은듯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안정희는 환희라고만 할수 없고 행복감이라고도 이름할수 없는 크고 뜨거운 감정에 자신의 온몸이 용해되어 자기를 말짱 잊어버린듯하면서도 두근거리는 심장의 박동과 뺨에 느껴지는 후끈한 열기와 함께 그 어느때보다도 자신을 뚜렷이 의식하게되는 것이였다. 그는 유년시절부터 대학을 졸업할때까지 철따라 새 교복과 학용품을 받았을 때마다, 3대혁명전위로 첫기술혁신안이 성공되어 만사람의 박수

와 오랜 로동계급들이 자기 목에 꽃목걸이를 걸어 주었을 때,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당원증을 받아안고 당총회에 참가하였을 때 그리고 길지 않은 자기 생활을 돌이켜볼 때, 이와 류사한 감정을 허다히 체험하였다. 그러나 지금 느끼고있는이 감정은 이미 체험했던 그 모든 감정들과는 비길수도 없이 온넛을 승화시켜주면서 가슴도 몸도 커진듯한 자각을 느끼게 하는 말할수 없이 크고 뜨겁고 숭고한 감정이였다.

안정희는 자신을 더 자제 못하고 그들이 앉아있

는 불무지결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모닥불은 더 세차게 타올랐다.

때때로 모진 바람이 계정을 부리듯 그들의 머리에 차디찬 눈가루를 날려다 들썩우곤하였으나 그때마다 세 너인의 밝은 웃음소리가 분수마냥 더 크게 터져오르곤하였다.

그들의 웃음발이 날려가는 저기- 눈보라가 지동치듯하는 이밤도 거리의 창가마다에는 밝은 미소마냥 불빛이 따스히 흘러나오고있었다.

백두산으로 간다

(총련) 림유춘

우리는 길을 떠났다
니이가다향을 떠나
가고싶은 먼 길
그리운 조국에로의 길을

다심한 어머니의 바래움에도
방글방글 웃음뿌려 인사하고
하냥 즐거워
참새마냥 지저귀며
우리 서두른 길

동해의 푸른 물결 노래로 넘어
원산항기슭에 기쁨의 눈물 떨구고
다시금 마음을 재촉해
우리는 간다 답사의 길
보고싶던 백두산으로 간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
거기엔 조국이 걸어온 빛나는 력사가 있다
거기엔 조국이 걸어갈 휘황한 미래도 있다
거기엔 혁명의 1세대들이 찍어간 자욱이 있고
그들의 뒤를 역세계 이어갈
3세, 4세대들이 맹세로 걸은 자욱이 있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엔 준령도 많아라
백두산으로 가는 길엔 골짜기도 많아라
그 어느 준령
그 어느 골짜기
삼가 더듬어 살피면
거기엔 있으리 장군님따라 싸워온
투사들의 불굴의 넋이

백두산으로 가는 길엔 밀영도 많아라
백두산으로 가는 길엔 밀림도 많아라
그 어느 밀영의 천막가에도
그 어느 진대나무밑에도
삼가 더듬어 헤치면
있으리 조국을 안고 고동친
투사들의 숨결이 아직도 살아있으리

나는 백두산으로 간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 이어가는 길
위대한 수령님 열어놓으신 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빛내여가시는 길
나는 이 길을 따라간다

길이어, 백두산으로 가는 길이어
니이가다향을 떠나 동해의 푸른 바다 넘으며
랑만으로만 가득찼던 나의 마음
백두의 굽이굽이에서 무거워지고
조국을 위해 바쳐갈 뜨거운 마음
숭고한 맹세 깊어지나니

아, 나는 가리라 이 길로
이 길에서 백두의 의지 가다듬고
이 길에서 혁명의 신념 키워
내 흥안의 시절 다 지나고
머리에 흰서리 내릴 때에도
변함없이 길을 애국의 한생
가고가리라, 투사들이 열어놓은 이 길로

(필자는 조선대학교 문학과 학생임)

삶과 신념

최성진

아무리 봐도 스무살을 갓 넘겼더니 그아래로 보이었다. 작은 키에 오달진 체격, 학생시절의 때벗이도 채 못했을상싶은 애된 얼굴들... 우리들이 흔히 보곤하는 그런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뜻밖의 일로 조선서해의 파도우를 표류하던중 적들에게 억류되었다가 우리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조선인민경비대 전사들이었다.

텔레비죤화면으로는 분계선을 넘어오는 두 전사의 모습이 비쳐지고있었다. 평범한 전사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관문점에 나가있었다. 포옹! 또 포옹! 장하다! 잘 싸웠다! 저마다 보내는 격려와 환영의 인사!

단란한 가정의 분위기에 물젖어 즐거운 마음으로 저녁밥상에 마주앉았던 나는 그 광경에 가슴이 뭉클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나의 감정은 단순한 것이었다. 그들이 적구에서 고생이 얼마나 많았으라는 생각과 함께 그들이 오래동안 떨어져있던 친혈육이거나 한듯 당장 달려가 안아보고싶었을 따름이었다. 아직은 누구도 그들이 적구에서 어떤 일을 당했으며 관문점을 넘어서는 그들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알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분계선너머 남쪽 출판물들이 우리 경비대 전사들에 대한 자료들을 실었다고 한다. 신문들에 실렸다는 그것들은 극히 단편적인 사실들에 불과하지만 적들이 애어린 우리 전사들의 신념을 허물어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날뛰었는가를 알수있었다.

한 전사는 적들의 고문과 기만책동에 실수라도 할가봐 이발로 허를 끊으려고 했다고 한다. 심문을 하려드는 괴뢰 요원놈들앞에서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옹호보위해야 할 전사의 의무를 다했다고 한다.

과연 적들은 세뇌공작에 이골이 났다는 악질요원들을 내세워 회유기만도 하고 위협도 해왔지만 우리의 나어린 두 전사를 굴복시키지 못했다.

그 어떤 절해고도에 떨어진대도 최고사령관동지만을 믿고 싸울 전사들의 그 신념, 총대앞에서도 회유기만에도 흔들림없는 불변의 신념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신념이란 어떤 것인가? 이름없는 어린 전사들이 어떻게 되어 적들의 갖은 책동에도 동요없이 신념을 지켜낼수 있었는가?

영웅적인 삶과 신념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리인모동지가 떠오른다. 우리 혁명의 2세에 속하는 그가 적구에서 옥고를 치른것만도 34년이다. 인간의 반생을 초월하는 그 기나긴 세월에 비하면 그가 해

방된 조국에서 산 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짧다.

그가 옥중에서 당한 정신육체적고통에 대해서는 이미 세상이 다 알고있다. 초로인생이라는 옛 성인들의 표현도 있지만 반대로 장장 한생을 산다는 말도 있다. 범상한 인간이 백년을 살면서 온갖 희노애락을 다 맛보았다고 해도 저 남녘땅의 차디찬 감방에서 청춘기와 중년기와 상년기를 다 흘러보낸 리인모동지에 비길수 있겠는가. 기구한 운명의 극치로 세상에 알려진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바르장도 그가 한조각 빵때문에 치르어야 했던 감옥살이가 17년 세월이라고 보면 리인모동지의 옥중고초와는 대비도 안되는것이다. 바로 그 장구한 감옥생활 34년을 청소한 공화국의 품에서 산 5년이 이겨낸것이다.

이번에 적들에게 억류되었다가 돌아온 전사들의 경우는 그와 좀 다르다. 그들은 우리 혁명의 4세대라고 말할수 있다. 2세와 4세사이에는 결코 짧지 않은 공간이 놓여있다. 우리의 새 세대들은 망국노의 설음도 겪어보지 못했고 고난과 시련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 불타는 전호속에서 조국을 피로써 지켜낸 세대, 허리띠를 졸라매며 전후복구건설의 년대들을 지나온 세대의 위훈을 70년대에 태어난 세대가 어떻게 다 알수 있을텐가!

그런데 다른아닌 그러한 새 세대 전사들이 오늘은 적들과 싸워이기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하다면 신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세월이 가져다주는 것인가? 정녕 그런 것이라면 리인모동지의 그 5년이 어떻게 시련의 34년을 이겨냈을 것이며 아직은 인생의 초입에 들어선 어린 전사들의 신념이 그리도 굳건할수 있었단말인가.

아니다. 신념은 세월이 주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을 빛내여주는 혁명적신념은 침다운 위인을 어버이로 모시였을 때 가슴속에 자리잡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그의 믿음속에 살 때 자신의 행복도 조국의 찬란한 미래도 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기에 우리의 전사들은 적구에 떨어져있으면서도 신념을 변치않고 싸워이길수 있었다.

이렇게 놓고보면 리인모동지의 경우나 조선인민 경비대 전사들의 경우나 일맥상통한데가 있다. 리인모동지 역시 마음속에 항시 운명을 맡기고 따를 위인을 모시고있었기에 모진 옥고를 이겨낼수 있었

다. 하여 그는 죽어도 변치 않을 신념-그것은 **김정일** 장군님께서 주신것이라고 격조높이 노래한것이다. 위대한 령장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혁명전사들의 삶을 빛내여주는 신념의 원천이며 자양분이다.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서 영웅이 태어난다.

나는 오늘도 길거리에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전사들을 만나군한다. 그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저 전사들의 가슴마다에 친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믿고 따르는 불변의 신념이 억척같이 뿌리내리고있거니. 그 어떤 원수들이 우리를 당해낼수 있겠는가. 위대한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어있으며 전당, 전민, 전군이 하나의 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우리의 사회주의는 오늘도 불패이지만 래일은 더더욱 끄떡없을것이다.

그대 생의 마지막순간에

리광근

그리도 입버릇처럼 외우던 말을
그대 진정
생의 마지막순간에 남기고 떠난것인가
《**김일성**장군 만세!》
그 한마디를 혈서로 새기며

그렇게 남기고 떠난것인가
온몸에 속속들이 배인 그 말을
죽어도 고스란히 지니고 가자고
눈을 감아도 그 한마디 남기고 가자고
고진히-그대 피로써 새긴 글발이어

조국해방의 날에 제주섬을 달리며
장군님 만세를 목청껏 부르던
그대 그 심장의 목소리
은혜로운 장군님품에 안기여
목메여 부른 그 뜨거움도 들려오는듯

아, 그토록 뵈옵고싶던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산 기쁨
통일된 조국의 제주섬에
백마타신 장군님을 우러러모실
그날의 영광도 함께 담아

그렇더라
그리도 장군님을 우러르던 마음이기애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김일성**장군 만세!》로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던
그것은 그대 신념의 말이였거니

그대 남기고 간 그 한마디
생의 마지막순간에 쓴 한자한자에
나라의 통일위해 그리도 뉘엿던
그대 심장의 붉은 피
그대로 옮겨져 고통치는가

평화롭던 나날에
버릇처럼 나누던 인사말처럼
그렇게 조용히
이 땅을 떠나면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긴것이건만

그 누구 보라고
들으라고 남긴것이라
차디찬 감방벽에 새긴 한마디
생의 마지막까지 뗏뗏이 부르며 가자고
붉은피로 뜨거이 새긴것이구나

한목숨 살아 량심을 버리라
의리를 지켜 목숨을 바치리라
불타는 그 마음
한마디 이 글발을 남기며
혼자서 혼자서 조용히 떠났구나

그대 아이들과 만나고 헤어질 때
버릇처럼 나누던 인사말같이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저 홀로
마지막으로 남긴 그 한마디

그렇게도 불갈던 녀성혁명가
그리도 다심하던 수수한 어머니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저 홀로
한마디 남기고 소문없이 떠났거니

아 그렇게 혼자 조용히
한마디를 남기고 떠난것인가
《**김일성**장군 만세!》 그 한마디
이 땅 천만의 가슴가슴에
백마디 천만뜻을 새겨주었어라

영생하는 351 고지

로응렬

고지의 높이

녹슨 파편들 결채이고
가파로워 숨가쁜 오솔길을
한걸음한걸음
깊은 생각 밟으며
오르니 높기도 하여라 351고지

무수한 산발들
발밑에 흘렀구나
가렬하던 50년대의 나날은
세월에 실려
저 산발처럼 아득히
추억에만 남았던가

소중히 안겨오는
풀 한포기 돌 한덩이도
무심히 밟을수 없구나
영웅전사들의 넋이 스민 고지여

너의 높이
어찌 수자로만 헤아리랴
정점에 다 올랐건만
고지우에 영생하는 뜨거운 조국에

그날의 높이으로
로병의 이 마음 부르누나!

산딸기

영웅이 가슴에 안고 굳어진
이끼 덮인 어제날의 화점앞에
눈이 부시다
빨간 산딸기 산딸기

못잊을 옛싸움터에
무르익은 산딸기
열매로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생각이 뜨거워

그날에 뿌린
영웅의 붉은피 방울방울 맺힌듯
공격로 열어 행복에 겨웠던
그의 마지막 미소 어린듯

산천도 못잊어

세월도 지울수 없어
순결한 열매에 담아
그 위훈
세세년년 전하는것인가

아 영웅의 값높은 삶
꽃처럼 아름답고 빛나기에
내 성의껏 안고온 꽃묶음
화점앞에 정히 놓아준다

하건만
영웅의 넋이 뜨거워서이리
꽃보다 더 진하게
꽃보다 더 눈부시게
내 마음에 안겨든다
산딸기 산딸기 빨간 산딸기!

순간에 대한 생각

옛전호가 굵이굵이
걸음닿는곳마다에서
351고지는 말한다
순간이란
흘러가버리는
테사로운 시간의 한토막 아니라고

김인택영웅이 그려안은 화점
리능하영웅이 썼던 좌지
그날의 위훈안고
351고지는 전한다
당과 수령께 충성다한
그런 순간은
력사와 함께 영생한다고

열여덟 꽃나이와
구만리 앞날을 바꾸는
그런 순간을 걸기란 쉽지 않으리
그리운 어머니와
사랑하는 처녀를 두고
돌아못을 길 택하기란 쉽지 않으리

하지만
쉽지 않는 그 길을
쉽게 걸으라
고향집 프락에 들어서듯
정다운 교정을 거니듯

걸음 먼저 심장을 앞세우고...

그러면 그대는
처녀의 못잇을 애인
어머니의 참된 아들
당이 기억하고
조국이 자랑하는 아들되리

아 순간이란 얼마나 짧은가
그토록 짧은 순간에
영생하는 삶을 얻도록 살줄 알라
오늘도
351교지가 깨우쳐주는구나

축하비

351교지에 높이 세운
대리석 축하비
아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그날의 감사축하문
한자한자 다듬어 새겼구나

길지 않은 비문
마음속으로 읽어보노라니
고지를 뒤흔드는 포성
중기화점 불뿜는 소리
돌격의 함성
산발넘어 메아리쳐가는듯

금강의 일만 피부리
동해의 절경
멀리 뒤에 보는 기쁨도 커서
또다시 비문의 뜻 새기노라니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적방침 받들고

단 15분동안에 고지를 점령한
그밤의 공격전투
인류전쟁사의 새 기적 전하는가
공화국기발 세기의 하늘가에 휘날리는듯

저 룡선에서는
그날의 영웅전사들
불멸의 군상처럼
축하비 향해 경례불이고
화염서린 총구를 높이 흔들며
감격에 겨워 만세를 부르는듯...

아 351교지여!
이 나라의 수만 봉우리속에
이름도 없던 너는
수령님의 감사와 믿음 새긴
영광의 저 축하비와 더불어
오늘은 영웅의 고지로 높이 솟아있구나!

50 년대의 그 언덕에서

리영권

태어난 년대도 아닌
전사한 년대도 아닌
인민군렬사가 서있는 돌기둥엔 새겨져있다
1950-1953

그 누가 잊고 살랴
전쟁의 나날이 아니던가
이 나라 청춘들 쏟아지는 불비앞에
서슴없이 가슴 내대였던

3년 세월
짧아도
조국의 운명을 관가리했기에
아까운 청춘들이 생을 내댈 그 세월
꿈같은 오늘의 생활을
목숨바쳐 이어준 그 나날이 새겨져있다

세월이 흘러도
가장 준엄했던 이 나라의 한시기를

생의 구간으로 펼쳐놓고
 렬사는 오늘도 여기 서있다
 금문자로 새겨놓은 그 년대
 조국 위해 가장 빛나게 산 병사의 시절
 50년대의 그 언덕에서 내리지 않고
 렬사는

내 청춘기의 세월을 이어준다

오, 조국을 위해 살줄 아는
 조국을 위해 바칠줄 아는
 빛나는 삶의 시절을

답시

포로 심문 속기록

-화선시첩에서-

김병만

-너의 국적은?
 -미합중국
 -소속과 직무는?
 -미해병사단산하
 련대작전장교

이렇게 시작되었다
 지난밤 습격조용사들
 자루속에 갇혀온
 미군장교놈에 대한
 인민군전사의 심문은

시골학교 영어교원이었던
 심문자-전사는
 제법 틀잡힌 언동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따진다

-가던 목적지는?
 -련대본부
 -출발한곳은?
 -사단참모부
 -게서 한 일은?
 -새 극비작전과 관련한
 최종작전토의...

피차가 군인들이라
 긴 말은 오가지 않았다
 군인 본도 그대로
 물음도 대답도 짧았으나
 뜻은 막힘없이 통했나니
 심문은 줄달음쳤다

-그 작전 이름은?
 -《태풍-1호》
 -작전개시 날자와 시간은?
 -래일 새벽 5시

미처 묻기 바쁘게
 줄줄이 늘어놓는 진술에

전사는 승리자의 패감에 앞서
 놈의 비굴성에 기분 잡친듯

-듣거라, 너 이놈
 명색이 장교인 네가
 그리도 중한 군사비밀
 그리도 쉬이 부느냐?
 -인민군전사님께서
 솔직하면 살려준다기에

-《태풍-1호》작전이
 풍지박산 된다는 생각
 꼬물만치도 안하구?
 -원 전사님두 별말씀을
 미국이야 백번 망한대두
 나만 살면 그만인걸요

-왓 하하하
 쓰거운 웃음사태 터뜨린 전사
 썩을대로 썩은
 미국식 인생관이 역겨웠던가

벌떡 자리차고 일떠서더니
 놈을 발밑에 굽어보며
 엄숙히 던지는 마지막 말
 재판관의 판결같이 울려라

-명심하라
 오늘은 너 한놈이
 내앞에 무릎꿇고 심문 받지만
 래일은 침략자 미제국주의가 통채로
 우리 인민앞에 꿰어앉아
 준엄한 심문을 받으리라라는것을

이렇게 끝났다
 세계 《최강》을 떠벌이던
 미제 정예사단의 장교놈에 대한
 조선인민군전사의 심문은

대답

신국봉

씨앗도 봄철에 심어주면 가을엔 열매로 대답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말 못하는 식물이지만 키우고 가꾸어주면 은혜를 알고 제때에 보답할줄 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손녀가 어느 한 시인의 시집을 읽어 보고 할아버지도 시를 많이 썼는가 하는 물음에 그렇다고 너무 쉽게 대답해버리었다. 뒤늦게야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경솔해진 자신을 깨닫고 얼굴을 붉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따사로운 사랑의 품이 없었더라면 시라는 말조차 몰랐을 나로서는 깊이 생각하고 대답을 했어야 했다. 그 크나큰 은혜를 헤아리기전에 몇편 되지도 않는 미숙한 작품들부터 먼저 머리속에 떠올렸던 것이다.

송구하고 죄스럽기 그지없었다. 어린 손녀앞에서 늙은것이 무슨 실언을 했는가.

조국보위초소에서 총을 잡고 싸우다가 중상을 입어 제대된 나의 마음속에는 언제부터인지 시를 쓰고 싶은 희망이 누구도 모르게 자리잡고있었다. 그러나 그 희망을 꽃피우기엔 너무도 늦은 나이였다. 하지만 어머니당은 나의 속깊은곳에 가리워져있는 희망까지 속속들이 헤아리었다. 아직 늦지않았으니 시를 배우라고 문학작품을 전문으로 편집출판하는 출판사로 이끌어주었다. 하여 나는 당의 한없는 사랑속에 문학수업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였다. 편집사업은 나를 독자로부터 작가적인 안목을 가지고 작품을 대하며 시세계를 알게 하는 문학의 활주로였다. 결국 나는 문학작품편집사업을 통하여 하나의 대학과정을 마친셈이다.

욕망만 앞서고 축적이 없던 나를 시세계의 높은 경지로 이끌어준 스승은 다름아닌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이시였다.

영광찬란한 우리 혁명의 년대기우에 빛나는 폐지들로 아로새겨진 1960년대 중엽부터 나에게는 그이의 문학예술혁명위업을 일선에서 받들어가는 무상의 행운이 차려졌다.

어린 학생들의 작품을 읽고도 대안을 줄수 없어 어쩔줄 모르던 내가 그 거창한 사업의 한복판에 서서 혁명문학을 건설하는 역군으로 되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운명에서, 인생행로에서 비약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로 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지던 그 나날은 나의 한생에서 가장 보람차고 행복한 시절이였고 나의 문학세계가 한껏 넓어진 시절이었다.

나는 전문창작가도 아니요, 이름난 시인도 아니

다. 하지만 편집사업으로 지금껏 살아온 인생길을 돌이켜보면 후회됨이 없다.

지금 분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못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름있는 시인들과 소설가들 대다수가 어제날의 문학통신원이였으며 그중에는 내가 군중문학작품편집원으로 있을 때 햇순처럼 세상에 얼굴을 내민 사람들도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바로 그 어린 싹들에서 앞날의 재능있는 작가를 찾아내시여 우리 편집원에게로 보내주시고 문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도록 온갖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그 사랑, 그 믿음 속에서 재능이 활짝 피어나 시대의 가수로 당의 작가로 성장한 어제날의 문학통신원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저도 모르게 한가득 차오르는 긍지와 보람으로 가슴들먹인다. 그들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며 그들의 성공이자 곧 나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나도 시를 알며 시대를 노래할줄 아는 문학인으로 자라났다.

나는 시인으로서 세상에 이름을 날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 대가나 문호에 못지 않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여 가꾸신 주체문학의 대화원에 한가닥 해살이 되고 밑거름이 되었다면 그이상 큰 영광과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나도 시를 쓸것이다. 이제는 내 나이 70개에 이르렀으니 주옥같은 시어들을 다듬어 시집한권을 내고싶은 생각도 없지 않다.

지주집 꿀머슴으로 학교문전에도 못가본 나를 당원으로 키워주시고 문학전문가로 키워주시고 시세계로 이끌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전쟁로병의 송가를 그이께 삼가 올리고싶다.

하지만 아직은 받아안은 사랑과 배려에 비추어 볼 때 너무도 마음의 준비와 기량이 어린것이다.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도 철이 못든다고 하더니 이런 경우를 두고하는 말인가싶다.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인간사랑의 세계, 무비의 담력, 불멸의 업적을 심장에서 솟구치는 붉은피로 구가할수 있게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시인이라고 뿔뿔이 사회앞에 말하련다.

바로 그것이 복받은 한생을 살아온 인간으로서 사회앞에 주는 대답이 아니겠는가.

오늘은 비록 손녀애에게 경솔한 대답을 하였지만 미구에 나는 시대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할것이다.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을...

평양은 무엇을 하고있는가

김석천

불을 안은 구름장들
이 땅 가까이로 떠돌고
칼을 품은 우뢰소리가 50년 그 여름처럼
산너머 지척에 울리는 시각
평양은 지금 무엇을 하고있는가

미친 바람이 불든말든
평화로운 산원의 추녀아래선
새생명의 고고성이 요람을 흔들고
세상천지가 흔들리고 뒤집혀도
새 거리 창문을 달기에 바쁜 평양

새벽의 소요속에 들려오는
학습당의 청아한 종소리
새날의 대문이 열리는 그 소리와 함께
경쾌하게 퍼져가는 궤도전차의 동음
활기에 찬 출근의 발걸음소리...

모르는가 아니면 잊었는가
정부청사의 커다란 책상우엔
아이들의 여름옷도안이 펼쳐지고
인민무력부의 작전대우엔
발전소건설장에 보낼
새 부대 편성안이 놓여지고...

오, 침략의 포성이 발밑을 흔들어도

놀라지 않아라
우리 평양!
평양은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배심 든든히
자기 식의 생활을 펼쳐가거니

깨우지 못한다
원썬들의 포성이 울부짖어도
꿈나라로 날으는 우리 아이들의 단잠은
가리우지 못한다
침략의 핵구름이 밀려온대도
비둘기떼 날으는 우리의 푸른 창공은

위대한 령장을 모신 궁지로
가슴 펴고 사는 땅
당장 하늘땅이 꺼진다 해도
우리는 이긴다!
이 노래로 숨결높은 승리자의 도시

온 세계의 원썬들이 포위환을 둘러도
태연히 웃으며 서있는 평양
여전히 하늘엔 은빛지붕이 오른다
거리엔 아이들의 취주악이 울린다
우리 평양의 한복판엔
오늘도 승리의 기념탑이 높이 서있어라!

나의 기쁨, 나의 보람

황승명

오늘도 차판 가득
온 나라에 실려가누나
내가 만든 화장품들이

향기로운 비누, 치약
백설같은 분, 크림
그앞에 피어나는 웃음이
내 눈앞에 어리누나

비단짜는 그 마음 비단보다 고우니
더 예뻐져야 할 이 나라 처녀들이다

꽃밭처럼 포전을 가꾸며
만풍년을 가꾸는 수고많은 그네들이
세상에서 제일로 환해야 할 사람들이다

세월이 없어준
늙은이의 백발도 다시 검어지리
눈가의 잔주름도 없어지리
꽃같이 피어나는 이 땅 누구나의 모습에
나의 행복도 기쁨도 있어

세월과 함께 먹는 나이는

누구나 멈춰세울수 없어도
나의 정성은
흘러간 젊음도 되찾아주리

온 나라의 그 기쁨을
한가슴에 안고
내 언제나 웃음을 못거두는
나의 기쁨, 나의 보람

아, 오늘은
경공업제일주의 그 믿음 안고
기대마다 만부하를 걸었으니
크나큰 그 믿음의 첫자리를
위훈의 첫자리로 빛내일 생각
그 한생각에 사는 내 마음이에요

그날의 대답을 생각하며

리상림

불을 적시는 눈물을 서로서로 닦으며
우리는 그날에 말하리라
그립고그립던 마음을 터놓으며
그들은 나에게 물으리라

떠들썩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넘친
저 날아갈듯 솟아오른 소년궁전을 두고
충계마다 걸음 멈추며
그들은 물으리라

싱싱한 꽃들이
저 화분마다에 피어난 통일거리
아슬한 로대우에 손을 얹으며
관개수 흘러넘치는 어느 둔덕길에 올라서도
그들은 물으리라

학교가는 아이들
씩씩한 노래소리를 두고도
분주히 들려오는
산너머 프락프르의 동음소리를 두고도
그들은 물으리라

아 통일의 그날 가슴 불안으며
나에게 물을 그들의 그 말을 귀전에 들으며
나는 오늘도 본다
피흘리는 남녘의 형제여
숨막히는 최루탄의 연막속을 뚫고
깨어진 포도석을 쥐어뿌리며 놈들과 맞서는
그대들 가슴에서 흐르는 피를

나는 이밤도 본다
먹여살릴 처자의 설음을 안고
비오는 거리에 앉아버티며
삶과 민주를 부르짖는

그대들의 피타는 목소리를
죽어도 통일된 조국의 품속에 안겨살
간절한 그 소원이 불사의 의지되어
피어린 길을 열어 꿈처럼 맞이할
아 통일의 그날이여

불을 적시는 눈물을 닦으며
반기며 예워싸는 혈육들
락원의 강산을 바라보며
그날에 그들은 나에게 물으리라

이 거리들을
이 집들을
이 공장들을
일떠세우는 그날에
그대는 어디서 무엇을 하였느냐고

내 흘린 땀을 두고
내 바친 노력을 두고
그 모든 곳곳에서
조국의 위훈을 새겨보며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무엇으로 대답할것인가

나는 오늘도 그날의 대답을 생각하며
구름이 스쳐가는 트라스우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휘어잡으며
쏟아지는 용접의 불꽃을 날린다

바로 이 거리를, 이 집을
형제들이 피흘리는 그날에
우리는 세웠노라-
땀땀이 대답할 그 말을 생각하며

전선을 넘어온 마지막 사람

정성우

햇숨같이 부드럽고 포근한것이 랑볼을 어루만지는 듯한 촉감에 진성은 가느스름히 눈을 떴다. 소독약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맥없이 눈꺼풀을 들어올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온통 흰색천지다. 하늘을 태워버릴듯 붉게 타던 화염은 여기에서 찾아볼수 없었다. 총소리도 따라서지 않았다. 아이들은 또 어디로 갔는가?

(...?!)

방금전까지만 해도 비맞은 참새처럼 파들거리던 애들이었는데...

《정신을 차렸군요.》

아침이슬을 머금은듯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살며시 귀전에 닿는다.

진성은 두눈의 정기를 모아 앞을 쏘아보았다.

《여기가 어디요?》

하얀 위생복을 산뜻하게 입은 처녀가 발뼘발뼘 다가들어왔다.

《군의소예요. 정찰병동지는 닷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전선을 넘어었어요. 그때부터 군의소에 있지요.》

귀안이 쩍 열리더니 무수한 전류의 흐름이 고막을 짹 메웠다.

(군의소-그럼!)

물먹은 담뱃처럼 마음의 탕개가 스르르 풀어졌다. 다음은 허탈감으로 하여 몸이 천길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듯했다.

《정찰병동지는 온 군의소에 영웅으로 소문났어요. 모두가 다 동지의 소생을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렸다고요. 전 동지의 담당간호원이예요.》

착잡해지는 심리의 파동속에서도 처녀의 그 말은 진성의 귀에 똑똑히 들려왔다. 그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뭐-영웅?)

저도 모르게 픽하고 허구픈 웃음이 피어났다.

진성은 침대모서리를 부여잡고 가까스로 일어나 앉았다. 머리가 휘 돌았다. 발밑으로 호실바닥이 떠나려가는듯했다.

《동지가 데리고 전선을 넘어온 아이들은 오늘아침 학원으로 떠나보냈어요. 가만, 부대에서 정찰부장동지가 나오셨어요.》

처녀는 그제야 생각난듯 밖으로 뛰어나갔다.

얼마 안있어 멀리 복도끝에서부터 성급한 발자국

소리가 쿵쿵 가까와진다.

《진성동무!》

뜨거운 열과가 호되게 머리를 후려치며 발끝이 찢히해왔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만. 장하오 진성동무, 동무들은 최고사령부의 작전적방침을 훌륭히 관철해냈소!》

부장은 싸움군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로 덮쳐안을 듯 다가섰다.

《정찰조의 모두가 다 영웅이요. 영웅!》

진성의 눈굽은 불시에 따라와났다. 불덩이같은것이 목안으로 울컥 치밀어올랐다.

《적들의 세군탄저장고가 폭파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부대에서는 지체없이 구호조를 파견했소. 흔적을 따라가던 구호조동무들이 숲속에 쓰러진 동무와 아이들을 구원했소. 다른 동무들은?...》

진성은 부장의 눈길을 조심히 마주보며 천천히 일어났다.

《그들은 다시는 못올길을...》

오열을 씹어삼키던 진성은 피가 튀어나올듯 또박 또박 말을 이었다.

《저때문에... 전 군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부장은 흠칫 몸을 떨었다. 몸을 바로세우는 그 서슬에 길게 우로 찢긴 눈섭이 꿈틀거린다. 방안의 공기가 썰렁하게 얼어들어왔다.

진성은 휘청거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옮겨 창턱에 붙어섰다. 군의소앞 둔덕에서 금실거리던 속새꽃들이 돌개바람이 휘몰아치자 파도처럼 뒤채인다. 그속에서 조혁철조장과 리형수의 얼굴이 우뚝이 떠올랐다. 바람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가싶다. 조혁철조장과 리형수가 멀리 하늘위로 올라간다. 환영처럼 자꾸만 눈앞을 어리치는 동지들의 모습에 진성의 입안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쓰라린 자책이 심장속 깊은곳에서 또 다시 피투성이가 되어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전전선에 걸쳐 쓰디쓴 패배만을 거듭해온 적들은 그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치밀리는 살인각본들을 연출해내기 시작했다. 그 하나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대규모적인 세군전이였다. 적들은 해외로부터 막대한 세군단들을 끌어들이는 한편 곳곳에 세군 실험소를 꾸려놓고 그 제작과 생산을 다그쳐대고있었다. 적후에서 활동하던 많은 정찰병들이 최고사

령부의 작전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세균전이 다그쳐지고있는 계선들로 침투되어 들어갔다.

《ㅎ》 지구로도 세명으로 구성된 정찰조가 파견되었다.

조의 임무는 적들이 은밀히 준비해오고있는 세균전을 현재선에서 완전히 저지파탄시키기 위해 세균탄저장고의 위치와 작전실행정형을 알아내는것이였다.

전선을 돌파한 정찰조는 부대와와 첫 무선교신중 이동용 전파탐지기를 앞세운 적수색대와 조우했다. 전투에서 무선기가 파괴되였다. 수색대의 출현에서 정찰조는 아주 중요한 군사대상이 가까운곳에 있다고 판단했다. 정찰조는 감시정찰과 지형정찰을 면밀히 하였다. 판단은 정확했다. 그들은 세균탄저장고의 위수구역안에 들어와있었던것이였다. 드디어 저장고 경비중대와 적사령부가 통하는 전화선을 찾아내어 중요한 정보를 얻어냈다.

《ㅎ》 지구에서 벌리고있는 작전의 담당관인 일 본인 세균전문가가 방금 저장고를 향해 군단에서 떠났다는것이였다. 정찰조는 재빠른 기동으로 검문소를 통과한 담당관의 승용차를 도로옆에 세웠다. 현병완장을 두른 그들에게 운전사가 반항해나섰으나 잔등깊이에 단도가 박히였다. 담당관은 자루속에 들어갔다. 전선을 넘어올 때 가져왔던 전투기재들을 승용차에 실어 철저한 위장으로 숲속깊이 은폐시킨 그들은 발등을 잠그는 락업을 밟으며 강행군을 들이댔다. 가랑잎 썩은물이 질적하게 올라오는 음침한 숲사이로 해별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때에야 조혁철조장은 이마에 흥건히 돌아난 땀방울을 손등으로 훔치며 큰바위를 눈으로 가리켰다. 《내려놓소. 여기서 심문해야겠소.》

진성은 땀개치듯 자루를 내려던지고 허리를 폈다. 뒤따르던 리형수가 자루목을 풀어주었다. 이마가 흘렁 벗어지고 목이 양바탕한 중년의 사나이가 전기에 감전된듯 급히 자루를 헤집으며 일어섰다.

《명성》에 비해 외형이 너무도 초라했다. 흡사 전쟁전 만화책에서 나오군하던 산골지주를 연상케 했다.

놈은 눈을 찌프리며 나무들사이로 드문드문 보이는 하늘을 향해 얼굴을 쳐들었다.

《놀라지 마시오. 당신은 체포되었소.》

조혁철의 말을 리형수가 류창한 일본말로 통역했다.

《당신의 이름은?》

《...》

《심문에는 순순히 응할수록 자신에게 유리하다는걸 상기시키시오. 당신의 이름은?》

세쌍의 차거운 눈길이 일제히 놈의 얼굴우로 날

아갔다.

《요시다 도시히로. 이젠 뭐요?》

도시히로는 세모진 턱을 우로 쳐들었다.

《우리는 당신들이 준비하고있는 세균전을 파탄시킬 목적으로 여기로 파견되어온 인민군정찰이요. 임무수행을 위해 세균탄저장고의 위치와 작전실행정형부터 알아야겠소.》

도시히로는 쓰거운듯 얼굴을 한옆으로 돌렸다.

《난 민간인이요. 항의하오. 이젠 신성불가침이요.》

《오, 이젠 첫 대면부터 언어불통인데...》

《그렇다면 좋소. 난 무역관계로 이곳에 온 시모사키 무역회사 출장원이요.》

《잔꾀를 부리지 마오. 도시히로, 다시 물겠소. 당신이 저장고로 가는 목적은?》

《돈이 요구된다면 얼마든지 빌려줄수 있소.》

조혁철은 조소의 코웃음을 쳤다. 눈에서 예광탄줄기같은것이 뿜어나왔다.

《이 무인지경 수림속에서도 옛사무라이 후손임을 자각하고있는 당신을 아마도 본국에서는 평장하게 표창할게요. 당신의 생명은 그 표창보다 중요치 않단말이지-》

조혁철은 허리에서 단도를 쭉 뽑아내어 뽀죽한 끝으로 도시히로의 심장부위를 건드렸다. 선풍한 비수끝이 닿자 놈은 막대기를 삼킨것처럼 꾹꾹해졌다. 눈이 당장 밖으로 튀어나올듯 커지더니 까만 동공이 가운데 모여 파들거린다. 마른침을 꼴깍 삼키던 놈의 눈은 다시 여유있게 찌프려졌다.

《당신들의 훌륭한 전화도청에 탄복하게 되오. 그렇소. 난 세균전문가입니다.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세균탄들은 비행장으로 실어갈수 있게 준비되었습니다. 래일아침부터 비행장으로 실어가는데 그러면 그것들이 작전지역에 떨어져 수백만마리의 모기, 파리, 벼룩, 쥐들로 변하지요.》

놈은 야스꺼운 웃음을 불편우에 그리며 혁철을 할기죽 흘겨보았다.

진성은 불달린 도화선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혁철에게 얼굴을 돌렸다.

《흥, 여보 도시히로, 당신이 이죽거리기엔 아직 이르오. 우린 세균전을 파탄시킬테요.》

말꼬리를 길게 끄는 혁철의 눈길은 도시히로의 얼굴우에 그대로 박혀있었다.

《...!》

반들거리는 놈의 눈빛은 방황하기 시작했다.

《왜 비행장으로 가지 않고 저장고로 가오?》

도시히로는 혀끝으로 입술을 추기고나서 혁철을 피곳 치며보더니 아침기어린 상냥한 소리로 간질거렸다.

《미안하오만 당신들은 늦었소. 작전은 이제 12시간후면 개시될것ियो. 이 시간에 어떻게 작전을 저지시키겠소?》

도시히로의 눈은 혁철을 조롱하듯 자글자글 끓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오.》

총알같이 내쫓는 혁철의 말에 도시히로는 머리를 떨구었다.

《새형의 세균탄들이 또 들어와있습니다. 그것들의 성능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겠기에... 현재 세균실험소에는 고아원에서 데려온 〈통나무〉들이 전부 실험에서 얼마간 남아...》

놈은 여기에서 말을 끊고 자기의 실언을 그제서야 깨달은듯 얼굴을 약간 붉혔다.

《미안합니다. 이제는 늘 버릇이 돼놔서... 거기엔 아이들이 몇명 남아있습니다. 내가 도착하는 즉시로 데려다가 새형의 세균탄성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흠칫 몸을 떨던 혁철은 도시히로를 노려보며 종이와 연필을 내밀었다.

《저장고와 실험소, 그것들의 위치와 략도, 경비상태를 그리시오.》

《나의 생명을 어떻게 담보하겠소?》

《당신은 명리한 사람ियो. 그러나 진술의 정확성여부로 생명의 안전이 담보된다는걸 명심하오.》

도시히로는 종이에 머리를 바투 가져다대고 부지런히 손을 놀렸다.

《저장고로 통하는 입구는 이 하나뿐ियो?》

《난 공병기사가 아닙니다.》

손바닥을 펴보이는 도시히로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나왔다.

푸른 숲이 끝나는 저 멀리 운무속에 잠긴 복덕하늘을 바라보는 진성의 기억속으로 젖살이 보도동오른 량쪽볼에 보조개를 그리며 동구뺨까지 따라나와 손을 흔들어주던 동생의 모습이 아슬아슬하게 살아움직이었다.

작전이 이처럼 빨리 시작될줄은 몰랐다. 세균탄이 비행장으로 실려가는 경우 정찰조는 세균전을 좌절시키지 못하게 된다. 폭탄과 포격에 폐허가 된 땅에서 모든 생명체는 끝장을 보게 된다.

진성은 깔고앉은 마른풀을 한웅큼 잡아비틀어 뜯으며 두눈을 꼭 감았다.

파리며 모기, 메뚜기들이 고향의 하늘가를 짹 덮었다. 쌍태머리 달랑거리며 마당가에서 놀던 동생의 잔등우에 모기 한마리가 달라붙는다. 소녀의 얼굴이 피기 한점없이 하얗게 질려갔다. 주춤거리며 그자리에 스프르 주저앉던 소녀는 고사리같은 작은 손을 들어 누구인가 안타깝게 부르듯 허우적거리

다. 이어 수많은 모기떼들이 동생의 몸에 달라붙었다. 동생의 바스라진 울음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진성은 몸서리치며 피로운 상념의 진창속을 빠져나와 눈을 떴다.

고요한 숲사이로 뚫고 들어온 한줄기의 해별이 눈을 아리게 지졌다.

가슴속 깊이에서 더운피가 용암처럼 끓어번졌다.

진성은 다급한 눈길을 조혁철에게 보냈다. 말없이 숲속을 거닐던 혁철은 결연히 머리를 들고 숯불처럼 이글거리는 눈으로 조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저장고를 폭파해버려야겠소. 포로의 진술부터 확인해야겠소. 내가 갔다오겠소. 다음엔 실험소에 있는 아이들을 리형수동무가 구출해내와야겠소.》

혁철은 작전가방을 벗어 한손으로 받쳐들고 그우에 지도를 펴놓았다.

《세균탄저장고는 이 지점에 있소. 그리고 실험소는 여기, 동서로 갈라져있거든, 이 중간위치는 어딘가?》

그는 지도에서 한점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기, 칼봉ियो. 접선장소는 칼봉 정점 독립수밀ियो. 각자는 임무를 수행하고 오늘밤 24시까지 도착해야겠소. 정진성동무는 포로를 압송하여 칼봉으로 먼저 가서 대기하시오. 차후 전투조직은 다시 만나서 합시다. 빨리 떠납시다.》

진성은 한순간 자신을 다잡지 못하고 조혁철조장을 낫뺀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돌연히 바람부는 언덕우에 홀로 선듯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해졌다. 조혁철조장은 정찰병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너무도 무시하고있는것만 같았다.

떠나기 앞서 리형수는 진성을 가까이에서 불러세우며 턱으로 도시히로를 가리켰다.

《저자의 눈엔 아직도 살기가 풍진단말이야. 절대로 적을 과소평가하지 마시오. 호랑이는 쥐를 잡아먹을 때도 자기의 재능을 깡그리 발휘한다 했소. 순간도 해이되지 말고 고삐를 단단히 조이라구.》

형수는 두눈을 습벽 감았다뜨고는 뒤로 돌아 산발을 타기 시작했다. 진성은 형수의 뒤를 이윽토록 바라보며 산을 내렸다. 잡초무성한 쑥대밭에 들어서자 조혁철은 진성을 불러세웠다.

《적후에 들어와 수행하는 임무는 어느것을 막론하고 생사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임무요.》

혁철의 부리부리한 눈동자에는 다심한 기대가 찰랑찰랑 고여있었다. 문득 병사시절 처음으로 사격진지에 나가던 때가 눈앞으로 밝혀왔다.

그때에도 혁철은 지금의 저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는가.

조혁철과 헤어진 진성은 포로를 앞세우고 산릉선

을 타기 시작했다. 산고지를 따라 꾸불꾸불 올라간 도로로 보위색 풍을 썩은 차들이 이따금 내려오곤 했다. 적3제대 도로의 한낮은 고요했다. 소나무의 송진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쓰르라미소리만이 숲속의 정적을 흔들어놓았다. 도시히로의 얼굴우로 점차 화색이 떠올랐다. 단풍이 한껏 짙어가는 숲속의 정경에 취한듯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는 놈은 마치도 즐거운 등산길에 오른 등산가같았다.

진성의 눈길은 자석에 끌리듯 뒤로 묶이운 도시히로의 큼직한 주먹에 가서 멎어서군했다. 썩살이 두툼하게 박힌 손등, 보통키, 부딪치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듯 팽팽한 탄력이 넘쳐나는 몸매, 동실한 어깨, 영민하게 반짝이는 작은 눈.

체육형의 몸매다. 그것도 특수체육을 전문한 사람들이 대체로 이리하다! 이자는 절대로 《선비》가 아닐것이다. 악당이다! 머리로도 육체로도 인간 살육만을 업으로 삼는 악당!

이것을 깨닫는 순간 진성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당신네 나라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뒤로 돌아보며 하는 도시히로의 첫마디말은 예상외로 정확하게 번지는 조선말이었다. 드디어 포로는 자기를 본색으로 드러내고있었다.

진성은 도시히로를 쏘아보며 땀자게 내쏘았다.

《당신은 산책을 하는것이 아니라 호송되고있소.》

《하도 경치가 황홀해서...》

얇팍한 입술우에 넓은 주름을 그리며 그자리에 주춤거리던 놈은 풀뿌리에 걸쳐여 몸의 중심을 앞으로 주었다. 이때 머리우에서 풀매미 한마리가 숲속이 째저라고 청높이 울어대기 시작했다. 소리를 쫓아 우로 머리를 쳐들던 진성은 도시히로의 눈에서 적의의 불꽃이 번갯 피어나오는것을 언뜻 스쳐보았다. 차거운 전철이 등굣을 쭈욱 그으며 밀으로 내려갔다. 발끝이 짜릿해지는 순간 머리를 쳐든 놈이 정면으로 날아들어왔다. 진성은 책 돌아서며 발뒤축으로 놈의 축두부위를 갈겼다.

《헉...》

도시히로는 뒤로 묶이운 팔을 하늘로 들어올리며 앞으로 떨어졌다. 눈알이 회번득 뒤집혀진 놈은 새우처럼 꼬부리고 덩굴었다.

잠시후 진성은 권총의 격발기를 와락 잡아당겼다.

《아-잠간!》

도시히로는 숨넘어가는듯한 비명을 지르며 어깨로 몸을 의지하고 땅에 머리를 틀어박으며 일어섰다. 차거운 물속에 방금 나온듯 입술이 까맣게 죽었다.

《비렬한놈, 그 주제에... 다시 한번 잔피를 부렸다

간 알지?》

진성은 놈의 뒤더수기에 총구를 가져다댔다.

도시히로는 불판을 밟은것처럼 후닥닥 앞으로 뛰었다.

다음부터는 누구도 말이 없이 내쳐 걸기만했다. 침묵속에서 심리전은 그칠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도시히로는 걸음을 빨리하여 풀덤불속으로 들어섰다. 진성은 도시히로를 따라가며 《좌로, 우로, 앞으로!》 하며 동물원의 교예사가 가느다란 회초리로 맹수를 다루듯 능숙하게 몰아갔다.

한가울의 따거운 해별이 불꺼진 화로불처럼 사그러들었다. 서늘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멀리 컴컴한 숲언저리너머 우뚝 솟아오른 칼봉이 저녁안개에 감겨 아슬프레 보이기 시작했다.

진성의 눈길은 뒤를 힐끔힐끔 돌아보며 땀을 철철 흘리는 도시히로의 작은 눈과 자주 부딪쳤다. 움푹하게 패여들어간 눈화속에서 영민하게 반짝이는 저눈은 무엇을 노리고있을가?

도시히로는 몹시 지친듯 가벼운 한숨을 때없이 불며 애원이 가득실린 눈으로 진성을 바라보군했다.

진성의 날카로운 자존심은 호기심으로 변해 사춘기 그 시절로 덩굴어갔다. 도시히로를 마음껏 조롱해주고싶어졌다.

《선생, 간절한 청이오니 담배를 피우게 해주십시오.》

진성을 바라보는 도시히로의 눈은 애잔히 끓었다.

역시 이자는 약자앞에서는 이리같이 사납지만 강자앞에서는 강아지처럼 온순해지는 형의 속물이다!

가소로왔다. 비록 적후일지라도 이런자를 상대로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생각하니 쑥스러움으로 증기김을 쏘인듯 얼굴이 뜨끈해왔다.

하기야 약자앞에서도 날을 퍼렇게 세우는건 이미 강자가 아닐테지. 그것도 두팔을 묶이운놈인데...

《그게 소원이라면 한대 피우시오!》

진성은 도시히로의 옷주머니에서 담배를 한대 뽑아 불을 붙여 물려주었다. 연기를 깊숙이 빨아들이 키던놈은 마른 줄기침을 맹렬하게 하기 시작했다. 얼굴빛이 단풍잎처럼 되여버린 놈의 눈에 진같은 눈물이 질끔 솟아났다. 놈은 할썩할썩 가쁜숨을 내 불며 담배를 그자리에 뱉어버렸다.

진성은 새 담배가치에 불을 붙이려고 머리를 숙였다.

앞쪽을 주시하던 도시히로는 입을 항하고 벌리더니 잠관목사이로 목을 움츠르뜨렸다. 진성은 도시히로가 방금 바라보던 쪽으로 반쯤 돌아섰다.

순간 숨길이 격 막혔다.

눈앞에서 별찌가 튀어나오며 몸의 중심이 한옆으로 쏠렸다. 도시히로의 발길이 명치를 울려찌르고

머리받기가 면상으로 날아들었던것이다.

진성은 옆으로 쓰러졌다.

(아니?!)

자존심과 분노가 범벅이 되어 심장의 피를 곤두 세웠다.

도시히로의 발길이 얼굴을 내리밟았다. 진성은 도시히로의 발을 손바닥으로 받쳐올리며 모로 돌아 급소를 감아챘다.

《혁》하고 꼬꾸라지는 도시히로의 입안에서 거품이 끓어나왔다. 진성은 너부러진 도시히로의 목살을 거머쥐고 일으켜세우며 《앗》하고 명치를 힘껏 올려쳤다. 두부름을 꺾고 앉으며 땅에 입맞추듯 앞으로 덩구는 도시히로를 쏘아보던 진성의 입안에서 긴숨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안정을 주는 안식의 숨이 아니었으니 도시히로의 얼굴로 눈길이 가던 진성은 그자리에 얼어붙은듯 굳어졌다. 동공이 풀린 놈의 눈은 흰자위뿐이다.

(아-!)

진성은 성급히 머리를 숙여 도시히로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뒤통이 오싹하게 소름이 끼쳤다. 몸의 힘이 아래로 풀려내려가기 시작했다.

단 한순간에 벌어진 너무도 뜻밖의 일이었다. 문득 조혁철조장의 말이 지척에서처럼 들려왔다.

《적후에 들어와서 수행하는 임무는 어느것을 막론하고 생사를 판가리하는 중요한 임무요.》

진성은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온듯 흠칫 뒤로 물러서며 허리를 폈다.

《중요한 임무요. 중요한 임무요.》

조혁철의 그말은 메아리처럼 뇌리를 계속 울려주었다.

진성은 꼬꾸라지듯 풀썩 주저앉았다. 짜늘하게 식어가는놈을 들러메고 일어난 그의 눈앞에서 가지런히 묶이온 팔이 조롱하듯 가락맞게 흔들거렸다.

잡판목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어오자 물속같은 정적이 숲속에 깃들었다. 독립수가 한눈에 보이는 숲언저리에 었드린 진성은 바람결에 가랑잎이 굴러가는 소리에도 신경을 도사리군했다.

《절대로 적을 과소평가하지 마시오. 순간도 해이되지 말고 고삐를 단단히 조이라구.》

리형수의 말이 공명판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처럼 고막을 울린다. 만약 자기가 리형수의 조언을 새겨들었다라면 지금처럼 백메터달리기선수가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자빠지는것과 같은 곤경에 빠지지 않았을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지금에 와서야 조혁철조장이 준 임무가 결코 경찰병으로서 자기를 린색하게 평가하고 준 임무가 아니었다는 사무친 생각이 들었다. 조혁철조장은 자기를 정도이상으로 믿었다. 믿음은

보답을 전제로 하고있다. 허나 자기는 보답은커녕 그 믿음을 저바리지 않았는가.

…산중턱에서 락엽밟는 소리가 가까와왔다. 이어 소쩍새가 울었다.

소쩍, 소쩍, 소쩍.

리형수가 보내는 신호였다.

진성은 재빨리 응답신호를 보냈다.

《진성동무-》

진성은 벌떡 일어나 달려가며 리형수의 어깨를 틀어잡았다. 눈곱이 화끈 달아올라왔다.

《수고했습니다. 형수동지!》

달빛에 비친 형수의 귀밑에서 말라붙은 하얀 소금버케를 보자 진성의 반가움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무슨 일이요?》

형수는 다우쳐물었다. 진성은 잠시동안 바재이다 허아래소리를 내었다.

《저… 포로를 그만…》

형수의 얼굴빛이 흑색으로 변해갔다.

《뫼-이, 아니!》

형수는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는지 진성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동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하오. 동무는 임무수행의 열쇠를 잃어버렸단말이요. 아직도 그자에게서 많은것을 알아내야 하오. 이제 어디가서 그런놈을 또… 시간이 있는가? 시간이!》

형수의 이마우로 갈지자의 주름이 깊숙이 패이며 두툼한 입술이 푸들푸들했다.

(아니 그럼?...)

도시히로가 임무수행의 열쇠였던말인가? 가슴이 섬쩍해왔다.

그럼 내가… 나때문에 이제는 임무를 수행할수 없단 말이 아닌가.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너덜너덜 누데기같은 옷을 걸친 사내아이 대여섯명이 주춤주춤 올라오며 진성을 향해 꾸벅 절을 했다. 그뒤로 불이 폭 꺼져들어간 까실까실한 얼굴에 지친 빛이 함뿍 어려있는 예닐곱살 남짓한 소녀아이 다섯명이 서로 손을 마주잡고 서있었다. 실험소에서 방금 구원해낸 애들이었다.

아이들을 마주하고나니 세균에 오염된 수많은 어린것들의 모습이 눈앞으로 육박해들어왔다.

더럭 겁이 났다.

아슬아슬한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만 하는 습격의 밤에도 언제한번 겁을 몰랐던 자기였다.

그런데...

아니 그것이 아니다!

진성은 리형수의 말을 부정하고싶어졌다. 경찰조가 작전대상의 위치를 알고있는 조건에서 그것이면

충분하다. 육탄이 되면 될것이다. 육탄이 되면!
나혼자서 저장고로 돌입해야 한다.
그러자 비장한 결심으로 불타던 진성의 가슴속깊
이에서 초조해진 심장이 긴장으로 쿵쿵 박동하기
시작했다.

조장동지가 어떻게 결심할가?
산아래쪽으로 눈길이 자꾸만 쏠려졌다. 간간이
들려오던 자동차 발동소리가 도로쪽에서 멎었다.
진성은 시계를 보았다. 약속시간 2분전이였다.
조장동지다! 진성은 마음속의 탄성을 지르며 산
아래쪽으로 달려내려갔다. 도시히로의 풀색 승용차
에서 내리는 사람은 기다리고기다려오던 조혁철조
장이였다.

《조장동지!》
진성은 얼어질듯 혁철의 어깨에 매달렸다.
《수고했소. 형수동무는?》
조혁철은 옆으로 다가서는 형수의 손을 틀어잡아
흔들었다.

《빨리 행동해야겠소. 시간이 급하오.》
혁철은 앞서 산으로 올랐다.

《도시히로가 어디 있소?》
《...》

《어찌된 일이요?》
혁철은 돌아서며 가느다란 피발이 선 눈길을 진
성의 얼굴우에 박았다.

《호송도중... 그만... 저의 과실로...》
《뭐-》

조혁철은 얼굴이 금시 이그러졌다.
머뭇거리며 자초지종 이야기하는 진성을 쏘아보
는 혁철의 아래턱이 부르르 떨렸다.

《동무는 군사재판감이야. 난 동무를 용서할수 없
소.》

《...?!》
검푸른 하늘이 흐릿해왔다. 식은땀이 주르르 흘
려내렸다. 갑자기 오솔오솔 몸이 시렸다.

《제가 평시에 진성동무를 잘 도와주지 못했습니
다.》

쪼각달이 구름속으로 급히 헤엄쳐들어갔다. 어둠
은 숲속의 만물을 삼켜버렸다.

《이러고있을 때가 아니요.》
혁철은 치친듯한 눈길을 형수에게 돌렸다.

《도시히로는 대체로 정확히 진술했더군. 적들은
경도탄약창고들에 운반해놓았던 폭탄들을 경도 포
좌지에 집결해놓았소. 그것들이 비행장으로 실어내
갈것들이요. 탄약창고들에는 새형의 세균탄들이 들
어있소. 경도밖에 대기하고있는 운수기재들이 이제
4시간후이면 포좌지의 세균탄들을 비행장으로 실
어내게 되오. 포좌지로 통하는 비밀입구가 있소. 그

려나 도시히로는 그것까지 불지 않고 죽어버렸소.
그럼 현정황에서 폭탄들이 비행장으로 나가기전에
폭파해버릴 방도는 어디 있는가?》

긴장한 침묵이 흘렀다. 진성은 이 침묵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졌다. 새벽안개가 끝안을 메우며 밀려
들었다. 진성은 잔등을 마구 침질하는듯한 시간의
축박성에 황급히 한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피로써 저의 파오를 씻겠습니다. 저는 시한탄을
승용차에 싣고 포경도로 돌입하겠습니다.》

구름속으로 숨어들어갔던 달이 얼굴을 내밀었다.
사위는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다.

《적후에서 범한 실수는 순간의 위훈으로는 씻지
못하오. 아마 동무에겐 그게 영원한 한생의 공백으
로 남을게요.》

랭담하리만치 차귀우면서도 부드러움이 느껴지
는 리형수의 말은 살을 해집고 들어와 심장에 정질
하듯 아프게 들렸다.

《조장동지의 결심을 듣고싶습니다.》
형수는 혁철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돌로 쪼아만
든 사람처럼 변해가고있었다.

《방도는 한가지-너무도 명백하오. 승용차에 시
한탄을 싣고 적차단소를 통과한 다음 갱입구에 대
기하고있는 운수기재들을 형수동무가 습격하시오.
적들의 신경이 그쪽으로 쏠릴 때 나는 승용차를 돌
고 포경도로 돌입하겠소. 그럼 저장고가 모조리 날
아날게요.》

진성은 불시에 하늘이 무너져내리고 땅이 뒤번져
지는듯한 심리적착각을 느꼈다.

내가 저장고로 돌입해야 한다. 나때문에 달라진
정황이 아닌가. 진성은 입속으로 되뇌이며 조혁철
의 앞으로 다가들려 했다.

했으나 무거운 연덩이를 허리에 매단듯이 몸을
움직일수가 없었다. 자기는 그러한 영예로운 임무
를 담당수행할 권리를 잃어버린 병사라는 사무친
느낌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폐부에 박혔다.

《정진성동무는 실험소에서 구원해온 아이들을
데리고 전선을 넘으시오. 자-시간이 급하오. 번
개!》

혁철은 제먼저 성큼성큼 앞서 걸었다.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들어 형수의 앞을 막아섰다. 진성은 아
이들의 머리를 쓸어주는 형수의 옆으로 다가들었다.

《아이들을 부탁하오.》

진성은 형수의 품에서 달래듯 아이들을 하나하나
때내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승용차에 오르려고 몸을 숙이던 혁철은 진성을
돌아보았다.

《동무가 수행하게 되는 임무도 험치는 않소. 육
탄이 되어 저장고로 돌입하는 우리보다 동무쪽이

꼭 어려울게요.》

진성은 쓰러질듯 혁철의 품에 안기며 가슴속에서 북받치는 오열을 묵새기느라 입술을 깨물었다. 들먹이는 진성의 잔등을 어루만지는 혁철의 손이 떨렸다. 잠시후 고개를 쳐든 혁철은 다식한 눈길로 진성을 바라보며 준절히 타일렀다.

《적후에 들어온 병사는 한순간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되오. 먼 후날에 가서도 오늘을 잊어서는 안돼!》

혁철은 진성의 어깨를 가볍게 밀어버리며 차에 올랐다.

《조장동지, 안됩니다. 못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난 어쩔니까? 네, 조장동지!》

진성은 피가 뛰어나오듯 부르짖으며 두팔을 벌리고 승용차앞을 막아섰다.

《제가 가야 합니다. 제가...》

《진성이!》

리형수가 낮으나 엄하게 진성을 부르며 팔을 끌어당겨 자기품에 안았다.

《지금 동무에게 차려진 임무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대로 가는것이요.

진성이, 적을 과대평가하면 비겁분자가 되지만은 또 과소평가해도 적에게 지고마는 경우가 있소. 자기를 완성의 견지에 끌어올리기 바라오. 완성의 견지에 오르지 못한 병사는 죽을수도 또 후퇴할수도 없소. 꼭 조국에 자기를 바칠수 있는 완성된병사가 되어주기 바라오.》

형수는 빙그레 웃으며 차에 올랐다. 마치 아침에 차고일어나면 만나군하던 범상한 그 얼굴로...

차안에서 조혁철이 두손을 마주잡고 흔들었다. 차는 이어 하얀 배기가스를 뿜어버리며 미끄러져갔다.

《조장동지- 형수동지!》

말끝이 바람에 흩날렸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허탈감같은것이 가슴속에 서려들었다. 눈물이 줄줄이 흐르고있었으나 자기가 운다고 느끼지 못했다.

다만 가랑이를 휩쓸어가는 찬바람에 말라버린 가독나무에서 꼬부라든 잎사귀들만이 애처롭게 떠는 소리가 들릴뿐.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오기 시작했다.

결국 적후의 산중에 진성이 홀로만 남았다. 락엽이 한잎두잎 진성의 머리우에 떨어졌다.

진성은 놀라서 파들거리는 소녀애 한명을 등에 업었다.

또 한명은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나머지 애들은 진성의 뒤에 줄레줄레 따라섰다.

시간이 흘러 일행은 금천강기슭에 닿았다.

강을 건느려고 여울목을 찾고있을 때 산이 통채로 날아갈듯한 굉장한 폭음소리가 들렸다. 등에 업힌 어린것이 놀라서 바스려지게 울었다. 앞가슴에 안긴것은 머리를 틀어박으며 오돌오돌 떨었다.

서쪽하늘이 번개불에 타듯 환하게 밝아지며 땅이 드르륵 울렸다. 불현듯 조혁철과 리형수의 얼굴이 눈앞으로 다가들어왔다가 점차 멀리으로 사라져갔다.

《아-조장동지, 형수동지!》

가슴을 쥐어뜯으며 부르짖는 진성의 피타는 절규는 창공을 헤가르며 멀리 서쪽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진성이가 범한 단 한순간의 실수는 너무도 값비싼 대가를 요구했다.

아-단 한순간의 실수! 적후에 들어와서 받게되는 임무는 어느것을 막론하고 생사를 판가리하는 중요한 임무였다.

그러나 나는... 아- 나는...

뜨거운것이 불을 적셨다. 그 눈물은 동지를 잃은 슬픔과 적후의 산중에 홀로 남겨 된 고독감에서 나오는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어떤 비장한 결심을 피로써 다지는 감정의 북받침이었다.

잠시후 진성은 결연히 머리를 쳐들고 강물에 들어섰다. 전선을 넘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만 했다. 하지만 부대로 가는 그 길은 말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는 번민과 몸부림, 자기를 이겨내는 고난의 길이었다.

진성의 이야기는 끝났다. 무거운 음영이 방안에 가득찼다. 뚜걱뚜걱 걸어 창가로 다가가는 부장의 발걸음소리만이 귀에 대고 못질하듯 아프게 들려왔다.

《아까운 동무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길을 가버렸구만... 육탄이 되지 않고서도 수행할수 있었는데...》

부장의 물기어린 큰 눈이 진성의 얼굴에 와서 이윽도록 멎어섰다.

《참으로 동무는 하기 힘든 이야기를 했소. 마땅히 동무는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오. 그러나 동무는 인간으로서 또 인민군정찰병으로서 충분한 량심의준비가 되어있소. 그런 준비가 있기에 먼저간 동지들처럼 훌륭한 정찰병으로 자랄수 있다고보아지요.》

뜨거운것이 진성의 발등에 툭툭툭 떨어졌다.

×

전사로 강직된 정찰병 정진성은 후방부의 마사병이 되었다. 그러나 먼저간 동지들이 남긴 교훈을 사무치게 새긴 그였기에 후날 조국을 위해 자기를 바칠수 있는 훌륭한 정찰지휘관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별많은 보천보의 밤에 외 1 편

박 영

보천보!
력사의 그 사연을
밤에 새겨안은 땅이어서
밤은 이리도 뜻깊어지는것인가

황철나무 속삭임 들으며
내 잠 못들고 거니는 답사의 이밤
유정한 가림천 물결우에도 별무리
저 하늘가에도 별무리...

생각하니
보천보 밤하늘의 별무리
더 빛을 뿌리는것만 같구나
류달리 더 많은것만 같구나

가없는 하늘가 별의 바다여
너는 정녕
잊지 못할 력사의 그밤
항일의 청년장군 **김일성** 동지께서 추켜드신

광복의 횃불 그 불꽃들이 횡겨오르는것이 아니
더나

그 불꽃 별이 되어 비꼰구나
주체의 사회주의 내 조국의 밤하늘가에
그 불꽃 별이 되어 내렸구나
락원의 거리 행복의 꿈에 부푼 우리 집 창가에

그 불꽃 축포되어 내리겠구나
주체의 횃불 거연히 추켜드신
위대한 백두의 아들 높이 모시여
기어이 밝아올 통일경축의 밤에...

아, 별이 많은 밤은
생각도 끝없는가
광복의 횃불 타오른 보천보의 밤은
별많은 내 조국의 밤의 고향
밤이여 보천보의 밤이여 별많은 내 조국의 밤
이어!

목마

용해장의 붉은 노을
하늘가에 물들었는가
노을도 아름다운
제철지구의 이 저녁

서두른 발걸음 마을어귀에 들어서니
용해공놀이하던 막내아들
달려와 안기며 태워달라네
목마를, 목마를

그래그래 태워주마
오늘도 잘 익은 쇠물을 뽑아
축하의 목마에 올랐던 이 아버지
홍튼 마음 네 아느냐

아버지는 영예의 목마에 오르고
아들은 아버지의 목마에 오르고...
생활의 멋에
이런것도 있는가

꽃결이 걸었던 목에
아들너석 태우고 우쑥 일어서니
마음속엔 강철의 산악 높이 쌓아갈 새힘
끓어오르는 뜨거운 생활의 열정

씨엥씨엥 발걸음 옮겨가는데
꼬마용해공 좋다 하며
목마에 박차를 박차를 가하누나
아아, 생활이여 앞으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철강재생산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겠다

-전당당세포비서대회에서 한 토론중에서-

저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 강철직장 3호전기로당 세포의 당원들과 용해공들이 우리 나라 기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는데서 그 의의가 매우 큰 새로운 강재를 훌륭히 뽑아내며 위대한 수령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린 사랑을 안고 이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몇해전 우리 3호전기로 당세포의 당원들과 용해공들 앞에는 새로운 강재를 뽑아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영예로운 전투과업을 받아안은 우리 3호전기로 당원들과 용해공들은 이것은 철강재생산으로 당을 받들고 사회주의조국을 빛내온 우리 성강의 로동계급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이라고 하면서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하지만 여러번 실패가 거듭되자 일부 동무들속에서 동요하는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세포는 당의 뜻을 받드는데서 모두가 한마음한 뜻으로 나서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당세포들은 당원들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제때에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는 당원들속에 들어가 새로운 강재를 뽑아내는 것으로 당을 받들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철의 신념을 안겨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 당원들의 열의와 책임성이 높아지고 생산에서 주인다운 일본새를 더욱 높이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쇠물속의 탄소함유량을 기준수치대로 보장하는 문제는 헛치 않았습다.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강재를 뽑으면 재질이 좋은 탄소분을 수입해오는 길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일부 용해공들속에서 나타난 그릇된 사상관점을 고쳐주기 위해 당세포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이날의 모임을 통하여 그 어떤 애로와 난관 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변함없는 자세와 체질화된 충성심을 간직한 로동계급으로 되자면 사상적단

련을 부단히 하여야 한다는것과 당세포비서로서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후 당세포는 때와 장소,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정치사업을 꾸준히 벌림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용해공들이 새로운 강재생산에 자기들의 지혜와 창발성을 다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새로운 강재를 뽑아내는데 성공하여 나라의 기간공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강재를 뽑아내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세포 당원들과 용해공들은 우리 당의 위대한 결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다시한번 깊이 새겼습니다.

이래전 우리 3호전기로의 당원들과 용해공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100여회의 고심어린 실험 끝에 우리 식 대용강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고야말았습니다.

그후 우리들의 자그마한 성과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주 큰일을 했다고 높은 치하를 주시였으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축하문까지 보내주시는 영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이 나날에 우리 당세포는 충성의 세포로 되는 영예를 지니였으며 우리 3호전기로작업반은 3대혁명붉은기작업반, 모범기술혁신작업반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번 전당당세포비서대회 대표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과 전국당세포비서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력사적서한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겠습니다.

우리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철강재생산에서 끊임없는 양양과 혁신을 일으켜나가며 올해계획을 어김없이수행하겠습니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당세포비서 **최수일**

새 세대 압연공들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정신과 기백으로 키워 우리 당을 강철로 받들어나가겠다

-전당당세포비서대회에서 한 토론중에서-

저는 당세포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세포안의 모든 당원들을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키워 우리 당을 강철로 충실히 받들어나가는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려고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일하자!〉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생산과 건설에 힘있게 불리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제가 세포비서사업을 시작하였을 때 우리 분피압연직장에는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부터 일해오던 오랜 압연공들은 얼마 없었고 절대다수가 고등중학교를 갓 졸업한 새 세대 압연공들이었습니다.

당세포는 새 세대 압연공들이 전후시기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강철증산으로 위대한 수령님의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온것처럼 더 많은 강철을 생산하는것으로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그들과의 사업을 심화시켰습니다.

당세포에서는 그들에게 당의 의도와 방침을 깊이 있게 해설선전하면서 동시에 50년대부터 강철로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로당원들이 당의령도업적을 가지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새 세대압연공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짜고들었습니다.

한번은 1956년 12월 위대한 수령님을 제강소에 모시고 진행된 협의회에 참가했던 로당원인 김의수 아버이를 준비시켜 영웅압연기결에서 이야기모임을 진행한적이 있었습니다.

전후 어려운 나날에 당과 운명을 같이하면서 수많은 시련의 고비들을 헤쳐온 로당원들의 체험담은 어려운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 압연공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새 세대 압연공들을 당의 참된 충신으로 키우는 일은 한두번의 이야기모임이나 해설담화로써 다 해결된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세포는 일부 청년들을 로당원들이 말아서 교양하도록 당적분공을 짜고들었습니다.

제가 말은 리동무의 아버지는 그가 출생한지 몇

달 안되는 1957년말에 12만톤의 강재를 밀어내기 위한 마지막전투를 하던중 압연기를 파괴하려는 반동놈들과 싸워 압연기를 구원해내고 희생된 애국렬사였습니다.

당세포는 그에게 아버지가 무엇때문에 목숨바쳐 영웅압연기를 지켜냈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강철전선을 지켜나가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따듯이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힘들다고 하여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켜낸 영웅분피압연기를 버리고 갈수 있단말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강선의 로동계급에게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고계시는데 그레 동무는 당의 이러한 두터운 신임과 은덕에 대하여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본적이 있는가.

머리를 숙인채 깊이 생각하던 리동무는 이튿날부터 말없이 맡겨진 일만 수격수격 하는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사상적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여 압연기에 새겨져있는 영웅금별메달을 정성들여 닦고 작업준비를 간지게 해놓았으며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뛰어들곤 하였습니다.

그후 리동무는 자기가 결의다진대로 아버지가 썼던 초소를 훌륭히 지켜나가는 압연공으로, 조선로동당원으로 자라났습니다.

지난 기간 당세포는 이처럼 새 세대 압연공들을 꾸준히 교양하여 집단안에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혁명정신, 그 전투적기백이 세차게 타번지게 함으로써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의 로동계급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고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직장은 어버이수령님의 표창장을 수여받고 분피압연기는 공화국영웅칭호를 받았으며 4명의 로력영웅을 배출했습니다.

우리 강선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올해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천리마에 《9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강철생산에서 다시한번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가겠습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당세포비서 **리귀석**

어머니의 부탁

한춘실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슬하에 거느린 자식 많아도
나에게 군복입고 초소에 선
장한 아들 너밖에 없는듯

낮에도 밤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품에 안겨 뒹눴던 어릴 때처럼
이 어머니는 온통 네 생각에 산다

그 생각 끝이 없어
따뜻한 털로 조끼를 누빌 때
그 한뼘한뼘마다에 실리는
이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네 지켜선 전초선의 그 좌지에
언바위를 녹이는 불돌처럼
너의 온몸을 어루만져 주었으면
더운 입김에 감싸안고서
근무의 긴긴밤을
네결에서 지새었으면

내 너를 키울 때
온돌방에서도 따뜻한 아래목에
바람들세라 이불깃도
여며주었고

결을 떠나면 잘못만 저지를듯
늦으면 끼니를 건넬듯
쓸데없는 잔걱정에
내 도리어 네 지청구를
받아오지 않았더냐

아 너를 품어키울 때에도
너를 떠나보낸 뒤에도
밤을 지새며 해를 지우며
이 어머니 바란것 무엇인지 아느냐

조선의 첫 령수로
위대한 대원수님을 받아들여올린
혁명의 1세대처럼
김정일 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첫 병사로 너 서있기에

내 얼마나 장하게 여기는지
내 얼마나 미더워하는지
다 안다고 걱정말라고
아들아 너무 쉽게 편지를 말아다오

부모마음 다 헤아림이
자식도리 다함이
쉽지 않음을
오늘의 하루하루는
새롭게만 깨우쳐주거니

네 비록 이 나라 지켜선
일당백장부여도
나에겐 그 언제나 치마폭의 귀한 자식
하지만 너보다 나라가 더 중하기에
오늘의 행복도 래일의 희망도
우리의 생활도 생명도 오직 여기
우리 식 사회주의에만 있기에

너는 내 아들만이 아닌
최고사령관동지의 아들
네몸이 그대로 폭탄이 된다 해도
우리의 사회주의보루를
이 세상 끝까지 지켜야 할 그이의 병사

아들아 내 아들아
심장에 새겨두고 명심하여라
네 만약 이 어머니 효자거든
우리모두의 운명 맡긴 품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을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 식 사회주의 지키는 싸움길에
영웅의 금별처럼 빛나게 살아다오
너의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를

그리고
빛난 훈장 가슴팍에 번쩍이며
정다운 내 집으로 돌아와다오
통일병사의 위훈 안고
이 어머니품에 뒹뒹이 안겨다오

일러

리정옥
그림 류경희

영심은 나는듯이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머니!》
어느때갈이면 문소리만 나도 《영심이나?》 하고 달려나왔을 어머니가 오늘은 아무 기척도 없었다.
(어데 가셨나?)
영심은 행여나하여 방문을 활짝 열어제끼며 또한 번 불러보았다.
《어머니!》
여전히 조용했다. 원탁우에 놓인 일일초가 방문 열리는 바람에 어린애손같이 작으면서도 매끈한 잎사귀를 한들거릴뿐이었다.
불시에 마음이 허전해졌다. 어머니를 만나려고 급히 달려온 걸음때문인지도 몰랐다. 가방이 스스로 어깨에서 미끄러져내렸다.
영심이 상보를 씌운 밥상과 그우에 놓인 쪽지를 본것은 방바닥에 가방닿는 소리가 툅씩 하고난 다음이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영심아, 어머니는 오빠네 집에 가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밥을 먹어라.》
영심은 《먹어라.》 하는 소리에 반발이라도 하듯 글썽지를 한옆으로 흘 밀어놓았다.
(오빠네 집엔 하필이면 딱 오늘 가야 하나?)
어머니를 만나면 단박에 쏟아놓고싶었던 술한 말들이 순식간에 빛을 잃으며 어데론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다.
(어머닌 참.)
영심은 의자에 툅씩 주저앉았다. 뒤쪽하는 고르롭지 못한 의자소리는 영심의 마음을 얼마간 진정시켜주었다. 그래서인지 아까는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바느질감이 밥상가까이에 있는것을 보았다.
한순간 어머니가 옆에 있는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는 상보를 씌웠어도 엿보이는 어머니의 다심한 정성이 깃든 밥상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어머니는 늘 영심이결에 앉아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어라 하고 잔소리를 하곤하였다. 그런것에 습관되어서인지 혼자 밥먹을 생각이 전혀 나지않았다.
그가 앉은 책상에는 소설책이며 잉크단지, 종이들이 영심이 아침에 놓았던 그대로 놓여있었다. 낮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지만 여기서는

시간이 조금도 흐르지 않고 그대로 있는듯했다.
영심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런 일이 있을수 있을까요?》
결국 어머니를 만나면 하리라고 생각했던 말이 책상을 향해 나간셈이었다.
그 책상은 작업반현장에 있는 또하나의 다른책상을 런상시켰다. 그 책상두리에 아침저녁 작업반원들이 모여앉아 작업조직도 하고 총화도 짓군한다. 어떻게 되어 그 책상이 머리에 떠올랐는지 영심은 자기로서도 의문스러웠다. 놀라운것은 서로 멀리 떨어져있는 두 책상이 똑같은 하나의 책상으로 보이는것이였다. 마치 작업반책상을 우연한 일로 잠간 집에 옮겨오기라도 한것처럼...
영심은 책상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책과 잉크병, 종이뿐이였다. 작업반책상에도 이러한것들이 있었다. 《작업일지》와 지령서들 그리고 잉크단지까지...
저녁총화시간이면 반장은 하루 수행한 지령서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톱밥민지를 뽀얗게 들쓰고앉아있는 잉크단지를 보고서는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치워놓을 대신 손으로 깨끗이 닦아 자기자리에 놓아두곤했었다. 갑자기 영심은 기분이 흥겨워졌다.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을 본것처럼 즐겁고도 유쾌한 감정이 그를 휩싸안는것이였다.
집안의 외동딸이면서 막내가여서 그런지 영심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각별했다. 문소리만 나도 마주나와 가방을 받아주곤했고 기색이 어떤가를 살피곤했다. 그 사랑은 영심이 사회에 진출하자 더해졌다. 처음에는 두툼한 장갑을 스무나문켄레 해주더니 다음에는 청소걸레를 한아름 해주었다. 직장에 내여가라는것이였다. 그런것을 영심은 직장에도 많다고 거절해버렸다.
들어가자마자 기대배치도 받기전에 장갑이요, 걸레요 하면 사람들이 웃을것 같았다. 마치 제 낮을 내기 위해서 그런다고... 중요한것은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이라고 생각했다.
퇴근후의 첫물음은 의연히 인사말처럼 정해져있었다.
《어떠냐? 직장생활이 재미나냐?》 혹은 《일이 힘들지 않니?》
그러면 영심은 시뚏해서 대답하곤했다.
《그저 그래요.》

하면 어머니는 또 지긋게 물었다.

《무슨 일을 하나?》

《그저 나무를 날라오고 날라가는 그러루한 일을 하죠. 특별히 재미도 없고 힘들지도 않아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고 밥상을 차려주며 《배고프겠구나. 어서 밥을 먹어라.》 하곤 했다.

그리고는 바느질감을 놓고앉아 고르로운 손가락 소리가 울리기를 기다리곤 했다.

손가락을 들자마자 영심이의 입에서는 언제 시뻘뻘했나싶게 하루 직장에서 있던 일들이 실꾸리 풀리듯 풀려나오곤 했다.

《어머니, 사실은 내가 요즘에 자동대패기라는 기계를 돌리는데요. 그런 이름을 들어왔어요? 못들어봤으면 후날 꼭 우리 공장에 와서 보세요. 현장 맨 가운데 있어요. 톱밥 빨아들이는 배풍관이 게가 기여가는 것처럼 생겼는데 우스워요. 조금만 알보았다가는 머리수건이구 자막대기구 막 먹어지우니까요. 찾지두 못해요. 우리 반장은 선심이라도 쓰듯 나에게 기계조작법이며 기술규정을 대주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기계를 잘 다루어야 하요. 중요한 기계요. 이 기계가 서면 3만세대 건설에 필요한 마감건재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요. 동무도 3만세대 건설의 중요성을 알겠지?》

하고말이예요. 우리 반장은 아무말에나 다 3만세대란 말을 붙이는게 특징이예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주시려고 몸소 진두에서 이끄신다는걸 내가 뭐 모르는줄 아는가부지요... 그 기계가 좋은건 아무 나무나 들이밀어도 매끈하게 가공돼서 나오는게 기분이 참 좋아요. 우리 반장이 정말 무슨 생각으로 날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작업배치를 해놓고도 못미더워서 《이건 무엇에 쓰는 무슨 나무다》, 《이건 어떻게 밀어야 한다》 하고 잔소리만 하던 사람이.》

《기대공은 없느냐?》

어머니는 지나가는 말처럼 무심히 물었다.

《기대공이요? 있어요. 헌데 산전후가를 들어갔어요. 반년은 있어야 나온다는데, 참 어머니, 그 기간만이라두 기대공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기대를 관리하는 주인이 있어야 할게 아니냐요. 말로만 중요하다고 떠들어서야...》

《저야 물론 있어야지. 아마 다 있을게다, 반장의 머리속에...》

《그래요.》

이 순간 웬일인지 영심이의 말은 서글프게 울리었다.

어머니의 손이 다시 천우에서 부지런히 움직였다. 그모양을 바라보며 말하다나니 영심이의 말도 자연히 그 손에따라 빨라지기도 하고 늦추어지기도

하는듯했다.

《어머니, 나무도 사람과 똑같은것 같애요. 난 아무 나무나 거저 밀어내고 가공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니더군요.》

《이렇게 심술궂은 사람처럼 결면이 터실터실하게 나오는 나무는 물황철이요 반면에 결이 곧고 매끈하게 나오는 나무는 참나무요. 삼송나무는 마음씨 고운 나무가 돼서 결도 곧고 가볍고 또 보기도 좋소. 나무도 특성이 있기때문에 잘 보면서 밀어야 하요.》

이건 반장의 말이에요. 반장의 말을 들으면 직장이 마치 현장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의 수림속인것같이 느껴져요. 발밑에서는 금시 작은풀들이며 폭신한 락엽들이 밟힐것 같구요. 또 눈앞에는 삼송이요, 붓나무요 하는것들이 규격대로 잘라진 나무가 아니라 하늘을 치받든 아름드리나무가 돼서 서있는 것 같애요. 어머니, 나무란건 신기한거지요. 안그래요? 왜냐 하면 나무가 주는것은 냄새, 색깔,문양으로 제한되어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은 각이하니까요. 직장적으로 눈이 제일 크기로 소문난 우리 반장은 참나무만 보면 저절로 눈이 작아져요. 가볍고 무른 나무보다도 무겁고 굳은 참나무류를 더 좋아하는데 나무를 들여다보는 반장의 눈에는 웃음이 비껴있어요. 처음에 난 이상해서 주위를 둘러보기까지 했어요. 나무 하나를 가지고 웃는다는것이 도대체 리해되지 않아서요. 굳은 나무는 날도 인차 무디고 요란한소리만을 내면서 잘 안나가려고 못되게 구는데.》

영심은 옆에 앉아있는 어머니가 반장이기라도한듯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그를 물끄러미 보며 미소를 짓곤 했다. 영심은 어머니의 그 류다른 미소가 나무들을 줄지어 세워놓고 말하듯 호기심과 신비스러움으로 별로다 더 반짝이는 자기의 눈때문임을 알수 없었다.

《어머니, 우리 반장이 웬이 많은 나무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밥을 먹다 었힌 나무라나요. 호호... 그래서 그렇게 《변변치 못한》 나무는 기계에 넣지 말래요. 날이 못쓰게 된다구요.》

《그렇게다. 옛날부터 굳은 웬이엔 도끼날두 무뎠는데.》

《어머니! 어머니는 《스위치기대공》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또 무슨 말이나? 아마 말하는 그대로겠지.》

《그렇긴 해요. 기계를 잘 모르고 돌리는 기대공이라는 뜻이죠 뭐. 스위치를 넣었다 끄는것밖에 모르는...》

《누가 널더러 《스위치기대공》이라고 하더냐?》

《아-아니예요. 그저 해보는 소리예요.》

영심은 그만 한숨을 쉬고말았다.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어요. 나무가 하두 안나 가길래 반장한테 물어봤더니 새까맣게 타서 겨우 빠져나온 나무를 살펴보면 아침에 <밥>을 쪄는가 구 묻더군요.

《밥이요?》

나는 좀 멍해졌어요. 기계가 무슨 밥을? 알고보니 기름을 쪄는가 하는 소리였어요. 난 왜 그런지 <스위치기대공>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기대공도 되고싶지 않겠구나.》

《기대공이요? 왜요, 되고싶어요. 현대 기대공이 된다는건 곧 <육바가지>가 된다는걸 의미해요. 그 말뒤에는 많은 말들이 따라오거든요. 요구성, 책임감,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등등... (영심은 갑자기 어조를 높였다.) 아니, 어머니, 난 기대공은 못되어도 <스위치기대공>이라는 말은 듣지 않겠어요.》

술가락소리가 푹 멎어섰다. 어머니는 고르로운 《물동》이 파괴됐는데도 머리를 들지 않았다. 오히려 손을 더 재게 움직였다.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거나 일손을 멈추는 때는 따로 정해져있는것 같았다.

영심은 턱을 고이고 꽃무늬 아롱진 바람벽을 지긋게 바라보았다. 책상에만 앉으면 그 어느때일이건 되살릴수 있고 마음이 안정되는것이 언제나 좋았다.

어머니는 영심이의 물건을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그런 집에 들어오는것이 왜 좋은지 영심이로서는 알것 같으면서도 알지 못할 아리송한 문제였다. 어머니의 다심한 사랑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단지 집이라는 개념때문인지...

《어머니, 우리 반장은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예요.》

《왜?》

《육할 땐 언제고 나보고 글썽 <황금망아지>라니까요!》

《그건 어째서?》

《3만세때때문이지요. 말끝마다 우리 반장이 불이 좋아하는, 지금 마감건재에 필요한 벽장때문에 우리 직장은 몹시 바쁘거든요. 하여튼 나무들이 줄을 섰어요. 내 기대앞엔 사열이라도 받듯 나무들이 쌓여있는데 그날따라 굳은 나무가 많지 않겠어요. 굳은 나무들을 마구잡이로 밀다간 날을 인차 무디게 할수 있어요. 또 속도조절도 잘해야하구요. 그래서 내났지요 뭐. 한데 모았다가 따로 밀려구... 현장을 돌아보던 반장이 작업대에 가득쌓인 나무들을 보고 저한테 오더니 묻더군요.

《영심동무, 이건 무슨 나무요? 못쓸거요?》

땅바닥에 굴러가는 작은 치차바퀴를 보고서도 관심을 돌리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갈리 있어요? 더구나 나무가 가득 쌓였는데도 다른 나무를 끌어다 미

니, 그래서 난

《아닙니다. 굳은 나무가 돼서 한데 모았다가 따로 밀려고 내났습니다.》 했어요.

《그건 왜?》

반장이 또 묻더군요.

《날이 무딜가봐서요.》

《그럼소? 무슨 나문데...》

《봇나무, 참나무입 니다.》

《음... 지금 미는 나무는 무슨 나무요?》

글썽 능청스럽다구 해야 할지 아니면 우정 그레보는지 제가 한주일을 품을 들여 배워주고도 물어보니말이에요. 그래서 난 대답했죠.

《이 째나무, 물황철입니다. 소나무도 더러 있고...》

《음...》

반장은 머리를 끄덕끄덕 하더니 별안간 소리치는 것이었어요.

《가만, 기계가 나무를 채 못물었구만!》

난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말하는새에 하마트면 빈기계를 돌릴번했죠. 반장은 대차에서 나무를 한 아름 안아다 내리워주더니 다른데로 가버리더군요. 일이 끝날림박에 작업반사람이 날보고

《황금망아지동무! 스파나를 좀 씹시다.》 하는것이 아니겠어요.

《황금망아지라는건 무슨 뜻이에요?》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글썽 반장이 그렇게 불렀다나요. 왜 그랬을까요?》

이번만은 어머니가 일손을 멈추고 영심이를 바라보았다.

《글썽 내가 알겠니? 아마 칭찬하는 소리겠지.》

영심이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예요. 우리 반장한테 칭찬이 어울리지 않아요. 육을 먹어야 정상이예요.》

《허허, 애두.》

어머니는 바늘을 손에 쥐고있으면서도 바늘을 찾았다.

《정말이에요. 반장이 칭찬하는 소리는 어색해요. 칭찬은 아마 할 사람이 따로 있는가봐요.》

어머니는 채 가시여지지 않은 미소로 영심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가늘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 넌 일터가 마음에 없니?》

영심은 술가락으로 밥상을 가볍게 토닥거렸다.

《아니, 아니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상하지요?》

《뭐가?》

《이제는 현장이 낯설지 않으니깐요. 꼭 집에 들어서는것 같애요. 집하고 현장하고 같을수가 있어요?》

《허허, 애두...》

어머니는 실을 꿴느라 애쓸뿐 대답을 하지 않았

다. 이것이 어제밤에 영심이와 어머니가 나눈 이야기였다. 하지만 오늘은 어머니가 없었다. 영심이가 하고싶었던 이야기들도 다 식어 빨간 불티만 날렸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곰곰히 되새겨보았다.

현장에 들어서면 제일먼저 느끼게 되는것이 먼저 나무냄새이다. 물론 눈에 보이는것도 나무지만 냄새만은 그 어느 다른것보다도 더 빨리, 더 재빠르게 폐부를 찌르는것이였다. 그 냄새는 날마다 달랐다. 어떤 때는 향긋하면서도 싱그러운 냄새를 풍기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달짝지근한 사과냄새를 풍기기도 했고 쓸쓸한 알뜰냄새를 풍기기도 했다. 그 냄새에 익숙되기만 하면 그 어떤 나무든지 눈감고 알아맞힐수 있었다.

그가 일하는 가공작업반 현장은 가공공정의 흐름에 맞게 크고작은 기계들이 키순서를 모르는 학생처럼 불쑥 솟구치기도 하고 또는 땅바닥에 낮추볼기도 하면서 널려져 꽤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있는 작업장이였다. 공통적인것은 매 기대마다에 규격별로 나무들이 차곡차곡 쌓여있고 요란한 기계소리와 함께 톱밥이 꽃보라처럼 흩날리는것이였다. 여기서는 고요한 정적이 통하지 않았다. 심지어 톱들마저 사람들보다 더 쟁쟁한 소리를 내면서 여무지게 돌아갔다.

영심이가 다루는 자동대패기는 그 기계를 중심으로 기계배렬을 한듯 현장 한가운데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놓여있었다. 또 다른 기대에는 없는 길다란 배풍관을 혼자 우로 솟구치고있었다. 자동대패기는 어느 기대와는 달리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배풍관의 숨결을 받아야만 기대를 돌릴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톱밥에 날통이 메여서 기계를 돌릴수 없다.) 그 유별난 배풍관을 가지고있는것을 영심은 은근히 자랑으로 여기고있었다.

오늘은 기분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 공연한 일에 시간을 보냈기때문이었다. 나무대차에 엄청나게 두꺼운 나무들이 섞여있어 그것을 끌어내느라 다른 사람들보다 30분나마 기대를 못돌렸기때문이었다. 영심은 아무리 머리를 기웃거리보아야 이 나무들을 어떻게 밀어야 할지 궁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두번에 나누어 밀어야 할지 아니면 아예 내놓아야 할지, 저분을 기다리듯 놓여있는 하얗고 열기설기한 자기의 고유한 무늬를 그리고있는 나무를 보느라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두꺼운 나무를, 기동감을 서까래감으로 쓰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떻게 할가? 혹시 다른 작업반에서 써야 할 나무가 우리 작업반에 잘못 섞갈려 들어온지도 몰라.)

영심은 작업대에 가득쌓인 나무들을 다 밀어버리기전에 두꺼운 나무들도 처리하고싶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무들이 쌓이고쌓여 결국은 그 나무들도 어데론가 날아가버리고말것 같았다.

영심은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반장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도 제각기 자기 기대에 열중하여 누가 옆에 오는지도 몰랐다. 영심은 나무를 바라보았다. 로라 돌아가는 소리가 독특한 자동대패기는 정신을 팔지 말라고 어느때없이 통탕거리며 영심이를 재촉하는상싶었다.

문득 영심은 저쪽 축살기에 등을 돌려대고있는 반장을 보았다. 영심은 기쁜나머지 배풍기스위치를 끄는것도 잊어버리고 달려갔다. (배풍기스위치는 기대와 따로 떨어져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은 반장이 아니였다. 반장은 아까 사무실쪽으로 갔다는것이였다. 실망하여 돌아서던 영심은 피땀 좌좌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뒤미처 배풍관을 끄지 않은데 생각이 미쳤다.

(이걸 어찌나.)

그는 다급히 스위치쪽으로 달려갔다. 계단으로 올라가려는데 누군가 우에서 내려오고있었다. 뚜격 뚜격 내려오는 유난히도 하얀 운동화끈을 거쳐 눈을 들어보니 뜻밖에도 그가 찾던 반장이였다. 영심은 숨을 죽였다. 결국 좋은일을 하려다가 계도 구력도 다 농친셈이였다.

(또 시작되겠구나. 배풍기를 돌리는데 얼마만한 전기가 들며 전동기용량은 얼마인가, 자동대패기전동기용량은 알고있는가 등등...)

기이하게도 그 순간 13개 20키로와트, 7키로와트라는 말이 번개치듯 머리속을 스쳐지나갔다. 13개는 배풍기를 돌리는데 13개의 기계를 합친것과 같은 전기가 들며 20키로와트는 전동기용량이였다. 7키로와트는 《보잘것 없는》 영심이의 자동대패기전동기용량이였다.

(할수 없지, 욕을 먹는수밖에.)

영심은 반장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아무래도 일을 하려면 또 계단을 올라가 스위치를 눌러야 했다.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였다.

반장은 참으로 이상했다. 어디에 갔다가도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군했다. 영심은 앞주머니에서 자를 꺼내어 만지작거렸다. 자를 짹 펼쳤다가는 접고 또 펼쳤다가는 접고 했다. 반장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닐세라 반장은 영심에게 다가와 물었다.

《어델 갔댔소? 배풍기도 안끄고...》

기계소음이 아무리 커도 반장의 목소리는 얼마든지 가려들을수 있었다.

《저-누굴 좀 찾으러 갔다가...》

구래여 반장을 찾으러 갔댔다는 말을 하고싶지 않았다.

《배풍기를 끄지 않은 생각이 나서...》

《흠...》

영심은 머리를 숙이고 또 자를 만지작거렸다. 아

까는 하얗게 보이던 반장의 신발끈이 이제는 그렇게까지 하얗게 보이지 않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반응이 없었다. 영심은 반장을 바라보았다. 미소인지 웃음인지 분간 못할것이 엇비슷이 스쳐지나갔다. 미소라고 생각한것도 눈이 조금 찌프려졌기에 그렇게 생각한것이였다.

《한심하구만!》

반장의 말이였다. 그런데 그다음 말은 명심이가 도저히 생각 못한 놀라운 말이였다.

《기대공이라는게 함부로 기대를 버리고 자리를 뜨면 되겠소? 스위치도 안끄고, 기대공은 1분1초라도 기대와 자기를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되오. 알겠소?》

영심은 대답대신 발밑에 깔린 톱밥을 자박자박 밟았다.

(기대공? 내가 뭐 기대공인가? 언제 기대공이라고 임명이라도 했나?)

나무가 가공돼서 나오는 소리보다 더 《요란한》 소리를 들을줄 알았는데 상상으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니 무엇인가 잃어버린것처럼 공허하기까지 했다.

(오늘은 어떻게 된 일인가. 혹시 반장이 기대앞에 쌓인 나무를 본것이 아닐가.)

하얀 신발끈이 움직였다. 몇발자국 가는가싶던 신발끈이 갑자기 툭 떨어졌다. 마치 영심이의 집오한 눈길을 느끼기라도 한듯.

《참, 작업대에 쌓여있는 나무는 뭐요?》

반장의 물음이였다.

영심은 하마트면 자를 떨굴번했다. 기쁜나머지 자기가 웃는다는것도 몰랐다.

《저 반장동지, 그건 잘못 온것 같아서 내놔습니다. 사실 그렇게 두꺼운 나무를 대패밥으로 깎아버리기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심은 말을 끊었다. 반장이 또 아까와 같은 그런 미소도 아니고 웃음도 아닌 눈길로 보는바람에 반장도 뻔히 아는 사실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았는가 하는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가서 일하오. 혹시 두꺼운 나무들이 좀더 있을수 있는데 그건 쪽단작업반에서 가져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주면 되오.》

신발끈이 이제는 아주 사라져버렸다.

영심은 계단으로 올라가 스위치를 넣었다. 붕하고 힘차게 돌아가는 배풍기소리는 가슴속에 있던 한가닥 의문마저 모조리 걷어안고 돌아가는듯싶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우리 반장은 참 별난 사람이지요. 모든걸 다 알고있으면서도 모르는척하고, 난 언제가면 진짜 기대공이 될가요?》

이날의 작업총화는 참으로 빠근했다.

반장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했다.

《오늘 영심동무는 자기 결함에 대해서 심각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기대를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스위치도 끄지 않고 망탕 자리를 뜰수 있습니까? 우리가 쓰는 전기는 우리가 생산하는 벽장못지 않게 중요한 나라의 재부이며 재산입니다. 보이는것만 재산인줄 압니까? 절약해도 나타나지않는 그것을 더 잘 지키고 아끼는것이 곧 우리의 량심이고 마음인것입니다.》

반장의 말은 어딘지 앞에서가 아니라 뒤전에서 들리는듯했다.

《다음은 기대공배치문제데 아무래도 자동대패기 기대공은 새로 임명해야 할것 같습니다. 중요한 기계이니만치 동무들생각엔 누굴 시켰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웅성웅성했다. 하던 사람을 그냥 시키는등 다른 기계에서 떼서 시켜야 한다는등 여러말이 오갔다. 영심은 눈을 내리깐채 사람들의 신발코숭이만 내려다보았다.

(오늘 일만 없었어도 혹시 몰라?)

영심은 한번도 눈여겨 살펴본적 없는 배풍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반장의 목소리가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의 설레임소리를 누르며 들려왔다.

《내 생각엔 영심동무를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심은 숨이 딱 멎는듯했다. 기대공이라니, 갑자기 주위의 모든 일이 한순간 먼 과거의 일로 사라졌다. 갑자기 눈앞의 현실로 되살아나는듯했다. 이 한순간이 지나온 모든 일을 대신하는듯했다.

《내 생각엔... 영심동무를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오늘과 같은 결함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앞으로 능히 고치리라고 봅니다.》

반장의 얼굴에 언젠가 나무를 보고 웃던 그런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수천마디 말보다 더 큰힘을 대신하고있었다.

《좋습니다.》

사람들의 호응이 영심이를 정신차리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니, 전 못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은 입속에서만 맴돌아칠뿐 도저히 입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반장은 기대일지를 앞에 놓고 이름을 써넣기전에 버릇대로 잉크단지를 손으로 쓸고있었다. 톱밥먼지를 뽀얗게 들쓰고 앉아있던 잉크단지는 금시 자기 본색을 드러내며 맑고 투명한 빛을 내었다.

《그럼 그렇게 결정합니다. 영심동무는 앉소. 뭐 일어설것까지는 없소.》

반장은 흡족한듯 기대일지를 들여다보았다.

래일이면 또 먼지를 뒤집어써 잉크병마저 이 순

간엔 오직 영심을 위해 깨끗한 모습을 하고있는 듯싶었다.

영심이는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다.

문을 열기바쁘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고싶었다.

《어머니, 이런 일이 있을수 있을까요...》

영심은 책상에 놓인 잉크단지며 책들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오늘에야 비로소 그는 자기가 현장과 얼마나 가까와졌는가를 깨달았다. 자기도 모르는사이 현장책상처럼 잉크며 종이장들을 벌려놓고.

영심은 문득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싶었다.

《어머니, 나도 반장처럼 그렇게 웃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영심은 자기가 얼마나 더없이 귀중하고 아름다운 생활속에서 살며 일하는가를 깨달았다. 평범한것 같으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우리 생활,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어버이로 모신 하나의 대가정에

서 꽃피나는 아름다운 생활이었다. 그러고보면 나의 일터도 내가 사는 집인것이다.

그는 얼마나 쉽게 말하였던가. 《그저 그래요.》하고...

문소리가 났다. 어머니가 온것이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반갑게 소리쳤다. 마치 오래간만에 보는것처럼.

《어머니! 이제 오세요? 오빠네 집은 다 잘 있어요?》

영심은 어머니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어찌선지 버르고버르던 그 말만은 끝내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이런 말이 나갔다.

《어머니, 언젠가 만들어줬던 장갑있지요? 왜 그 청소걸레랑 말이에요. 그걸 래일아침에 몽땅주세요. 직장에 가지고 나가겠어요!...》

병사의 배심

원현호

나는 병사
조국의 외진 초소에
소문없이 총잡고 서있는
이름없는 보통전사

하지만
내 지켜선 자그마한 좌지만이 아니라
사단쯤의 큰 전선도 생각할줄 알고
겨뤄볼 원쑤도 줄병따위보다
오성장군쯤을 상대로 보노라

언제부터였던가
당장 코앞에 폭탄이 떨어진대도
눈섭 한오리 떨리지 않고
천만대적도
한주먹에 때려눕힐 자신심이 생긴것은

적들이 한수를 꾸며낼 때
백수천수를 내다보시고
우리의 승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지략에
내 탄성을 터뜨린적 얼마였던가

전쟁의 불구름
폐지어 밀려오는 준엄한 그 시각
새로 창작한 노래도 들어주시고

새로 일떠서는 기념비건설장도 찾아주신
우리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에
내 무적의 힘을 얻은적은 또 얼마였던가

아, 그이의 손길따라
자욱자욱 위훈우에 위훈을 세우며
걸음걸음 승리에서 승리로 전진하며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였거늘

나는 영광찬 그 나날속에
일당백의 슬기와 용맹 키웠고
그 보람찬 나날속에
배심이 커진 병사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는 원쑤도
그이의 전사-
나의 총구에서 벗어날수 없노라

분계선너머에서
침략의 검은 칼을 가는
미제와 그 앞잡이놈들,
저 대양건너 백악관의 괴수까지도
병사-내 손아귀에 쥐여져있나니
한번 힘을 주면
모조리 뼈가 부서지리
또한번 힘을 주면
모조리 숨통이 끊어지리!

《자력갱생》의 글발앞에서

박창민

아침,

보람찬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의 물결이 지하철도역으로 끝없이 흘러든다.

누구나 밝은 얼굴, 씩씩한 걸음이다.

바다처럼 설레이는 생활의 거류속에 뛰여든 나도 통일역으로 들어섰다.

행복의 《무지개다리》라고 부르는 계단식승강기를 타고 사람들이 지하평양으로 내려간다.

승강기를 타려는데 힘있게 안겨오는 글발이 쿵-이 가슴을 친다.

승강기에 새겨진 《자력갱생》!

레사로이 대하는 사람들이 많을것이다.

승강기를 탈 때마다 보는 글발이지만 사람들은 무심히 대할수도 있으리. 그러나 저 글발에 깃든 불멸의 사적을 잘 아는 나로서는 이렇게 승강기를 탈 때마다 숭엄한 감정의 밀물이 가슴가득 흘러들곤 한다.

더더구나 우리 혁명의 불멸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며 승리의 기치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자는 당의 호소가 온 나라에 나래치고있어 더더욱 범상히 바라볼수 없다.

후더운 눈길을 들어 《자력갱생》의 힘있는 글발을 가슴에 새겨가는 나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뜨겁게 안겨왔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지하철도를 마련해주시려고 석수가 흘러내리는 경사 급한 험한 사경을 수십번이나 오르내리시며 수백차례의 귀중한 교시를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손길은 저 계단식승강기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하철도건설자들이 굴뚝기전투를 한창 벌리고있을 때에 벌써 계단식승강기도 우리 힘과 기술로 생산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어느 한 기계공장에 승강기직장도 새로 꾸려주시고 대담하게 달라붙어 꼭 만들어내도록 결린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의 휴식시간에도 지하철도건설을 명도해주신 그이께서는 승강기공장에서 온 한 노동자를 친히 만나 승강기

생산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그 노동자는 시험적으로 한대 만들었다고, 앞으로 얼마든지 많이 생산할수 있다고 신심에 넘쳐 말 씀올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무의 결의를 들으니 피곤이 다 풀린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드디어 승강기시제품이 생산되였다.

일군들로부터 소리가 좀 난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 생산하는 지하철도승강기인데 왜 결함이 없겠는가, 그렇지 만 이렇게 자력갱생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노동자들의 전투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낳은 로동계급의 창조물이 그리도 귀중하시여 얼마후에는 친히 현지에 나가시여 승강기를 보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대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면서 이 승강기에 《자력갱생》호라는 뜻깊은 이름을 달아주시였다.

이렇듯 그이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심장을 불태워주어 지하철도 건설자들은 걸음걸음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 그렇듯 웅장화려한 지하평양을 건설할수 있었다.

자력갱생!

조용히 되뇌어보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그처럼 피어린 길을 헤쳐온 우리 혁명의 년대와 년대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우리 혁명은 일심단결로 시작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개척되어왔다고 자랑스럽게 말할수있다.

맨주먹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낸 유격대의 병기창,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의 발악적인 《토벌》을 물리치며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낸 유격근거지사람들, 밀림속에 울려퍼진 발가는 소리, 작탄소리, 재봉기소리, 도끼소리...

후방도 없이 항일혁명선렬들이 15여성상 일제침략자들과 싸워 이긴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있었기때문이었다.

항일혁명선렬들이 높이 추켜든 자력갱생의 구호는 외세의존이 아니라 민족자력에 의한 나라의 독

립을 갈망하는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것이었다.

자력갱생이야말로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사에서 처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다.

자력갱생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였다. 자력갱생을 떠나서는 애당초 주체에 대하여 생각할 수도 론할 수도 없었다. 자력갱생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은 항일혁명투쟁 전기간 그들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된 좌우명이었다.

유격대의 병기창에서 울려 퍼진 마치소리는 우리 시대의 거세찬 맥박으로 되고 이 시대를 줄달음치게 하는 위력한 원동력으로 되었다.

간고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안고온 자력갱생의 불씨는 해방후 새 민주조선 건설의 봉화로 세차게 타올랐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도 자력갱생은 전선과 후방, 싸우는 이나라 그 어디에서나 투쟁의 기치, 승리의 기치로 힘차게 나래쳤다.

채더미우에 사회주의를 일떠세우는 엄혹한 전후 복구건설의 나날에도 자력갱생은 천리마의 나래를 펼쳐준 원동력으로 되었다.

자력갱생이라는 힘있는 무기가 있어 우리는 트랙트르, 자동차, 굴착기, 불도젤도 만들어냈고 3천톤, 6천톤, 1만톤 프레스의 우람찬 동음소리로 지구를 진동시켰다.

우리가 전기기관차를 만들려고 할 때 그만하고

싱거운 외국의 어떤자들은 조선사람들이 체힘으로 전기기관차를 만들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희떠운 소리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자력갱생의 위력한 힘으로 《붉은기》호 기관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올렸다.

항일혈전의 불길속에서 태어난 자력갱생의 녀은 오늘도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가는 우리인민의 가슴가슴에 힘차게 고동치고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한다!》...

세기의 위인이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정일** 장군님의 령도따라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기발을 높이 들고 억세게 전진하는 조선의 앞길을 막을 힘 세상에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봉쇄의 쇠사슬도 국제반동들의 집요한 도전의 장벽도 《자력갱생》이라는 육중한 조선의 망치에 산산박산이 나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자력갱생이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자력갱생만이 사회주의 승리의 길이다.

나는 승강기에 올랐다. 마치도 나는 자력갱생의 거세찬 숨결에 실려가는것 같았다.

승강기의 고르로운 동음소리가 가슴을 울려주었다.

높뛰는 심장의 박동을 더해주며, 삶의 활력을 안겨주며...